#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 A STUDY ON EDUCATION PROGRAMS FOR SPIRITUAL GROWTH OF CHILDREN

By

SIM, GYU HYU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Orangeburg, New York

2024

Copyright by
Sim, Gyu Hyun
2024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PROGRAMS FOR SPIRITUAL GROWTH OF CHILDREN

By

SIM, GYU HYUN

This project presents a comprehensive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to nurture the spiritual growth of children. sociology, the research aims to gain deeper insights into the profound impact of these programs on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young learners.

The investigation delves into the foundational elements of Christian education, analyzing the incorporation of biblical teachings and theological principles within the program's framework. Through a systematic examination of scriptural content and pedagogical methods, the study explores how these programs effectively communicate spiritual truths to children.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pivotal influence of educators and parents in facilitating children's spiritual growth within the framework of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It also addresses potenti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inclusivity of these programs.

In conclusion, this thesis project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Christian education programs as transformative tools in fostering children's spiritual growth. By exploring biblical, the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dimensions,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holistic and impactful educational strategies, enriching the spiritual lives of young learners.

# ACKNOWLEDGEMENTS

먼저 나의 사이트 팀인 김모세, 이현주, 박광흠, 김미경 이상 네 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 분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와 격려 덕분에 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나의 논문을 총괄 지휘하신 김상목 지도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와 권면을 아낌없이 해 준 강요안나 전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뉴욕 신학대학 박사과정을 통해 학문적 깊음과 실천적 수행 능력을 배웠다. 이처럼 나에게 귀한 사역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뉴욕 신학대학교와 훌륭한 강의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필리핀 아태장신대 부총장님 이신 황상호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논문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역의 터전을 열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감사를 전한다.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어머니 추정애 장로님, 장인어른 이순창 목사님, 장모님 김은희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내 단짝이자 영혼의 파트너인 사랑하는 아내 이성실과 존재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되는 두 딸 심예원과 심예솔에게 감사하며,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장 크신 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게 하신 나의 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2024 년 2 월 New Jersey 에서

심 규현

Table of Contents

I. 서론 ····· 1
1. 학교의 지역적 배경 ····· 1
1) 학교의 역사 배경 ····· 1
2) 선교적 과제 중심 배경 ····· 2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 3
1) 목적 ····· 3
2) 목표 ····· 4
(1) 아동에 대한 바른 이해 ····· 4
(2) 아동 영성의 이해 ····· 5
(3) 아동 영성 형성 및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 ····· 5
(4) 아동을 위한 영성적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모델 연구 및 실행 ····· 7
(5) 아동 영성 개발 훈련과 전인격적 교육을 위한 실천 프로젝트 ····· 7
3. 용어 정의 ····· 9
1) 복음 ····· 9
2) 복음교육 ····· 9
3) 아동 ····· 9
4) 아동영성 ····· 10

II. 성서에 나타난 아동 영성 ····· 11
1.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 ····· 11
1) 영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 ····· 16
(1) 구약의 영성 ····· 16
(2) 신약의 영성 ····· 17
2) 성서에 근거한 아동에 대한 이해들 ····· 21
(1) 하나님의 선물과 기쁨의 자원 ····· 21
(2) 미성숙한 존재 ····· 24
(3) 주님의 훈계로 교육되어야 할 존재 ····· 25
(4) 신앙의 모범 ····· 27
(5) 죄성을 가진 피조물 ····· 28
(6) 성서적 아동 이해의 다원성 ····· 30
3) 종합 정리 ····· 32

III.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 아동 영성 ····· 34
1. 영성의 개념 이해 ····· 34
1) 전통적 개념 이해 ····· 35
2) 신학적 특성 ····· 36
2. 영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 39
1) 초대 교부의 영성 ····· 40
2) 중세시대의 영성 ····· 44
3) 수도원 운동의 영성 ····· 44
4) 사막 교부들의 영성 ····· 48
(1) 사막으로 간 이유 ····· 48

(2) 사막의 교부들의 생활과 영성 ····· 49
5)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영성 ····· 52
(1) 동방교회의 영성 ····· 52
(2) 서방교회의 영성 ····· 53
6)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 ····· 54
(1) 마르틴 루터의 영성 ····· 55
(2) 존 칼빈의 영성 ····· 56
(3) 청교도 운동과 영성 ····· 58
7) 근, 현대 영성 ····· 59
(1) 독일의 경건주의 영성 ····· 60
(2) 존 웨슬레와 영성 ····· 61
(3) 대각성운동 ····· 63
8) 후 현대주의와 영성 ····· 65
3. 아동 영성과 기독교 교육 ····· 69
1) 영성적 기독교 교육의 원리 ····· 69
2) 아동 영성 형성을 위한 복음교육과 이야기 ····· 73

IV.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 아동 영성 ····· 76
1. 발달심리학적 아동 이해 ····· 76
1) 신체적 발달 ····· 76
2) 심리적 발달 ····· 78
3) 심리사회적 발달 ····· 80
4) 인지적 발달 ····· 81
5) 사회적 발달 ····· 83
6) 정서적 발달 ····· 84
7) 도덕적 발달 ····· 85
8) 신앙적 발달 ····· 87
2. 전인적 신앙 발달과 아동 영성 ····· 89
1) 전인적 신앙의 의미 ····· 89
2) 신앙발달의 의미 ····· 90
3) 전인적 신앙의 특성 ····· 92
(1) 영성을 통한 신앙발달 ····· 92
(2) 나눔을 통한 신앙발달 ····· 94
4) 전인적 신앙발달의 유형 ····· 98
(1) 지적(앎)의 신앙 ····· 98
(2) 신뢰적(체험) 신앙 ····· 100
(3) 실천적(행함) 신앙 ····· 102

V.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 아동 영성 ····· 108
1.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한 이해 ····· 108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관점 ····· 109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 109
(2)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관점 ····· 110
2)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 ····· 114
(1)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 ····· 114
(2)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적 특징 ····· 119

VII. 과제 실행 ····· 126
1. 연구반원 구성과 사역 ····· 126
2. 프로젝트의 실행 ····· 128
1)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교안작성 ····· 128
2)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실행 ····· 130
3) 필리핀 산소망 교회 토요학교 실행 ····· 135

VIII. 과제 실행 평가 ····· 137
1. 의식적 변화에 대한 평가 ····· 137
1) 일반 성도에 대한 설문 조사 ····· 138
2)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 138
3)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참가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140
2.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141
1) 스토리 텔링 ····· 141
2) 알파벳 타임 ····· 142
3) 테이블 타임 ····· 144
3.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결과 ····· 145

IX. 목회 유능성 개발 ····· 146
1. 목회 능력 개발의 중요성 ····· 146
2. 구체적 계획 ····· 146
1) 영성 신학자 ····· 146
2) 종교 교육자 ····· 147
3) 지도자 ····· 148
3. 목회 능력 개발 결과 ····· 148
1) 영성 신학자 ····· 148
2) 종교 교육자 ····· 149
3) 지도자 ····· 150
4. 프로젝트 평가 ····· 151
1) 교육자 평가 ····· 151
2) 아동들의 성장과 반응 평가 ····· 152
3) 학교 및 선교적 평가 ····· 153

X. 결론 ····· 154

Appendixes
Appendix A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그램 ····· 161
Appendix B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설문서 ····· 226
Appendix C 일반 성도들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서 ····· 228
Appendix D 참가자들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서 ····· 229

BIBLIOGRAPHY ····· 231

# I. 서 론

## 1. 학교의 지역적 배경

필리핀 아태장신대학교(Asis-Pacific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1]는 Rodriguez, Rizal에 위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로드리게스 자치구는 과거 몬탈반(Montalban)으로 알려졌으며, 필리핀 리잘 지방의 1급 자치단체다. 202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 44만395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로 꼽힌다. 이 마을은 시에라 마드레 산맥의 경사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12.70km로 리잘 주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종교는 천주교(81%), 개신교(11%), 이슬람교(6%)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을 잇는 필리핀은 지리적 위치나 영어권 문화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선교 기반 지역으로, 이미 한국교회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 1) 학교의 역사 배경

필리핀 아태장신학대학교(Asis-Pacific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 (이하에서는 아태장신대 라고 한다.)는 1989년 초대 교장인 류동원 선교사가 설립하였다.

[1] www.City – data. Com/city/Rodriguez- Rizal. Html (accessed Oct 2, 2023).

필리핀 현지인들의 신학공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출범하여 1994년 독자 안수권 확보를 위해 필리핀 장로교회와 협력을 맺었고, 마닐라장로회신학대학(MPTS)로 발전했다.

학교 7대 총장인 이홍정 목사 취임 후 2007년 필리핀 아태장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으며, 2011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드리게스(몬탈반)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2016년에는 필리핀 고등교육부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았고, 2018년 대전영락교회의 후원으로 체육관(농구장)을 완공했다. 아태장신대는 신학과와 기독교교육과를 운영 중이며 3명의 전임교수와 16명의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학교 재학생은 120여 명이다.

2) 선교적 과제 중심 배경

아태장신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교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육 선교 센터로서의 비전을 가졌지만 학교가 설립된 지역은 도시 빈민 쓰레기 촌인 빠야따스 접경지역인 이주민집단촌 로드리게스(몬딸반)이다. 질병과 내전, 빈부격차 등 여러 가지 이후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모인 로드리게스(몬딸반) 지역을 선한 사람들, 곧 지역 기독교인들과 아태장신대 학생들이 함께 변화시켜 가는 것이 이곳에 신학교가 생긴 목적이다.

아태장신대의 실천중심의 교육 선교 공동체는 다름 아닌 이웃 만들기의 과정이다. 학생들이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4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는 어느 현장에서도 학생 자신부터 선한 이웃이 되어 사역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명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한다. 지역교회의 지도자에 따라 교회의 미래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21세기 기독교의 미래를 위해는 교육 선교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신학교 사역은 미래의 필리핀 교회 및 학교,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과 바른 기독교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수업을 지향하고

한국 및 세계의 최신 기독교 교육 자료를 꾸준히 연구, 수집하여 최고의 자료를 전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반원들은 본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1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다. 강의와 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들을 실제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해봄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 교사가 되어 그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어린이 영성을 훈련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돕는다.

## 2. 연구의 목적과 목표

### 1) 목적(Goals)

아동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서구의 기독교교육은 계몽주의와 인지발달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발달이론이 주를 이루어져왔다.

발달이론에서는 아동을 '아직 종교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는 아동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신앙의 체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오늘날 아동을 대하는 입장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나 기독교 학교에서 아동은 하나님에 대하여 혹은 기독교적 윤리와 덕목을 가르쳐야 할 교육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는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아동에 대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동을 하나의 개념안에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 나타나는 아동의 이해의 특징은 아동의 다양한 이해에 있다.

본 논문은 아동에 대한 성서에 나타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해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아동의 이해는 그들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성서적 아동의 이해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으로 그들을 보고 아동의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교육을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목표(Objectives)

필리핀 아태장신대학교에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1) 아동에 대한 바른 이해

아동의 심리성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인지발달, 종교 사고의 발달, 그리고 신앙발달적 측면을 연구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이해들은 당시 인간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교육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결과물이 된다. 이전까지 아동을 단순히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았던 시각과는 달리, 교육이 필요하고,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아동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대의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아동의 이해가 가지는 협소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 아동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인지, 심리 성적인 부분, 심리사회적, 도덕 혹은 종교의 한 부분, 발달되어야 할 신앙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교육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연구 및 교육을 한다. 아동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나온 아동에 대한 좀더 광 범위하고 풍부하고 복합적인 그림을 보충할 수 있다.

성경은 어린이를 '하나님의 축복' 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온전한 인간' 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미성숙하여 교육이 필요한 '교육 필연적 존재' 로도 표현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성인을 교육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죄 성을 가진 인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성서의 다양한 어린이 이해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이들을 기독교

아동교육에 적절하게 해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린 이해로부터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2)아동 영성의 이해

“아동도 영적 존재이고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것은 어린이 영성 연구의 대전제이다. 어린이 영성 연구의 역사인 어린이 영성 연구의 침묵기(19세기 말-1960년)로 어린이 영성연구들이 서로 관련이 없고 관심사만 반영한 비조직화된 시기, 어린이 영성 발아기(1960년-1990년)로 인지발달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시기, 어린이 영성 발전기(1990년-현재)로 어린이 영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학회와 각종 세미나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어린이 영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돕고 그 후에 아동 영성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한다. 어린이의 영성은 존재하는가? 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2]인 클린버그, 엘킨드 부부, 머피, 로빈슨, 콜레스, 헬러, 썬, 탐미넨의 연구를 통해 아동은 영적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더 나아가 영성의 분명한 이해를 돕는다.

즉, 어린이의 영성에 대한 단 한마디, 한 측면에서의 정의 내리기 보다는 현대 영성정의의 다양한 특징들이 포함된 영성이해의 다양한 측면들 다시 말해 인간성의 통합으로 서의 영성[3], 다차원적 구성으로 서의 영성, 종교적 발달과의 관계성, 관계와 경험에 내재된 영성을 살펴봄으로써 영성을 이해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자들로 하여금 교육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표를 갖게 한다.

(3)아동의 영성 형성 및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 방향

영성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은 관계성에 기초하여 인간과 초월자의 관계에서 의식이 확장된다.

---

[2] David Hay, Rebecca Nye, and Roger Murphy. "Thinking about Childhood Spirituality: Review and Current Directions",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Trawbridge: Red Wood Book, 1999), 55.

[3] Eugene C. Roehlkepartain*, Chrldren's Spirituality* (New York : Macmillan, 2001), 122.

삶의 본질을 찾으며, 창조적 행위의 결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영성에 대한 의미를 교육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입히는 연구를 한다.

아동의 영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영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이신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 혹은 일치이다. 아동을 위한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진실되고 충실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내적인 삶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신뢰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들을 주고받는 느낌으로 가능해진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기 내면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영성 성장 기독교교육이다.

아동의 영성을 위한 교육의 필수 요소는 관계성이다. 관계성은 아동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느낌, 부모 및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 과의 관계속에서 신뢰를 경험할 때 가지게 된다. 아동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아동의 영적 필요는 더욱 증진되며 이것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믿음(신뢰), 거룩, 사랑, 소망, 용서의 감정을 느끼고 발달시켜 나간다. 아동에게 관계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장, 내용,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는 이러한 아동이 경험하는 관계적 삶이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되도록 한다.

영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의 접근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 그 특징이다. 아동을 발달적, 인지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여, 그들이 영성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아동을 전인적 존재로 보고 모든 영역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

(4)아동을 위한 영성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의 모델 연구 및 실행

아동을 위한 영성 성장 교육방법은 비언어적 측면과 감각적 측면을 고려한다.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린이의 특성에 맞게 이미지와 상상 및 예술적 접근을 통한 교육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오감과 환경에 제공하는 전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어린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이는 공동체와 타인 및 자연과 우주에 대한 수용과 용납 및 돌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위한 본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강의하고 그들이 스텝이 되어 한달 간의 방학기간인 4월에 4주 동안 학교 근처 아동 및 가족을 초청하여 영성캠프를 실시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위와 같은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이해, 영성의 이해, 그리고 아동 영성 형성 및 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청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한다.

(5) 아동 영성 개발 훈련과 전인격적 교육을 위한 실천 프로젝트

① 아동의 영성 형성 훈련

영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예하여 친밀한 교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영성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훈련이다. 영성형성[4]이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5]

---

[4] Bradley Holt 는‘영성형성’을두가지관점에서해석했다. 첫째, 영성형성은‘존재’(being)와관계한다고 했다. 인간은 모두거짓나를진짜나의모습으로착각하며살아간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나가 아니다. 인간은하나님과의깊은사귐속에들어갈때에진짜나를발견할수있다. 둘째, 영성형성은‘관계’ (relationship)을이루는것이다. 관계라함은하나님과의관계, 자신과의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를뜻한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갈 때 비로서 열린 세계관이구축된다.

[5] 소기범, *하나님만나기- 영성의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4.

본 논문이 영성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은 4주 프로젝트로 정했고, 대상은 학교 주변 아동 및 지역 교회나 선교단체에서의 신청 아동들이다. 이들에게 영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성 형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는 아동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기 때문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 훈련자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며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게 된다.

② 전인적 신앙의 의미

전인적 신앙이란 어린이의 신앙이 지적 신뢰적 실천적 발달을 포함한 온전한 성장을 의미한다 한성모는 전인적 교육을 인간의 내적인 통합(지 덕 체의 조화)을 삶 속에 발현하여 처해 있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총체적 인격교육이라 정의하며 또 인간 사회의 문화적 측면과 전 지구적 생명의 공존과 우주 적 공존의 발현을 위한 정신적 영적인 교육으로 정의한다.[6]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지적 감성적 능력을 통해 얻은 삶의 결과에 궁극적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영적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한 가지 측면을 절제하거나 제한하여 다른 측면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앙교육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전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은 자신의 의도, 부모의 바람, 사회의 요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자신 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7]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6] 한성모,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방법론*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7]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서울 다산 글방, 2002), 131.

3. 용어 정의

1) 복음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b.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절 되었다. c.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d.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 받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God's action for me)이며,[8]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인간의 신뢰와 순종의 반응, 즉 '믿음'의 차원까지 포함한다.

2) 복음 교육

어린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용서, 용납, 즉,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분의 행위와 은혜에 대해 믿음, 감사, 보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안내, 도전, 격려하는 교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어린이의 삶 속에 지니고 있는 죄책감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충분한 답이 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아동

아동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나이가 어린 아이"[9]를 뜻한다. 하지만 아동의

[8] Margaret A. Krych,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교육*, 이규민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12), 33.

[9] 두산동아 편집부, *새국어사전* (항목, "어린이", 1990), 131.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발달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출생부터 만 2세까지를 영아기로 부르고 만 2세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시기인 만 6세까지를 유아기, 만 6세 이후부터 만 12세까지의 학령기를 아동기라고 부르고 있다.[10] 본 연구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학령기' 까지를 '아동' 라고 명명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4) 아동 영성

'아동 영성' 이란 인지-언어적 능력이 갖춰지기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의 태생적인 영적 인식 능력과, 형식적인 학습과 교육에 상관없이 내재된 어린이의 생득적인 영성적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동 영성' 이라는 용어속에는 아동은 언어적, 인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그들 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이들의 영성과 영적 잠재력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0]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20.

## II. 성서에 나타난 아동 영성

### 1.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영성'을 말할 때, 여기에서의 논의는 주로 인간을 단순히 물리적, 또는 기계주의적 환원주의(mechanical reductionism)적 존재로만 보지 않고 인간 속에 어떤 정신적, 또는 초월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영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는 포괄적인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신에 대한 인간의 추구로 이해되기도 한다.

'영성'(spirituality)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신을 향한 깊은 교제의 상태 또는 종교적인 가치에 젖은 정신적 상태'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영성이라는 말이 삶의 다른 측면들 예를 들어 실제적인 생활과는 다른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지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영성이라는 말 대신 거룩(holiness), 하나님과의 동행(walk with God), 제자도(discipleship)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영성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함으로써 영성이라는 말이 일종의 추상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였다.[11] 오늘날 우리가 흔히 영성의 의미로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좀더 실제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진리에 입각한 실제성을 강조하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형식을 탈피한 종교적 삶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11] 문석호, *영성신학의이해* (서울: 신앙과지성, 2004), 49.

이러한 정의가 비기독교적으로 이해될 때는 파악하기 불가능한 어떤 절대자를 향한 추구 내지 인간성 속에 내재된 초월성이나 정신적 회복으로 연결되지만 영성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적으로 이해될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해 인간 속에 회복되어야 할 원래의 피조성을 찾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삶의 실제적인 것이 경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은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12]

개신교 내에서의 영성에 대한 이해 역시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왔다. 혹자에 의하면 영성이란 초월적인 신의 현존을 탐색하는 내적 감수성이나 궁극적 실재와의 접촉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나 신앙, 실천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빛 안에서의 삶이요,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과정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입김을 체험하면서 삶의 전 영역을 자유, 사랑, 공의, 평화로 변하게 하는 창조적 변혁의 힘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13]

기독교 영성은 지, 정, 의를 통합 총괄하는 인간 존재의 본 바탕이며 하나님과의 교류, 합일, 동역을 체험하는 영혼의 핵이요, 영성 훈련은 본질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며, 영성은 인간 영혼이 독거하는 독백이 아니라 삶의 현실과, 역사 현실을 포괄하여야 하며 영성의 사회적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영성의 근거와 의미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교재를 현실적으로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 나가는 과정이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는 형제, 자매들 속에 나아가

---

[12] Margaret A. Krych,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교육*, 이규민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12), 33.

[13] 문석호, *영성신학의이해* (서울: 신앙과지성, 2004), 59.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14]

혹자는 영성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한 입장을 비평하면서 진정한 영성이란, 계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내려와 덧입혀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만일 성장하는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이 아니라 다만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정신성의 성장임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기독교 영성이란 감각세계를 초월하며 주체의 노력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확장되며 고양된 의식으로 주체를 인식하며 그 본질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며 그 모습은 이 세상 속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15]

기독교의 영성의 또 다른 입장은 내면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심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으로 본다.[16] 즉 기독교 영성은 내면세계가 질서를 잡아 규모 있게 행동하되, 소유에만 집착하지 않고 돌보아 지키는 일이 본분임을 알게 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길 줄 아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 역시 그 외적인 언어의 사용 그 자체로만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나름대로 영성에 대한 어떤 측면을 묘사한 것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들 속에 내포된 함축된 의미를 구별해 내는 데 있다. 따라서 영성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영성이라는 단순한 정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정의의 배후에 깔려 있는 신학적 입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견해들을 토대로 볼 때, 영성은 '하나님 중심의 수여성'이라고 보는가 하면 다만 그것은 '인간의 정신 세계와 그 영역의 확대'로 보는 입장이 있다.

---

[14] Urban T. Homeless, *Spirituality for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2), 12.

[15] Goeden Macdonald,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홍희옥역 (서울: IVP, 1990), 180.

[16] Ibid., 186.

또한 영성 자체에 대한 접근 보다는 '영성의 열매나 그 삶의 결과물들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성에 대한 이해는 그 중심이나 근원이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다.

기독교 영성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영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늠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요. 그리고 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역으로 인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성령 안에서 그 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신자로서 이해해야 할 영성이란 인간이 그 스스로의 중립적 위치와 정신성의 힘으로 고안해 내는 어떤 성품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성령 안에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교제의 과정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해 본 것을 토대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자면, 창조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무너진 인간에게 임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의 택한 백성에게 그 삶을 통해 은혜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다.[17]

따라서 영성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학 그 자체에 대한 정의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신학이 단지 신에 관한 인간의 사색으로만 정의된다면 영성 역시 인간 속에 잠재된 정신성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자기 정화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학이란 '이미 말씀하신 성경을 중심으로 그 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를 알고자 하는 진리를 따라 창조주에 대하여 드러난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이다.

[17] Urban T. Homeless, 15.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신앙의 뿌리와 열매 안에서 성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경건한 삶으로 표출되는 기독교인의 인격적 모습임을 강조하는 것이 영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이미 밝힌 대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해되는 영성이란 그 분의 주권과 사랑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신 중생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전에서 기독교 영성은 세속주의가 내세우는 인간의 기능확대나 심리적 확장이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18]

영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영성에 대한 인본주의적 자율성 내지 비 성경적 영성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적 사고를 떠날 때 드러내 보이는 영성이란 결국 신앙 그 자체의 의미를 약화시킨 채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영성에 대한 성경적 의미 회복은 신자의 구원의 의미를 잘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면서 신자의 순종적 삶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19]

따라서 성경 중심의 기독교 영성은 영성의 대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기반을 두고 진행된다. 영성을 떠나서 신앙을 논할 수 없으며 영성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풀어 갈 수 없다. 기독교 영성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구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독교 영성을 추구하는 신자들은 대상을 막론하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넘치는 생명을 수여받고 또한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영성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영역이다. 이 영성의 뿌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 영성의 의미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에게 영성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18] Ibid., 22.

[19] 문석호, 59.

1) 영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

오늘날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교회와 신학의 주제로 널리 퍼져 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 타 종교나 우리들의 문화 전반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영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교회사의 흐름을 따라 각 시대의 영성을 연구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영성을 이원론적 경건주의, 혹은 수도원적으로 세속을 등진 은둔적 신앙으로 이해한 것을 거부하고 일상적 삶 속에서의 역동적인 힘으로 이해했다.[20]

(1) 구약의 영성

성경에 언급된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뉴마" 와 히브리어 "루아흐" 라틴어로는 "*spiritus*"라 하는데, 그 의미는 바람, 생명, 입김, 호흡으로서 모두 공기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 단어들 종종 숨을 쉴 때 공기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호흡으로 변했으며 이 단어들은 은유적으로 생명의 본질 또는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21]

구약에서의 영은 루아흐로서 바람, 숨, 생명력을 지시하는데, 정서와 의지도 가지고 있다. 히브리어 명사인 루아흐는 맛소라 본문(MT) 전체에 378 회 나타난다. 그 중에서 주로 사람이 들어 내쉬는 '숨'이 33 회, '바람'이 117 회, '정신'이 76 회, 육체 속에 내재한 '생명력'이 25 회, '정서''기분''감정' 등이 3 회, 정신적인 활동의 자리 혹은 기관으로서 9 회, 인간 의지로 3 회, 도덕적 성품으로서 18 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는 94 회이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연계에서 움직이는 기상학적 현상인 바람으로 루아흐, 그리고 사람 속에서 작용하는 능력, 기분, 절서로서의 루아흐,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루아흐이다.

[20] 한동구, *구약성서의 입장에서 본 영성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64.

[21] Hendrickson Berkhof, *기독교와 성령의 역사*, 이창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 19.

인간의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르아흐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서의 르아흐, 둘째로 입김처럼 인간의 신체 안에서 거의 표시 없이 들어로고 나가는 르아흐, 셋째로 욕구, 슬픔, 분노, 의지 등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르아흐로 언급되어 있다. 넷째로, 의지와 성품인데, 바람처럼 흘러간 것이다. 또한 뜻을 행동하는 구체화시키는 의지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르아흐이다. 마지막으로 활기와 용기이다.[22]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르아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교훈이나 경고를 하도록 강권하며 지도자에 능력과 권력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구약의 영은 창조하는 르아흐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으로 르아흐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약의 영 이해는 신약처럼 성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성령 보다는 인간학적인 면의 성령, 자연계에 있어서의 바람으로서의 영,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삶의 지혜와 관련된 영성을 이해하고 있다.[23]

이것으로 보아 구약의 영성 이해는 하나님의 영이 개인의 삶 속에서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로 참여하는 영성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본다. 영성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실천적인 통전적인 생활이라 할 수 있다.

(2) 신약의 영성

신약에서 영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입김을 뜻하는 '르아흐'처럼 창조와 생명, 해방의 역사를 일으킨다. 신약에서 영의 출현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들의 실현, 곧 끊어

[22] 민영진, *구약의 영성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158.

[23] Ibid., 161.

졌던 영이 되돌아옴으로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때가 실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말하자면 신약에서 '영'의 임재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깊은 관련이 있다.[24]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 가게 될 어떤 공간이 아니라 '왕국' '왕권'을 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정의와 공평과 종말적인 평화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신약에서 영성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Gustav Adoif Deissmann 은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생활, 즉 신앙체험이라고 주장했다.[25] 복음서는 예수의 세례 받으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예수의 교훈, 선교, 사상 그리고 행함은 예수와 하나님의 영적 교제 즉 신앙체험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비롯된 역동적인 활동이었고, 예수의 기도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의 내면 생활은 바로 기도 생활이었다.[26]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이러한 힘이 계승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강림으로 확증되었다.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부활이 강력히 증거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모습인 것이다. 누가복음 4:16-21 은 영을 받은 예수에 의한 이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 본문에서 영을 받은 자로서 예수는 그 자신,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해방과 희년의 사건을 성취할 것임을 밝힌다.

---

[24] 최영실, *영성과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87.

[25] 문상희, *목회의전문화와영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4), 180.

[26] Ibid., 186.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이 점에서 신약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영성과 이른바 귀신들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적인 힘을 철저히 구분한다. 즉 예수가 가진 영성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는 악한 영들과 싸우며 그것을 몰아낸다.[27] 공관복음에서 예수가 행한 기적들은 마술적인 의미의 기적 행위가 아니다. 그 기적 행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징이다.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영성은 어떤 놀라운 신성이나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영성이다. 요한복음에서 영성은 개인적인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서로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복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서로의 진정한 관계를 가능케 하는 계시를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개인의 모습으로부터 나온다. [28]

사도행전에서도 영성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도행전의 영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자와 여자를 사도로 불러 증언하게 하는 영성이다. 예수의 부활 승천 후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영성을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운동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29]

---

[27] 최영실, 95.

[28] Stephen C. Barton, *The spirituality of the Gospel*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2), 114.

[29] 최영실, 95.

둘째, 회개와 나눔, 희년을 실천하는 영성이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 희년의 삶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평화의 왕 예수를 따르며 자신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참 평화와 희년 공동체를 실현한 것이다.

셋째, 교회를 세우는 영성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은 개인적인 영성의 부름으로만 그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공동체로서 자신과 가정을 뛰어넘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다.[30]

사도 바울은 그의 회심 체험과 영적 체험을 환상과 계시의 체험으로 머물지 않고 한 인격을 실증적으로 외적으로 인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 기독교 영성을 바르게 정립하였다.

바울의 영성 이해는 헬라 철학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의 신비주의'로 승화하여 비로써 기독교 영성의 역사적 기반을 수립하였다. 바울의 십자가의 신비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형태로서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에 대한 복종 및 그와의 교제의 관계에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영성은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능동적이며 윤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31]

정리하면 신약의 영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실현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다. 따라서 신약의 영성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이며 구체적인 종말론적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30] Ibid., 99.

[31] 김의식, "기독교영성의 바른이해", *신앙계* 통권 229 호 (1986), 19.

신약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길을 지향하는 모본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2) 성서에 근거한 아동에 대한 이해들

아동에 대한 극단적이고 단순화된 관점들을 극복하는데 많은 것이 실행되어야 하며, 그래서 성서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나온 아동들에 대한 좀더 광범위하고 풍부하고 복합적인 그림을 보충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기독교 교육의 헌신을 더욱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전통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아동과 아동기에 대하여 편협하고, 파괴적인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수정되고 열려질 때, 아동들에 대한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기독교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독교 전통안에 있는 아동의 본성에 관한 여섯 가지 견해들이 있다.

(1) 하나님의 선물과 기쁨의 자원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가끔 아동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하기도 하는 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 속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자원이 된다. 아동은 부모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데, 그들은 출발부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며, 그 안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들을 수행한다.

전체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동을 보는 것은 급진적으로 그들을 공동체에 대하여 부모의 재산으로서 혹은 경제적인 부담들로서 그들을 보는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도전한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며 표시들이라는 것과 관계하여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그들에 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자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나타나는 어린이 이해에서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요 선물이다.

창30:20에는 레아가 그녀의 여섯째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도 성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하였다(창 30:22). 한나의 경우에도 여호와가 그를 생각하사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삼상1:11, 19). 하나님의 뜻(생각)이 있어서 이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소개할 때에도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창48:9)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 속에는 아이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 오는 것이라 고 하는 이들의 생각이 배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 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를 기록하며 성서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삼상1:5)라고 하였다.

아동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아이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 따라서 시편 127편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였다. 자식은 여호와로부터 받은 유산이요, 상이라는 말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핵심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화되는 통로였다.

아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이해했다는 것은 어린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린이에 대한 처분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고대의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어린이 유기의 관습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두드러진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 아이 가 태어나면 국가가 아이를 살리거나 죽일 권리가 있었다.[32]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마을의 장로들이 건강한지 허약한지를 살펴서 건강한 아이는 살리고, 허약한 아니는 내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 레쉐라는 골짜기에 한번 버려진 아이가 기어나와서 살게 되면 이 아이는 가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나 창녀가 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로마의 문화에서는 가장 에게도 자신의 아이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다. 가장은 태어나는 아이들 중 하나나 둘만 선택해 살려서 그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어 한 가문의 재산이 나뉘지 않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악습에 대해 로마인들 스스로도 신생아를 죽 이는 풍습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정죄하고 있는 문헌을 찾아볼 수 있다.[33]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기에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대의 어떠한 문서에도 어린이를 버리거나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어린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요 선물' 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어진 온전한 인간' 이라는 성서의 이해는 오늘날의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은 부모는 아이를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2] Hans Rudy Weber, *예수님과 어린이,* 양금희 역 (서울: 장신대 출판부, 2000), 127.

[33] Ibid., 128.

(2) 미성숙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아이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곧 이들이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어린이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서 성장과 발 달의 도상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

고전 13:11에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 아 직 미성숙한 존재이고, 장성하면서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 극복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어린이는 성숙의 도상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어린아이가 아직 지혜도 모자라고 선악을 분 별치 못하며,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점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다. 고전 14:20 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다. 또 신명기 1:39은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난 다. 이 말씀들에도 어린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여 지혜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선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엡 4:14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또 잠22:15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 내리라"고 하였다. 어린이는 아직 어려서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며 미련하고, 쉽게 요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성서는 어린이는 아직 어떤 일을 책임적으로 감당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말해 주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렘1:7)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3) 주님의 훈계로 교육되어야 할 존재

어린이는 성장의 도상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서는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언22:6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다. 또 잠언 23:13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다. 이 같은 말씀 뒤에는 어린이는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아서 ‘가소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성인으로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어렸을 때에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는 반드시 바른 가르침과 훈계로 교육되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성서는 어린이가 다른 무엇보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엡6:4). 앞의 잠언에 나타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의 ‘마땅히 행할 길’이란 바로 잠언 3:11의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의 말씀에 나타나는 “주님의 훈계”이다. 어린이 시기는 교육의 중요한 때인 만큼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훈계’로 교육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신명기 6:4-9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주의 신실’을 가르치는 일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신명기 율법은 매 7년마다 함께 모여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토라를 낭독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31:12-13). 어린이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는 이처럼 어린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성서는 어린이를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닌,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성서에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삼상3:1-14의 어린 사무엘),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미 어릴 때부터 구별되고 선택되는 예를 삼손,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의 예(삿13:5, 사49:1, 렘 1:5, 눅1:15)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도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눅4:26, 마17:8-14).[34]

어린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끄시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고 관계 맺기를 배울 수 있는 존재임을 성서는 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분명 어린이의 영성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34] Klaus Issler, "Biblical Perspectives on Developmental Grace for Nuturing Children's Spirituality", *Children Spirituality*, Donald Fatcliff(ed) (Eugene: Cascade Books, 2004), 63.

(4) 신앙의 모범

예수님은 어린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서 한술 더 떠서 어린이를 신앙의 모범으로까지 표현하였다. 서로 누가 큰지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18:3-4)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스스로 높다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가르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여기서 어린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린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일까?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어린이 같이 됨 이란 어린이가 특별히 어떤 가졌기 때문이기보다는, 어린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높은 자'와 대비되는 '낮은 자'의 대명사가 된다는 의미 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35] 어린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 하는 사회적 약자, 즉 낮은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다고 하였다(막10:13-6).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당시 일반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적 종교 활동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오천 명의 숫자에도 어린이는 여자와 함께 낄 수 가 없었다(마14:21).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적 작은 자의 대명사가 어린이였기에 예수님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즉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린이가 어떤 존재적 탁월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35] Hans Rudy Weber, *예수님과 어린이,* 양금희 역 (서울: 장신대 출판부, 2000), 127.

한스 R. 베버는 어린이의 겸손함이란 성인적 관점의 겸손이기 보다는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즉 '객관적 겸손'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6]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고,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따라간다. 어머니의 판단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따라하며, 어머니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이처럼 부모에게 총체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객관적 겸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막10:15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강보에 싸인 갓난아이가 빈손으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은 어머니가 주는 것을 추호의 의심없이 받아먹고, 어머니에게 총체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빈손으로 음식과 사랑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요청한다[37]는 것이다.

어린이는 성인을 가르치는 신앙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작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 제대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다. 어린이는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여실히 드러내는 좋은 예가 된다.

(5) 죄성을 가진 피조물

예수님은 어린이의 '작은 자됨'과 '총체적 의존성'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

[36] Ibid., 62.

[37] Ibid., 63.

았지만, 어린이의 현실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때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 세대 사람들의 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에 비유하셨다(마 11:16-19, 눅7:31-35). 예수님은 아마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관찰하였던 듯하다. 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기로 하고 한편은 피리를 불고 다른 한편은 춤을 추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한 편이 피리를 불어도 다른 한편은 춤을 추지 않았다. 결혼식 놀이는 망쳐져서 이제 이들 중 누군가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편을 갈라 한편은 애곡을 하고, 다른 한 편은 가슴을 치기로 하였으나 또다시 약속은 틀어졌다.

이와 같이 아이들의 몰이해와 놀이를 망쳐 버리는 속성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야를 조롱하고 세례요한을 미친 사람 취급하였던 몰이해와 악함을 보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성서는 인간이 타락 이후 누구도 죄와 무관 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창8:21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는 말은 어린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시편 기자도 "내 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갓 태어난 유아들에게도 실시하는 '유아세례'의 전통을 이어왔다. 어린이도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인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번즈(M. J. Bunge)는 어린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인간이 원죄를 물려 받아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개념에서 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성을 가지고 이를 행하는 주체라고 하는 의미 이기도

하다고 하였다.[38] 고집을 피우는 아이들,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거나, 무엇을 사달라고 떼쓰는 자기 중심적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루터가 어렸을 때 교육이 없이 방치되면 결국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 것도, 프랑케가 교육은 아동의 자기 의지를 꺽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한 것도 결국 아동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해서 볼 때 우리는 성서가 어린이를 무조건 미화하거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서는 어린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요 신앙의 모범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어린이의 미성숙성과 부족함, 죄성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도 구속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6) 성서적 아동 이해의 다원성

앞서 고찰한 것처럼 성서에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해들 간에는 개념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 성경은 아동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미성숙하여 교육이 필요한 '교육 필연적 존재'로도 표현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성인을 교육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상충되기도 하는 성서적 아동 이해를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아동의 영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가?

[38] Marcia J. Bunge, "Historical Perspectives", Children Spirituality(Eugene: Cascade Books, 2004), 47.

번즈는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풍성한 아동 이해로부터 굳이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거나 이들을 종합하는 시도가 오히려 크고 위험한 시도라고 하였다.[39] 그녀의 말처럼 어느 한편으로만 아동을 이해하게 될 때 다른 편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아동 이해를 놓치는 편협한 어린이 이해로 가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 예로 아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성서의 이해로부터 우리는 모든 형태의 어린이에 대한 폭력과 유기, 수단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얻는다. 그러나 이 입장에 서만 아동을 보면, 어린이도 죄성을 가진 피조물이며 구속되어 하는 존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적 동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오늘날 소위 '아동중심교육'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아동을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로 인정하고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도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그들도 구속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성서의 이해는 기독교 아동교육이 그와 같은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안목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미성숙하여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성서의 이해는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해 준다.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의 훈계로 가르쳐져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점은 기독교 아동교육의 내용과 목적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이 입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동은 언제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게 된다. 아동은 교육관에 머물러야 하고 교회학교의 학생으로만 이해된다. 그렇지만 아동을 '신앙의 모범'으로 볼 때 그들을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9] Ibid., 62.

예수님이 그들을 무리 가운데에 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삶과 예전과 친교와 봉사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된다.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성서가 다양한 아동 이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성서의 풍성한 아동 이해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거나 혹은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입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다른 이해를 배제하게 되는 위함을 안고 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다양한 아동 이해 사이의 긴장과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이들을 기독교 아동교육에 적절하게 해석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린 이해로부터 아동의 영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이어질 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아동의 영성에 대한 정의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종합 정리

성서는 아동을 단지 성인을 위한 준비의 시기로 규정하기 보다는 어린이 시기 자체에 큰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아동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성인이 그러함과 마찬가지로 아동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준비 단계로서의 교육을 넘어서서 그들 역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영적 존재로서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이해로부터 어린이의 영성연구는 출발한다. 영성은 성인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어린이 역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러한 어린이는 영적인 존재이며,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어린이 영성연구가

출발하게 된 대전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영성 연구의 가장 큰 전제는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성서에 기초한 다양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 아동 영성

## 1. 영성의 개념 이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기독교 영성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절대자에게 의해서 시작되고 유지된다.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체험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체험은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곡되지 않은 분이시다.[40]

결국 영성은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 협력하도록 부름 받았을 뿐이다. 이때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묵상, 기도 등을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때 영성훈련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벗어나 모호성과 혼란으로 인해 신학적인 결여를 낳기도 한다. 즉 우리가 영성 훈련이 필요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행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분명히 해주지 않는다. 고행, 금식, 봉사, 구제와 같은 훈련이 공적을 쌓는 행위로 치부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완전한 구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있는 삶을 영위하는 영성 생활을 위해 영성 훈련에 관한 신학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먼저 영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영성 훈련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40] Marjorie J. Thompson, *영성훈련과이론과실천,* 고진욱 역 (서울: 은성, 2005), 32.

1) 영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 이해

현대에 와서 영성은 기독교 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 말은 그 영성의 범위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내에서는 물론 유사한 사상, 혹은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부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정신에 풍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 의미를 추구하면서 생겨난 용어이기도 하다. 영성에 대한 개념은 불분명하고 왜곡되거나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Calvin 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이 경건이라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전통적인 영성의 개념은 타계성, 육체의 경멸, 쾌락의 부저, 가난, 훈련 등의 용어들과 연관되어 왔다.[41] 따라서 수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성의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해는 비단 기독교 만이 아니라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원화된 종교 사회에서 타 종교와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넘어서는 타종교의 영성을 말하거나 일반적으로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힘'으로서의 '영' 혹은 '기'에 주목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기도 하는 것이다.[42] 전통적인 영성 개념이 지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원론적인 전제를 담고 있는 영성 개념이다. 이런 경우 영성은 초월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문제로만 간주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이나 현실에 대한 통전적인 영적 문제로만 간주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이나 현실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왜곡시켜 왔으며, 신비주의, 금욕주의, 기도, 경건한 신앙심, 수도원적 생활양식 등과 연관되어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영성이 철학적,

---

[41] 강남순, "여성신학적 영성; 이론과 실천", *여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6.

[42] 최영실, Ibid., 86.

심리학적, 또는 종교적 용어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43] 이러한 전통적인 영성 개념으로는 현대 기독교 영성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난제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의 신학적 토대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교 영성의 신학적 특성

기독교 영성을 간결하게 규정해 보자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기초월적 지식 사랑, 헌신의 능력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 공동체와 역사로부터 분리 불가능한 인간의 경험과 상징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은 오랜 삶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44] 기독교적 영성훈련은 단지 '영혼'의 차원이나 또는 배타적으로 기도와 덕목의 수행의 성취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서 '통전적 인간성의 추구'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영성의 개념을 좀 더 현실적이며 동적이며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인간의 영성이 존재의 신비와 만나는 체험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에 그 체험은 인간에 대한 부정, 심판, 죽음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대한 긍정, 부활, 생명, 재생, 재창조, 충만에 있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은 성례를 거쳐 가는 기독교인의 정당한 소산이 된다.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때문이다.[45]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영성의 신학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기독교 영성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 의지, 지혜, 능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43] 강남순. Ibid., 18.

[44] Ibid.

[45] 요한복음 3:5, 3:7 참조.

기초를 이루고 있다.[46]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영성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세계와 질서와 법칙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다.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삶을 유한적 삶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깊이 경험하며 또한 삶의 추구에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추구하며 산다.[47] 창조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영성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세계와 질서와 법칙에서 하나님의 뜻들 파악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은 초월자 하나님이시다.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인간의 삶을 유한적 삶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으로 믿는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깊이 경험하며 또한 삶의 추구에 있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궁극적인 것으로 추구하며 산다.[48]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과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체험하는 삶의 능력을 말한다.[49] 그렇다고 이러한 신학적 사고가 현재의 세상을 무가치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존재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은 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교제를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

[46] 안영권, "기독교영성이란무엇인가," *목회와신학* (1993, 10 월), 42.

[47] Ibid., 43.

[48] Ibid.

[49] 이수영, *한국교회의 영성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73.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50]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까지의 철저한 회복이다. 이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신학이라 할 수 있다.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야 하는데 예수 자신이 그 생명 자체임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51]

세째, 기독교 영성은 성령론적 영성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영성은 '영'에서 나온 말이다. 영은 앞서 살펴본 대로 루아흐(히), 프뉴마(헬), 스피리투스(라)로 모두 '호흡'을 뜻한다. 따라서 영성은 하나님의 셋째 위격인 성령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 성령은 천지창조 때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고 예수께 치유와 능력을 주셨으며 오순절 때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보혜사"로서 신자들과 동거하는 것이다.[52] 사도행전 일장 팔절에 의하면 성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고 증언한다. 성령은 교회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요한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로 묘사한다. 이것은 교회가 처한 박해와 투쟁 상황 속에서 조력자, 변호사로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다. 성령은 자가 안에만 머물게 하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몰아가는 동적인 영이시다. 아울러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하게 하는 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종말적인 영이다.[53]

기독교 영성의 목표는 성령의 생기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고

---

[50] 오성춘, *영성과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49.

[51] 장종현, *우리 것*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개혁주의생명신학본부, 2011), 19.

[52] Tony Jones, *되찾은영성*, 최요한 역 (서울: 죠이선교회, 2008), 33.

[53] 박경미, "요한의성령이야기, 하나님의사랑이야기", *영성과 여성신학* 통권2호, 125-126.

만들 수도 없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사실은 Marjorie. Thompson 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 의존하는 관계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54]

요약해 보면 기독교 영성의 신학적 근거는 일반적인 영성의 개념이나 전통적인 영성 개념과는 다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영성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에 속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에 근거한 영성과 신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영성을 종합 정리하자면 삼위일체와의 교제라고 집약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영성을 설명할 수 없다. 노년기 영성 회복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 영성에 근거한 신자의 삶의 제일 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볼 주제는 영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역사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구되어진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각 시대별로 추구했던 영성을 고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아동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영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기독교의 영성은 그 역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왔다.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 속에서 우리는 영성의 뿌리, 발자취와 맥, 그 흐름과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영성에 대한 영적 스승도 존재하고 영성 훈련들이 펼쳐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 훈련을 이해하기 위해 교회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영성의 전개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 영성에 대한 역사적

[54] Tony Jones, Ibid., 33.

서술이 중요한 것은 단지 영성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성 훈련의 개념적, 객관적 범주 속에 있는 위협 요소도 해소하고 오늘날 영성 분야가 학문적 분야로서의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55]

1) 초대교부 시대의 영성

초대교부시대는 사도들의 활동 이후로부터 콘스탄틴 대제(A.D. 306-337) 하에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받을 때까지의 시기이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교훈을 따라 살아갔다.

먼저 초대교회 신자들은 오늘날 신자들이 영성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열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야로서 예수를 이해했으며, 이것은 다름 아닌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초대교회 영성은 플라톤주의적 영향과 영지주의와의 투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플라톤주의의 흐름은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부터 내려와서 임시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관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혼은 영원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인간이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즉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신적으로 떨어져 살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와 통한다는 것이다.[56] 이것은 기독교 이전부터 있었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기독교적 입장이었으며 예수의 가르침도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같은 사고방식에 영향권 하에 있었으며 교리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의 투쟁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의 공통되는

[55] 이후정, "기독교영성사-주제와해석", *신학과세계* 통권제 48 호(2003), 211.

[56]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 *목회의전문화와영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346.

주장은 Gnosis인데 이것은 영성이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영을 가르치며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영성이란 면에서 볼 때 그것은 기독교와 대립되는 것이었으며 기독교는 영지주의로 인하여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이원론이다. 이것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것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빛과 어두움, 선과 악 등이 주장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물질세계 즉 우리의 지상생활에 관련된 것은 모두 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악의 물질세계를 극복해야 해방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57] 아울러 초대교회는 플라톤주의적 사고와 영지주의 사상과의 충돌 속에서 유대교와 로마제국으로부터의 온갖 박해와 정치적인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신앙적, 교리적, 역사 상황적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영성의 특성은 어떤 것들인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초대교회의 영성의 특성은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하는 성령공동체의 영성을 형성하였다.[58]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렸고 재림을 믿고 모였으며 말씀을 연구하고 온전히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구제에 힘썼으며 서로 예찬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들의 심령은 세속을 떠나 순수하게 모이기에 힘써 사실상 영성에 힘을 다했다.

성령감림 이후 초대교회는 영성의 훈련과 생활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금식과 나눔의 생활을 실천하였다.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두차례 금식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금식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59] 사도들은 이러한 영성생활을 잘 계승하였고 신학적으로 정립하였다.

---

[57] Ibid., 348.

[58] 사도행전 1:12-14, 2:1-4, 2:42-47.

[59] 김기춘, *2 천년을 살아움직인 초대교회 영성사* (서울: 영성네트워크, 2004), 204.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영성은 결코 플라톤주의적인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록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이와 같은 사고방식의 유혹과 도전 앞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오히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경계했음이 확실하다.

초대 교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은 영과 육의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었다. 그들은 이 세상과 다가올 미래의 세상을 다스리시고 물질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갔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창조하신 것과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실재하는 현실 세계와 다가올 저 너머의 세계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들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만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의 삶을 영성과 관련하여 표현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그야말로 복음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이는 곧 그들 속에 내주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삶이라 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악을 멀리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정결한 삶을 취하면서 만사에 기쁨과 감사의 태도를 따라 살아갔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시대 이후의 영성은 주로 초기 기독교 시대의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운동은 일면 복음의 본래적 정신을 순수하게 이어받고 순교자적 희생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당시에 점차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떠나서 거룩한 성결 추구와 이에 필요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공동체 생활을 이룬 것이다.

기독교적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진 Anthnius(251-356)는 마태복음 6 장 34 절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도와 명상, 고행과

금식 및 노동을 실천한 사람이다.[60] 그 역사적 시초에 있어서 수도원 운동은 그 초기에는 세속적인 생활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체계화해 나갔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 중심의 예배와 절제의 생활, 그리고 적당한 노동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표방한 것이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성경에 대한 접근으로서 주석과 명상과 더불어 공동체적 삶을 이루어 나갔다.[61]

수도원 운동은 개인의 경건을 추구해 나가면서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과 공동체적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들이 현실 세계를 회피하고 은둔 생활로 들어간 것은 불신앙의 현실과는 다른 영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한 열망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박해를 받던 교회에서 순교가 참되고 순수한 신앙으로 추앙을 받던 때까지는 그런대로 그들의 모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점차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와 교회를 벗어나 성령 안에서의 전정한 변화를 체험하며, 사랑의 실천을 이루고자 시작했던 초기의 수도원 운동은 때로 지나친 사색과 명상으로 이어졌고 후에는 신비주의로 이어져 현실과 격리된 모습이 되기도 했다. 물론 초기 기독교인들이 추구한 신비적 삶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왜곡된 이상주의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성례와 끊임없는 독서, 그리고 신성한 노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적 이상을 이루어 나가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인간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교훈에의 집착, 또한 신앙의 덕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수행 정신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향한 방향이었다.[62]

---

[60] 엄두섭, *신비주의자들과그사상*(서울: 은성출판사, 1992), 77.

[61] Kenneth J. Collins, *Exploring Christon Spiritualit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26.

[62] Ibid., 27.

2)중세시대의 영성

초대 교회 이후 교부들은 일상적인 삶에 둘러싸인 세상을 떠나 은둔의 수도적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 일기 시작한 세속적이며, 이교적 사고 방식과 삶의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건주의적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조직적이며 사변적인 신학적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만의 독특한 생활규범을 통한 실천적 규범이 만들어져 시행되기도 했다. 또한 신비체험을 지향하면서도 규칙적인 성경연구와 독서, 그리고 명상으로 이어지는 수도원적 학문의 경향을 이루어 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 사회로부터 구분되어 살고자 하는 금욕주의적 삶이 지향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의 이름 하에 모든 신앙의 표준이 교리화 되고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게 되며 율법주의적이며 공로 중심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건한 수도원 운동이 변질되게 되었다. 이미 어거스틴 시대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수도원 운동이 존재했었는데, 원래 초기 수도원 운동은 경건한 신자의 신앙의 모태와 같았고, 또한 장래의 성직자들을 위한 예비 학교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세의 흐름과 그 사고가 점점 그 정점을 향해 나감과 동시에 중세의 스콜라 학문은 과거의 열정과 생명력을 그대로 지속하지 못했다.[63]

3)수도원 운동의 영성

A.D 313 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열정과 순수성은 안일과 나태함, 성직자의 세속화로 치닫게 되었다. 이 때 수도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원적으로 수도사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집트 사막에 있었던 최초의 수도사들은 은둔자들이었다. 그렇지만

[63] Calvin, Institutes, 4.13.8. 칼빈은 이곳에서 고대수도원운동의 순수하고 의미있는 점들을 열거하고 있다.

수도원은 (라틴어로 *Coenobia* 인데, '공동의'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코이노스) 안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일찍부터 존재했다.[64] 수도원 운동을 도피적인 은둔적 정신 운동이며, 개인주의 운동일 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거리가 먼 금욕주의적인 고행주의를 중심으로 한 비복음적 운동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수도원 운동을 통한 영성훈련은 형식만 남은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되었다.[65]

수도원 운동의 시작은 3 가지가 있다. 첫째, 기독교가 세속적, 이교적인 사고 방식에 적응하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수도원 운동은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둘째, 수도원 운동은 순교정신의 발현이었다. 순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자 다른 방식의 순교를 찾게 되었는데, 희생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소수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예수에 대한 증언을 제 2의 순교, 즉 수도원주의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셋째, 소수의 특별한 사람의 올바른 생활은 전 기독교인에게 구원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러한 여러 원인들로 인하여 수도원 운동이 생겨났다.[66]

그러나 그토록 좋은 의도와 계획 속에서 수도원 운동이 생겨나고 유지되었으나 이 수도원 운동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게 되었다. 수도원 운동주의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무위 도식하게 되었고, 현실 도피적인 은둔생활을 통해 무익한 영적 교만으로 비대해 졌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 주의적일 뿐 아니라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인간 중심의 나태한 생활로 복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영위해 나갔던 것이다.

---

[64] Christopher. Brooke, *수도원의탄생,* 이한우 역 (서울: 청년사, 2005), 27.

[65] Kennis Ratoret, *기독교사*, 윤도혁 역 (서울: 교문사, 1980), 457.

[66]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 349.

다음은 수도원 운동의 단계를 살펴본다. 수도원 운동은 크게 4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제 1 단계는 동방 수도원의 정착기로 3-4 세기에 이르는 이 시기는 동방 수도원의 정착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로마제국의 말기적 현상과 종교의 세력다툼, 그리고 교리 논쟁 및 분쟁과 싸움으로 자연히 은둔적인 수도회가 발전되었다. 이집트는 이러한 수도 생활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고 수도사들은 고행과 노동을 통해 영성을 생활화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금욕만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의 삶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때 활동했던 수도사들은 St. Antonio (252-356)를 들 수 있다. 그는 마태복음 19:21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삶을 청산하고 산중에서 기도하고 고행하며 명상과 노동의 생활을 하였다. Antonio 와는 달리 St. Basil (329-379)은 공동체 수도생활을 시도하였다. 수도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의 특징은 명상에 있었다. 명상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보는 그 상태까지 추구하였으며, 명상에는 복합적인 3 단계가 있다. 정화의 단계, 계몽, 조명의 단계, 신비주의 요소로서의 연합의 단계이다. 나와 하나님의 인격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다.[67]

수도원 운동의 2 단계는 6-11 세기의 서방 수도원 확립기이다. 이 시기에 St. Benedict 가 Montecasino 에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 회칙을 대헌장이라 할 수 있는 '베네딕트 계율'을 세웠다.[68] 그 중에 켈틱 수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개인적인 금욕, 은둔생활, 수도생활의 방편으로서의 공동생활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명상과 기도, 과묵과 침묵, 힘든 육체노동과 간소한 식사, 철저한 복종과 엄격한 참회의 고행은 필수적이었다. 11 세기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성기라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67]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 생활*, 351.

[68] 그규율은 누구라도 실행할 수 있는 수도생활의목 적을 분명히서술했고, 그생활에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거기에는 지나친 열의를 삼가고 종용을 존중하고 무익한 고생을 삼가면서 노동과 훈련을 권장하되 주님을 향한 봉사의훈련을강조한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교훈에 기초한 세가지 서원 즉 청빈, 순결, 순종을지켜야할 근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베네딕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원은 개인 중심적 금욕주의와 고행주의를 보다 높은 영성 신학으로서 진리의 빛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학교'로 수도원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공동생활을 통한 공동체의 몸의 신학과 경건훈련을 확립하였다.[69]

제 3 단계는 12 세기의 수도원 제도의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 때도 베데딕트 수도원의 정신을 부활시키면서 프랑스의 클루니의 시또 수도원이 중심이 되었고, 성 버나드(1091), 비토르 휴고(1097-1141)등이 활동하였는데, 세속적 권력 개입에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영성 훈련이 잘된 인물을 교회 감독으로 세우며, 성직자 독신주의를 권장하였다.

제 4 단계는 13 세기에는 걸식수도승과 탁발 승단이 활동하였다. 프란시스코회, 도니미코회, 깔멜 수도회가 대표적 수도회였다. 특히 이 때 아씨시의 성프란시스가 과거 수도사들과 달리 '평신도 성인 운동'을 했다는 점이다.[70] 성프란시스를 중심으로 한 이 수도회원들은 수도원 안에서 만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일했기 때문에 탁발승이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세속화에 대한 저항 운동과 이단에 대한 정화 운동이었고 성직자를 각성시키는 운동이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엄격하지 못한 기준에 대한 열정적인 사람들의 반발에 의해 일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70] 수도원 운동가들은 청빈, 순결, 독거, 묵상, 노동, 검소, 극빈, 성경연구, 기도와 명상, 예배 등을 통해 영성훈련을 쌓아 감으로써 예수그리스도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 나아가 성령과의 합일된 삶의 표현을 찾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빈약한 역사의식과 도피적 은둔 형태의 삶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 부정과 자기 정화의 영성 운동은

[69] 김경제, *영성신학서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36.

[70] Iris V. Cully, *영적성장을위한교육*, 오성춘, 이기문, 유영모 역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6), 102.

성직자를 각성하게 하였으며 교회의 이단들을 회개시켰다. 이 같은 수도원 운동은 영성의 빈곤 상태에 있는 현대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사막 교부들의 영성

(1) 사막으로 간 이유

교회의 세속화가 급진 되면서 313 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전에 교회는 참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다. 교부들의 교리는 무시되고 새로운 사상(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등)이 교회를 뒤흔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자극제로서 또는 비판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생각으로 이집트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대표자로는 St. Antony, John Cassian 등이 있다. 사막교부들은 동방교회의 전통 계승의 초석을 쌓았다. 이들은 부패해져 가는 교회와 세상을 떠나 외진 곳으로 가서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하며 순교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였다. 4 세기에 사막으로 간 수도사들은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 몸을 창조 했지만 원죄에 의해 세상과 인간이 심하게 타락했다는 확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구원이 따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진다면 인간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확신, 자제하는 엄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확신, 악마에 맞서는 끊임없는 싸움과 극도의 고행을 통해 인간들은 완전한 삶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러한 운동은 생성되었던 것이다.[71] 이러한 확신과 함께 풍요롭고 다양했던 지적 환경은 (그들 가운데 다수가 이런 환경이었음) 그 운동에 강력한 힘과 다양성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때문에 은수자 안토니우스 뿐 아니라 공주 수도사 파코미우스의 사상도 꽃 피울 수 있었다. 사막의 교부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들의 후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사막의 교부들의 생활은 놀랍고도 비범한 행적 일색이다. 그들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71] Chistopher Broke, *수도원의탄생*, 32.

엄청난 인내심, 마귀들과의 거짓말 같은 싸움, 괴상한 괴수자들과의 교전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상식과 정신적 지혜와 경험 등이 가득 차 있고, 절제와 확실히 축적된 통찰력과 심리적 섬세함에 토대를 두고 있다.[72]

(2) 사막의 교부들의 생활과 영성

사막의 교부들은 생활과 노동을 병행하여 살았다. 그들은 갈대와 끈을 이용해 바구니를 만들어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 시리아지역의 은수사나 소아시아 지역의 갑바도니아 지역의 동굴 수도사들에게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은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음식을 날라 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동굴이나 절벽 등이 기도하는 곳이요 침실이며 심지어 무덤이 되기도 하였다. 사막 교부들의 영성 생활은 어떠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ㄱ. 점진적 은둔생활

안토니우스와 암모니우스 그리고 마카리우스에게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은 세상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은둔이다. 이 은둔 덕분에 빛나는 수도 생활의 거점들이 이 사막 한 가운데 생겨났다. 최종단계는 가까운 사막, 즉 외적 사막을 포기하고 큰 사막에 이르는 것이다. 큰 사막은 내적 사막, 혹은 보다 깊은 사막, 완전한 사막이라고 부른다.[73] 주거지를 떠나는 것은 4 세기 초 이집트 사막 수도생활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다.

안토니우스를 비롯한 수도사들은 사막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고행과 금욕생활을 했다. 그들은 이미 받아들였던 자포자기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포기했다. 이것은 안토니우스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 당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사랑에 대한 기억"에서 영감을 받은 진정한 의지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72] Ibid., 33.

[73] Regnault Lucien, *사막교부이렇게살았다,* 허성식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29.

사막에서 생활하라는 소명이 복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특권적 여정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74]

ㄴ. 침묵 (SILENCE)

사막교부들의 기도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이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무(Nothing)의 표현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곧 기도다. 또한 침묵은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이어진다.[75]

ㄷ. 기도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은 현대인들에게도 신앙인의 숙제이다. 그들은 손으로 바구니를 만들며 입은 굳게 다물고 머리와 가슴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 그들의 호흡이 바로 기도이며 그들의 발걸음이 바로 기도였다.[76] 공주 수도원의 일과는 시편 1 편에서 150 편까지를 하루에 읽고 기도한다. 이 기도는 마음의 산란함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정교회의 예수의 기도의 근거가 되었다. 이 기도의 결과 마음에 정화가 일어난다.[77]

ㄹ. 마음의 정화 (transparency)

기독교에서 마음이란 하나님의 지성소이다.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매체이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음의 산란한 요소들을 *logismoi* 라고 한다. 이 말은 마음의 분노나 원한, 세상사의 번잡한 생각으로 이성에 대한 욕정 등을 말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

[74] Ibid.

[75] 최대형, *사막교부들의영성*, 63.

[76] Roberta C. Bondi, *사랑과기도*, 이후정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4), 16-17.

[77] Ibid., 64.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vagrius Ponticus* 는 말한다. *Logismoi* 가 없는 상태를 신학에서는 *apatheia*(무정욕)라고 한다. *Logismoi* 는 마음의 원수이며 마귀들 또한 *logsmoi* 을 이용하여 기도를 막으려고 시도한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마귀와 한판 승부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78]

ㅁ. 금욕*(asceticism)*

일반적으로 금욕이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며, 기독교에서는 금욕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으로 행위구원과 직결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막교부들의 금욕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을 연단하고 덕을 세우는 삶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 말은 수덕이라 해야 옳다. 수덕 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먼저는 "나를 따르라", 다음은 사랑의 훈련, 세번째는 부정의 훈련이다.[79]

ㅂ. 마귀와 싸움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낮고 사람보다 높은 존재를 *daimon* 이라 하였는데, 다신교인들은 신격화하여 믿었고, 히브리인들은 천사로 믿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이몬을 부정적인 의미로 함축하여 사악한 존재, 즉 악마로 여겼다, 악마는 중상모략과 속임수를 쓰는 사단의 하수인이었다. 사막 교부들은 쉽게 악마를 볼 수 있었으나 언제나 이들과 싸웠다. 아타니시우스가 저술한 '성 안토니의 생애'에서 언급하기를 안토니의 생애 절반은 마귀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도하는 안토니에게 은접시로, 굴뚝새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났다. 에바그리우스는 과식, 탐욕, 간음, 분노, 슬픔, 권태, 허영, 자만 등 8 가지 마음의 분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마귀라 하였다.[80]

---

[78] Ibid., 65.

[79] Roberta C. Bondi, *초대교부들의영성*, 65.

[80] Ibid., 66.

정리하자면,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은 박해시대의 순교의 열정을 되찾으려는 은수자들로부터 출발하였다. 사막교부들은 사람을 피하고 거주지와 도시와 마을을 피해 사막으로 갔던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였다. 영성 훈련의 길을 도모하면서 사막교부들이 주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현대적 의미에서 사막은 인간 스스로의 의존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5)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영성

(1) 동방교회의 영성

동방교회의 영성은 사막교부들의 본거지였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시리아,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그리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전역에 걸쳐있는 희랍 정교회의 영성을 말한다.[81] 시기적으로는 4 세기 이후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사들을 비롯하여 13 세기 시리아 지방에서 꽃을 핀 *Hesychast* 영성과 그 후 현재까지의 동방교회 전체의 영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동방교회의 영성의 특징을 몇가지로 살펴보자.

첫째, 동방교회 영성은 이성은 거부하지 않지만, 이성주의 교만을 거부한다. 둘째, 이성의 교만을 거부하지만, 지성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에바그리우스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지적 교제'라고 하였다. 셋째, 동방교회는 우둔한 비합리주의와 맹목적인 신앙, 광신적 신앙을 거부한다. 넷째, 긍정의 신학과 방법보다 부정의 신학의 방법을 취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진리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와 표현 불가능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고 깊이 알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섯째, 추상적인 언어의 기술보다도 영적인 체험과 사색에 의한 접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비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여섯째, 우리가 절대자이시며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함을 강조한다.

[81] 류기종, *예수의 영성* (서울: kmc, 2009), 151.

동방교회의 영성을 논할 때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성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난 영적인 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영성 훈련에서 강조한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세속적인 낡은 자기를 버리라는 것이다. 교만과 탐욕의 자기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수양하고 단련하라는 것이다.

(2) 서방교회의 영성

기독교 영성 운동은 동방교회적 전통보다는 서방교회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대립되는 의미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불린다. 서방교회의 영성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례전적인 영성'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례란 삶의 모든 과정과 상황에서 거룩한 것들을 구별해내며 인식하는 방법이다. 서방 교회는 교회의 모든 의식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응용하면서 신자와 교회를 연결시켜 주었다.

이러한 제도는 개신교와 달리 신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고 신자가 성례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의무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교회가 교권화 됨으로서 삶의 억압된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82]

둘째는 서방교회는 수도원 생활이 중심이 되어 시간에 따른 엄한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주축으로 한 생활수련의 형태를 띤다. 특히 13 세기에는 중세 영성의 절정기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도원 운동들이 새롭게 일어났다.

---

[82] 김보록, "카톨릭 수도원 영성," *기독교사상* (March 1994), 75.

이 시기에 탁발수도교단들이 설립이 되었는데, 도미니크 수도원, 프란시스칸 수도원, 갈멜회, 어거스틴 수도원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독교의 사회성을 새롭게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도원 안에서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가난, 순결, 순종을 서약했으며, 세상과 연계되어 봉사하기도 하였다. 프란시스 수도회의 설립자 아시스의 프란시스(1182-1226)는 중세 시대 전체에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 몸과 마음이 불탔고, 주님의 삶을 가장 가깝게 구현한 인물로 주목된다. 전정한 영성인의 삶이 관상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의 조화로 볼 수 있다면 프란시스는 두 가지를 조화시킨 인물이다.[83] 서방교회는 개인주의적인 영성이 아니라 노동과 공동체라는 영성의 보편성을 강화시켜 준 영성 수련을 도출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6)종교 개혁자들의 영성

종교 개혁은 순수한 기독교를 재발견하려는 운동이며, 갖가지 위장된 형식과 조직에서 탈피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교회의 원형을 다시 회복하자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 [84]

이는 개신교가 성경해석과 설교중심의 예배로 성경 속 진리의 샘터에 영성 신학의 뿌리를 내린 것은 위대한 전환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구원과 계시의 실제를 지금 여기 신앙자의 것이 되도록 현재화 시키는 보증자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Calvin 이 주장한 내적증거이다.[85] 여기에서는 종교개혁의 두 흐름인 Luther 와 Calvin의 영성과 그 후에 일어난 경건주의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83] Bradley P. Holt, *기독교영성사*, 임성욱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4), 112.

[84] 김경재, *영성신학서설*, 168.

[85]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85), 38.

(1) 마르틴 루터의 영성

Martin Luther(1483-1546)는 체험적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감행하였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도덕주의 와 합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세 가지 사닥다리를 다 올라가 보았으니 모두 한계에 이르러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86]

루터의 영성의 특징은 신앙을 통한 은혜로 개인이 구원받는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믿음의 영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수도원으로 갔으나 수도원 생활이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다. 그는 성경연구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음으로써 참된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때문에 그의 영성은 은혜의 경험으로부터 오며 이 은혜의 경험은 성경연구에 기인한다.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으로서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가능함을 주장한다.[87] 이는 루터가 도덕주의의 한계를 느꼈음을 의미한다. 그는 수도사로 인간은 올바른 말을 행할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없음과 신과 결합하지 안고서는 신의 의지를 행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루터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성경의 전적 수용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하나님의 관계는 객관적 관계가 아니며, 그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매개도 필요하지 않는 나 와 너의 인격의 신뢰의 관계가 된 것이다. 그는 영성을 위한 도구적 이미지로서 성경연구, 은혜의 경험, 믿음, 확신을 말하며 영성의 최종적 이미지로 의인과 하나님 나라를 들고 있다.

---

[86] 강근환, "종교개혁시대의영성과기독교영성" *14 회연신원목회자세미나*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356.

[87]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n Church* (Philedelphia: Fortess, 1961), 95.

(2) 존 칼빈의 영성

John Calvin (1509-1564)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신학적 조명과 개인의 영적 감흥은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 어떤 신비적 체험이나 영적 감흥도 계시된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체험일지라도 창조자의 직접적인 섭리를 벗어난 그 어떤 영역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Calvin 은 자연히 중세의 스콜라적인 이분법적 시도를 멀리하게 된 것이다.

Calvin의 영성의 출발점은 사실 예정론이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합일이었다. Calvin 은 인간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그 결합 안에서 살고 성장한다고 믿었다. 그러니 이 신비한 연합은 당시의 카톨릭 교회나 동방교회와는 다른 것이었다. 즉 이 결합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Calvin 은 이 과정에서 칭의와 성화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Calvin 은 개인의 경건훈련을 크게 강조하고 또한 공동체 적인 영성훈련도 크게 강조하였다.[88]

Calvin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합일이 단지 이론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천을 낳지 않은 신비는 허울만 좋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Calvin 이 칭의와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그 단어를 순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며 흔히 전자가 후자보다 우위에 두지도 않았다. 그는 이 두가지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이중의 은사라고 여긴다.[89]

둘째는 그는 예배중심을 옹호하며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회중을 위해 전례기도를 작성했으며 후에 제네바에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재 개정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고치거나 변경하려는 여타의 시도들

[88] Bradley P. Holt. Ibid., 132.

[89] Howard. Haegman, "칼빈의 영성" *영성의 메아리* (November-December 2001), 44.

때문에 낙심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alvin 은 그 시대에 작용하고 있는 파괴적인 경향들을 반대하고 예배의 행위를 옹호하려 했다. 그는 예배가 우리의 감정을 회유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키고자 했다. 예배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외를 전례의 중심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90]

셋째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향한 연적 성장의 기본적 실천은 기도라고 하였다. 내면적인 경건과 외면적인 경건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로 결합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의 제 1의 기본적 실천은 바로 기도라고 강조하고 기도의 삶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에 대해 묵상하라고 권유하였다. Calvin 은 회심에 있어 의인과 함께 성화에로의 경건을 강조한 것이다.

넷째는 Calvin 은 성찬의 영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는 평소 성찬이 자주 거행되지 않음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그는 한 달에 한번이상 성찬을 하였고, 제네바에서는 3 개월에 한 번 행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Calvin 에게 있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기 위해 임하시는 또 하나의 수단이었다. 설교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태라면 성찬은 말씀의 가시적 형태이다.[91]

Calvin 에게 있어 영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더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성령론에 나타난다. Calvin 은 여기에서 중생(regeneration)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지향과 삶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신자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뉘우침과 참된 경건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한다.[92]

---

[90] Ibid., 48.

[91] Ibid., 50.

[92] Withelm Nieel, *칼빈의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142.

이처럼 Calvin의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을 통한 신지식을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중생을 통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

(3) 청교도 운동과 영성

종교개혁 사상가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흐름 속에서 오늘 날 영성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영성 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영적 거목들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16-17 세기를 중심으로 소위 '청교도주의'(Puritanism)로 일컬어지는 기독교 영성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운동이 종교개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서구의 기독교는 카톨릭의 조직적인 핍박 앞에서 카톨릭이 주도하는 왕정 제도나 교황 중심제에 대항하는 와중에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유럽의 기독교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분명한 성경의 교훈에 터를 잡고 스스로의 거룩한 성화를 지향하기 위해 훈련된 영성을 추구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조류를 거슬러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청교도 운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충성을 교리와 생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더불어 철저한 순종이 강조하였다.[93] 이러한 적극성을 가지고 그들은 주일 성수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속 오락을 멀리하고 물질과 시간을 절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의 시대에서 새롭게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다.

[93] 문석호, *영성신학의 이해*, 102.

그들은 철저한 개혁 사상에 뿌리를 두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활력을 회복하면서 적극적인 순종과 삶에 있어서의 소명적 직업관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그 조명을 받으며 살고자 힘쓴 인물들이다. 또한 그들은 서로 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힘썼으며 일상의 일들 속에서 세속성을 떠난 성별 된 삶을 이루어 감으로 경건을 유지하고자 한 사람들이었다.

청교도라는 이름 하에 거론되어야 할 사람 중 William Tyndale(1494-1536)의 성경 번역 작업으로 촉발된 영적 전쟁은 Thomas Caranmer(1489- 1536)나 John Hooper(1495-1555), Nicholas Ridley(1500-1555)등의 순교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청교도 사상이 형성되어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William Perkins (1558-1602)나 William Ames(1576-1633)등의 복음주의적 저서들이 나왔다. 또 영국에서 만이 아니라 신대륙으로 이주한 수많은 청교도 운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복음주의 신학 내지 설교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94]

7)근, 현대 영성

근대 기독교의 영성은 신구교의 분열과 대립의 아픔으로 교회가 시련을 겪으나 끝내 기독교의 생명을 낳게 해 주는 젖줄로 남아 있다. 위대한 개신교의 유산인 경건주의와 복음적 부흥운동, 대 각성 운동의 영성은 오늘 개신교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5]

여기에서는 먼저 경건주의의 영성과 존 웨슬레의 영성과 대각성 운동의 영성을 살핀 후 현대교회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94] 이완재, *영성신학탐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63.

[95] 정요석외 5 인, *기독교영성의역사* (서울: 은성 1997), 15.

(1) 독일의 경건주의 영성

17-18 세기에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을 계승하여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교회는 교권주의, 교리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경건주의 창시자는 '진실한 기독교'의 저자인 Johann Arndt (1555-1621)로 알려져 있지만 Arndt 로부터 영향을 받은 Spener 가 경건주의 운동의 실제 주창자이다. 그는 Arndt 로부터 흘러나오는 경건주의의 바탕과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Spener에 의해 주도된 경건주의 운동은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 성경공부, 기도, 친교 등을 통한 영적 성장과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pener 에게 영향을 준 Arndt는 인간의 최고의 복과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며,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강조하였다.[96]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들은 그들의 목표를 구원에 두고 평신도 선교사 위주의 선교를 하였다. 이를 위해 독신 생활이 권장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대한 명상과 체험을 강조했는데, 이와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은 오히려 선교 열을 불타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중반에 형제단, 즉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의 기다림, 내적 조명의 인내를 강조했다. 그들의 회중예배는 성령께서 어떤 교인을 안내하여 기도, 성경 낭독, 설교를 하게 하시기까지 침묵 속에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방법은 개신교 전통 가운데서 침묵을 통한 영성 훈련의 함양이라는 수도원적 태동에 가장 근접한 방식이다.[97] 경건주의는 진젠도르프와 헤른후트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의 형제 공동체는 경건한 삶의 모범적 실천 장이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존 웨슬레에게

[96] Alister Magrath, *Christian Theology* (New York: Blackwell, 1997), 80.

[97] Ibid., 80.

영향을 주어 개신교 선교의 원동력을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존 웨슬레(John Wesley)와 영성 운동

감리교의 영성의 시초인 존 웨슬레의 영성은 한 마디로 성화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화는 복음의 종착점이자 완성이다. 복음의 기초적 차원이 회심과 칭의라면 그 완성적 차원은 성화인 것이다.[98] 웨슬레는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그 목표와 방향도 중요하다고 보면서 기초가 있다고 해도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지 못한다면 소용없듯이 영성은 닦고 세워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적인 진보, 연단, 성숙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본 것이 웨슬레의 성화의 영성이 가지는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웨슬레는 실제적인 면에서 이 성화의 영성은 규칙적인 수련 혹은 훈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된다고 보았다.[99]

웨슬레의 성화에 기초한 사랑의 윤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강력하게 인정하고자 하는 성령론적 윤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개인의 변화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완전 성화를 목표로 삼는 발전과 윤리라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성화, 나아가서 완전 성화는 주체적 자율도 아니며, 객관적 타율도 아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율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에 의하여 추구되는 성화를 향한 영성은 하나님 안에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주도하는 것이며 이로써 정치적, 자연적 현상을 되찾는 그리스도인의 재연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순수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98] 이후정, "영성의메아리", *성화의영성*, 54.

[99] Ibid.

웨슬레의 영성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첫째, 웨슬레의 영성의 특징은 복음적 회심에 의한 성령체험에 있었다. 이 성령체험은 변형의 체험, 변화의 체험이다. 이것은 그의 올더스케일에서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던' 주관적인 회심의 체험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그는 Luther가 강조하였던 법정적, 수동적 전가의 칭의론보다 새 생명을 누리는 창조적 변형론에 중점을 두는 중생론에 의해 그의 부흥운동의 영성을 두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웨슬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참된 실제적인 변화'라고 하면서 '칭의의 관계적 변화' 와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웨슬레의영성은 칭의를 강조하는 종교개혁자들보다 경건주의 영성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100]

둘째, 웨슬레의 영성의 독특성은 회심과 중생이 영성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 즉 성화의 단계의 시작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영성은 삶이므로 과정 속에서 진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잘못된 회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은사 제일 주의에 치우치지 않는 성숙한 성화의 삶으로 목표를 향해 진보하는 단계적 발전과정을 강조한 것이다. 신자의 일생은 목적론적 영성이 되어 영성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101]

셋째, 웨슬레의 영성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화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동방교회의 영성에서는 죄의 형상인 악한 정욕들(교만, 분노, 음란, 허영, 탐심, 우울, 나태, 미움) 로부터 자유로워져 사랑으로 충만한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는 무정욕이란 차원을 통해 완전의 금욕적 실천을 목표로 하였듯이 웨슬레도 참된 영성에 장애가 되는 죄의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몰아내어 하나님의 빛난 형상에로의 회복을 말하며 마음의 순결을 강조하였던 것이다.[102]

---

[100] Ibid., 56.

[101] Ibid., 58.

[102] Ibid., 62.

마지막으로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 혹은 방식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며 그것들을 부단히 철저히 지킴으로써 은혜의 충만과 완성을 향해 성화되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 때 영성 훈련의 수단으로 기도와 성경탐구, 성만찬과 금식, 그리고 기도자의 교제(연합)을 들었다.[103]

(3) 대각성 운동과 Jonathan Edwards

1700 년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Jonathan Edwards 중심의 대각성 운동(1740-1750)은 당시에 점점 번져가던 신학적 자유주의 흐름을 경계하는 복음주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회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의 능력을 추구하는 은사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04] 철저한 칼빈주의요 회중교회 목사인 Edwards는 미국 영성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당시 미국의 종교적 상황은 도덕주의적 종교로 전략해 가고 있었으며 합리주의의 팽창과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때에 화란 개혁파들을 중심으로 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이 부흥운동을 옹호하였으나 부흥회를 절대적으로 보려는 극단주의자들이나 그 반대로 부흥회를 정서적 폭발로 보며 부흥회를 반대하는 이들 모두를 경계하였다. 그는 종교에서 모든 감정을 제외하는 자들, 감정에 치우치는 자들을 반대하고 참 부흥을 옹호하며 부흥운동가들의 새로운 방법에 수반하는 무절제한 행동에 대하여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회개와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105]

그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 속의 죄악의 요

[103] Ibid., 65.

[104] 문석호, *영성신학의 이해*, 111.

[105] Alister Magrath, 79.

소들에 대한 탄식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106]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단순한 의식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속 깊은 곳에 도사린 죄와 그 죄로 인해 나오는 노예적 근성의 불신앙과 사욕이라는 이기심 등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워진 삶' 이란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진 가련한 영혼의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Edwards는 이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의 부어 주심으로만 가능함을 역설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영적 부흥을 언급한다. 에녹의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것과 출애굽한 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모습, 그리고 에스라 시대의 영적 부흥과 오순절 날에 임한 영적인 부흥 등이 그러하다는 것이다.[107]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은 예루살렘의 파괴 후에 이방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손길에서도 로마의 박해가 종식되면서 나타난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사회의 등장, 그리고 거짓 기독교 신앙을 내세운 로마 카톨릭을 떨쳐버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고자 일어난 종교개혁의 모습에서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속에서 일어날 종말의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부어 주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았던 것이다.[108]

---

[106]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swards: Miscellanies*, edit by thoas A. Schaffer (Yale press, 1979), 22.

[107] 문석호, Ibid., 118.

[108] Richard F. Lovelace, "An Evangelism Theology of Renewal", *Dynamic of Spiritual Life*, 40.

8)후 현대주의(Post Modernism)와 영성

20 세기에 와서는 개신교의 영성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영국의 이신론에 뿌리를 준 합리주의 사상과 과학주의 사상은 종교개혁 이후의 초월적 사고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내재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을 현대인들에게 안겨주었다. 기독교 신비적 사고가 급속하게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에 젖은 현대인은 기독교적 사고 안에서 윤리적 합리성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합리주의와 윤리관과는 거리가 먼 비합리적 또는 반이성적 사고를 따르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써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현대 문명 비판론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신학과 철학에 대한 합리성을 그 나름대로 한계를 지우면서 이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109]

결국 초 이성과 극단적 신비주의 내지는 인간 속에 내재되었다고 믿는 그 어떤 초현상들에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물론 New Age Movement (뉴 에이지 운동) 도 그러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하는 초현실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심지어는 환각과 마약과 같은 인간성 파괴와 같은 극단의 또 다른 신비를 맛보고자 하므로 고통스러운 운명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110]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빗나간 초 영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후 현대주의의 사고방식은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 온 근대 정신이 만들어 낸 모순들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기에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오히려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

[109] 문석호, Ibid., 124.

[110] Francis Scheffer, *A Christian View of Spirituality*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409.

즉 기독교 신앙을 오직 합리성으로만 이해하고자 하여 초월적 기독교를 내재적 신앙으로 뒤바꾸어 놓은 현대의 신학적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초이성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직 합리성으로만 이해하고자 하여 초월적 기독교를 내재적 신앙으로 뒤바꾸어 놓은 현대의 신학적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초이성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 진리성을 송두리째 위협할 뿐이다.[111]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늘에 이르러 정통주의적 사고이든 또는 합리성에 기초한 기독교적 이해이든 간에 그 어떤 질서나 체계를 용납하지 않는 괴물로서 현대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것이다.[112] 이러한 위협은 이전의 문예부흥보다도 더욱 거대한 힘으로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성경에 기초한 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의 진리의 일괄성과 체계성 및 삶의 순결성을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이론과 체계란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 언젠가 그 스스로의 모순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은 역사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요, 반면에 기독교적 진리는 그 고상한 진리로서의 이론과 삶의 성실한 실천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생명력은 성경적 진리의 체계와 더불어 진리에 대한 propositional truth (명제성)이 분명하며, 이 확실한 명제적 진리 안에서 그 진리 체계에 순응하며 일괄되게 상아가는 신자의 살아있는 신자의 살아있는 영성에 달려 있다. 즉 기독교의 생명력은 분명한 진리 체계를 따르고 순응하되 분명한 신앙고백의 기초 하에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영성'이 요구된다.

---

[111] 문석호, Ibid., 124.

[112] 문석호, *현대신학의이해* (서울: 솔로몬, 2000), 49.

지금까지 초대교부 시대부터 후 현대주의의 영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시대 별로 처한 현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별로 추구하는 영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초대교회의 영성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영성을 소유하였는데, 종말론적인 영성은 삶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로 삶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았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철저히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중세시대의 영성은 초대교회의 영성이 조금씩 약화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성과 로마의 박해로 세속적이고, 이교적 사고방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속에 중세 교회가 추구한 영성은 자연스럽게 수도원 운동으로 이어졌다. 수도원 운동의 영성은 신비 체험을 지향하면서도 규칙적인 성경 연구와 독서, 그리고 명상을 통하여 세속 사회로부터 구분되어 살고자 하는 금욕주의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의 이름 하에 모든 신앙의 표준이 교리화 되고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게 되며, 율법 주의적이며 공로 중심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경건한 수도원 운동이 변질되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점차 고양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해 가는 시대에 반기를 들고 영성의 회복을 부르짖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Luther 와 Calvin에 의하여 이 영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Luther 와 Calvin의 입장은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Luther에게서는 새로운 영성의 강조점은 칭의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즉 하나님과의 연합에 기초하였고, Calvin 에게 있어서의 영성의 핵심은 말씀에 의한 신자의 경건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정을 드러내는 것이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또한 내세를 위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개혁 사상가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또 하나의 영성은 청교도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 영성이 나오게 된 배경은 카톨릭의 조직적인 핍박 앞에서 카톨릭이 주도하는 왕정 제도나 교황 중심제에 대항하는 와중에 유럽의 기독교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자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청교도인 들이다.

그들은 분명한 성경의 교훈에 터를 잡고 스스로의 거룩한 성화를 지향하기 위해 훈련된 영성을 추구하면서 당시의 시대적 조류를 거슬러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구한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충성을 교리와 생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더불어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는 영성이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적극적인 순종과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교도인들의 영성에 이어 현대의 이르러 영성의 흐름은 중세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과 신학적 왜곡에 대한 대응으로서 두 가지 영성의 흐름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신앙적 삶의 내향적 운동으로, 개인의 성결과 개인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둔 운동이며, 둘째는 외향적 운동으로 사회의 성결과 구조악을 개선하는 강조점을 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영성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이다. 따라서 개신교 영성 운동에서는 인격적이며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성경 연구, 그리고 말씀 묵상이 강조된다. 즉 개신교의 영성 운동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의 운동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의지의 삶이다.

이처럼 영성의 흐름이 시대적으로 조금씩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영성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는 것이다.이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성은 시대적 구조와 문화 속에 조금씩 다른 옷으로 갈아 입으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

3.아동 영성과 기독교 교육

1) 영성적 기독교 교육의 원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을 정의할 때 흔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영성이 기독교 용어라고 인식될 만큼 주로 기독교인들에게 사용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문들은 영성을 개인과 관계한 모든 것들, 즉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세계, 우주와의 관계에 그리고 초월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영성을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통의 관계, 초월자에 대한 만남과 접촉이라고 정의하는 이도 있고, 영성이란 생명을 일으키는, 주는, 받는 힘이다 라고 정의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으며, 영성이 관계성에 기초하여 인간과 초월자의 관계에서 의식이 확장되며, 삶의 본질을 찾으며, 창조적 행위의 결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영성에 대한 의미를 교육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초월적 하나님을 만나는 교육

아동의 영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영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이신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 혹은 일치이다. 영성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영성이 풍부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영성을 위한 교육에 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영성의 출발이며, 영성적 기독교교육의 출발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초월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할 때 가능해진다. 즉, 아동의 영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에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영성적 존재로서의 아동은 초월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유한성을 발견하고, 창조주가 되시며 초월자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육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영성적 기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2) 내면적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

아동을 위한 영성적 기독교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진실되고 충실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동들의 내적인 삶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신뢰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들을 주고받는 느낌으로 가능해진다.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기 내면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영성적 기독교교육이다. 이것은 또한 아동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교사, 공동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서

아동의 영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시기의 영적인 경험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자신의 내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아동들이 자신의 내면적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면서 지지를 받고, 더욱 심화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3) 관계적 삶을 통한 교육

아동의 영성을 위한 교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성이다. 관계성은 어린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느낌, 부모 및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 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경험할 때 가지게 되는 측면이다. 어린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아동의 영적 필요는 더욱 증진되며 이것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린이들은 관계 속에서 믿음(신뢰), 거룩, 사랑, 소망, 용서 등의 감정을 느끼고 발달시켜 나가는데, 어린이들에게 믿음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은 관계적 언어와 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아동과의 관계가 믿음과 수용을 바탕으로 확립되면 아동의 영적 태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형성된다. 에릭슨은 인간의 첫 번째 발달과제는 기본적인 신뢰심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신뢰는 자기 통제와 인간 관계뿐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아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 필수적이다. 아동과 부모 혹은 다른 권위자들의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형성의 기초가 되며 아동이 어른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배울 때 하나님의 신실 하심에 대한 믿음은 자연히 뒤따르게 된다.

아리리스 컬리(Iris Cully)는 관계적 삶에 관한 영성교육에 관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서의 영성은 실제로는 이 관계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며, 이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그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고난과 필요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 대하여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주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만이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상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의 무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 세계와의 관계성에서 얻을 수 있는 실존주의적 혹은 인격적 관계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웃과 세계를 향한 민감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아동에게 관계는 그 자체로 교육의 장, 내용,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영성적 기독교교육에서는 이러한 아동이 경험하는 관계적 삶이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된다.

(4) 아동에 대한 전인적 접근으로서의 교육

영성적 기독교교육의 접근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접근이 그 특징이다. 아동을 발달적, 인지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여, 그들이 영성적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

영성적 인간학은 특별히 몸과 감정과 의지, 사회적 활동 등을 삶의 다양한 존재층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것은 영성적 인간이해가 가지는 전인성, 통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주지 주의적이며 기계론적 종교교육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영성적 인간학은 또한 아동을 위한 영성적 기독교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을 위한 교육은 지금까지 성인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습득해야 할 무엇인가를 잘 습득하면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교육해왔다.

그러나 아동을 전인적 존재로 보고, 어느 한 부분 -예를 들면 인지적 차원-의 발달에만 치중하기보다 모든 영역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아동은 한 부분만 발달시키는 과정으로서 교육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교육을 그 시기에 접하여야 한다.

2) 아동 영성 형성을 위한 복음교육과 이야기

아동은 오감, 감성, 상상력, 관계성, 의지 등 다 측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어머니의 학력, 성격,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머니의 속성은 몰라도 이들은 어머니와 그 누구보다 깊은 관계를 맺고, 어머니에게 종속되어 있다. 이것은 아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동이 하나님의 속성을 인지적으로 모른다고 곧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113]

하나님 체험은 그것을 넘어서는 전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일상적 삶을 넘어서는 신비의 차원의 영역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에게도 초월적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신비가 일어날 수 있고 이들의 영적 잠재력이 하나님이 불가사의하게 만나 주시는 역사에 열려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114] 이것이 바로 세속학문과 대조되는 기독교교육의 특징이며, 동시에 아동에게도 복음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God's action for me)이며,[115]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신뢰와 순종의 반응, 즉 '믿음'의 차원까지 포함한다. 복음은 어린이들이 안고 있는 죄책감이나 죽음에 대 한 두려움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다.

---

[113] 양금희, *영유아의 하나님 이해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방향*, 144.

[114] Ibid., 145.

[115] Margaret A. Krych,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교육*, 이규민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2012), 34.

아동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야기와의 만남'이다. 이야기는 경험적이어야 하고 체험적이어야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아동의 복음교육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복음과 이야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앙적 측면에서 이야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16]

첫째, 이야기는 아동을 복음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아동의 이야기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건을 경험하고, 죄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믿음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야기 없이 복음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은 초월적 이야기와의 대면을 통해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초월적 차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신앙 형성 과정은 이야기 형성의 과정이며, 신앙은 삶을 이끌어가는 마스터 스토리(master story)를 갖는 것이다. 신앙은 신앙적인 눈으로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신앙의 성장은 어린이가 경험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에서 연관성을 찾고 하나의 플롯으로 엮어낼 수 있는 이야기 능력이 성장하는 것이다. 신앙은 단순히 중립적인 의미체계가 아니라 그 의미체계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의미체계이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마스터 스토리가 되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신앙의 마스터 스토리들은 스토리의 플롯에 아동의 삶을 통합시키도록 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그 플롯에 맞는 이야기가 되도록 변형시키는 힘의 패턴이 된다. 따라서 신앙의 여정은 지속적으로 아동의 삶의 이야기를 변형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야기는 언어적 매체이지만, 아동들을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여, 이야기 안에 머물면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다.

---

[116] 양금희,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53-58.

그렇다면, 아동들을 위한 복음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성서 이야기'이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기독교 전통의 핵심이며, 복음이 담겨져있는 보고이다. 성서에는 이야기와 비유, 상징, 예전적 언어와 같은 감동의 언어가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성서를 단순히 객관적 지식으로 가르치거나 분석 또는 설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아동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아동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성서 이야기가 이들이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재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로 재현되어야 한다.[117]

성서 이야기는 아동들에게 기독교 예전과 상징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118] 우리가 사용하는 예전적 언어들과 상징들 뒤에는 성서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어 성찬과 세례, 십자가 뒤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있고 '어린양의 피' 뒤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있다. 기독교의 상징 뒤에 있는 기초적 신앙이야기와 친숙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성서이야기가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다.

도로시 지인 퍼니쉬(Dorothy Jean Furnish)는 어린이들에게 성서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들이 이야기에서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고 말한다. 아동들이 성경을 경험할 때, 그들은 성경이 인간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성서 이야기는 각 아동들 안에 있는 실재에게 말하며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아동들 지금(now)의 사건이 된다.[119]

---

[117] 양금희, *영유아의 하나님 이해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방향*, 8.

[118] Ibid., 49.

[119] Iris V. Cully, *성경과 기독교 교육,* 김도일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22.

# IV.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 아동 영성

## 1. 발달심리학적 아동 이해

아동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2세 사이의 시기로서 어린이의 생활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되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 시기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상에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된다. 즉 신체적으로 발달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정신적으로 두뇌의 발달에 있어서 거의 성인에 가까워지고, 그 기능도 조직 적으로 분화, 발달하게 된다.[120] 이 시기의 발달특징을 요약해 보면 (1) 학교 입학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크게 변한다. (2) 신체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보이며 활동적이다. (3) 놀이에서 일(work)로 분화한다. (4) 지적 발달이 현저하여 지식 생활시대를 이룬다. (5) 사회성이 크게 발달하여 사회적 행동이 확대된다. (6)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며 정서 표현이 사회화된다.[121] 그러므로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신체적 발달

아동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어깨가 넓어지고 팔다리 가 길고 가늘어지면서 유아기보다 신체가 훨씬 더 가늘어진 모습이 된다. 아동기에는 근육이 성장하는 신체에 적응하느라 근육이 당기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

[120] http://cafe.daum.net/saenuri8291, 아동기 발달의 특징 (accessed Oct 29, 2023).

[121] 고용수 외 4인, *기독교교육개론(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72.

성숙의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아동기 말에 사춘기가 시작되기도 한다. 사춘기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의미한다. 아동기의 성장발달의 속도는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서 뒤떨어지며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성장을 보이다가 아동 후기로 가면서 여아가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다.[122]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2~3 년 정도 일찍 사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춘기가 시작되는 10~12세경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크고 무겁다. 사춘기가 시작되면 남아는 근육질이 되기 때문에 힘과 속도에서 우세한 반면, 여아는 체지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곡선미가 유려해 진다.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판단할 수 있는 또다른 기준으로는 골격의 발달 정도이다. 출생 후 뼈의 조직이 연골에서 경골로 변화되고 뼈의 크기와 수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골격의 발달이 아동기를 통해 지속된다. 그리고 치아의 발달도 아동의 골격 발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123] 아동기가 되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한 두 개씩 생겨난다. 보통 제일 먼저 나왔던 첫째 아래 앞니부터 점차 빠지기 시작한다.[124]

아동기의 운동발달은 유아기에 비해 속도, 정확성, 안전성, 역량 등이 더욱 발달되어 새로운 운동 기능을 학습한다. 그리고 이때의 운동은 성숙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원인에 따라 발달한다. 아동기로 들어오면서 이들의 놀이 속에 규칙과 질서가 가미됨으로 스포츠로 변모되어 간다. 운동기능의 발달은 아동의 자아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운동기술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은 창피를 당할까봐 스포츠게임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125]

---

[122] Ibid., 172.

[123] 이현섭 외 3인,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1999), 94.

[124] Ibid., 95.

[125]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9), 456.

이 시기의 아동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팔과 다리의 자라면서 따르는 에너지가 아이들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126] 즉, 팔과 다리에 대근육이 자라면서 매우 활동적이며 힘이 넘치게 된다. 따라서 운동 형태의 발달이 더욱 활발해져서 전신운동을 좋아하게 되고 온 몸의 균형을 취하는 운동을 좋아하게 된다. 걷기, 뛰기를 더욱 숙달해 가면서 아동들의 움직임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오르기, 뛰어내리기, 미끄러지기, 뛰기 등에 필요한 능력이 협응을 이루게 된다.[127] 대근육의 발달은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아직도 대근육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으며 섬세한 근육 활동이 필요한 일에는 서투르다. 근육발달이 머리 쪽에서 아래쪽으로 발달해 가기 때문에 소근육의 발달도 대근육의 발달과 협응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난다. 대근육의 통제가 정교해지고 협응이 되어가면서 말단 근육도 정교한 동작이 가능해지며 아동들이 다양한 소 근육 과제를 할 수 있게 된다.[128]

2) 심리성적 발달

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d Freud: 1856-1939)는 성격의 발달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로 인간의 기본적 성격 구조의 형성에 있어서 아동 초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심리 역동적 이론가 (psycho-dynamic views)로서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동적인 힘인 성적 에너지(libidinal energy)라고 말한다.[129]

---

[126] 장신대 기독교연구원 편, *나는 유치부 교사입니다* (서울: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 1999), 6.

[127] 성영혜 외 8인, *영,유아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1999), 235.

[128] Ibid., 236.

[129] 서봉연, 유안진, *인간발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2.

그에 의하면 개인의 성격은 5-6세 이전에 기본 구조가 완성되고 그 후의 발달은 단지 기본 구조가 정교화되는 과정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본능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성적 본능의 에너지를 리비도(libido)라고 한다. 리비도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신체부위를 성감대라고 하는데, 그는 이러한 성감대의 연령적 변화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기술하였다. 이것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어린이는 잠복기(latent stage)에 속한다.

이 시기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한 후의 일종의 '평온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이한 점은 이 때까지 표출되어 오던 리비도의 대상이 안으로 내면 화되면서 이성에 대한 향성(cathexis)이 일체 잠복해 버린다. 한편 동성 간의 응집력이 이성에 대한 관심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동성집단을 형성하고 이성에 대하여 애증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는 이때까지의 연령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여 개체의식이 크게 작용하다가 그들의 생활영역이 사회화됨에 따라 사회의식(집단의식)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개별의식인 성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집단에의 소속감이 싹트고 어떤 단체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기간에 자아의식과 초자아의식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리비도의 활력을 자체내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승화를 통하여 사회성,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130]

한편 동성의 친구에게 느끼는 사랑이 중요해서 잠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후의 이성의 요구에 대하여 적당한 반응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130] 유영주,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3), 69-68.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의 이상적인 성격발달을 위해 좋은 친구들을 사귀도록 배려해 주고, 원만한 사회성과 인격이 형성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시기에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의 지도를 따르게 한다면 사춘기로 접어 들면서 형성되는 생식기를 원만히 넘길 수 있고, 좋은 성격 형성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심리사회적 발달

에릭슨은 심리분석학과 자아심리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발달심리학자이다. 그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맺게 되는 사회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단계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이 심리사회학적 단계이론(psychosocial stage theory)이다. 이 이론에서 그는 프로이드가 강조한 리비도(libido)의 역동성 강조를 넘어서 자아의 형성 발달을 강조하였다.

에릭슨은 출생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 과정을 8단계로 나누었다. 그의 이론의 특성은 각 단계마다 어떤 특정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발달의 정상적인 측면과 비정상적인 측면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야말로 발달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8단계 발달의 이론 중 아동기에 해당되는 제4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의 시기로서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더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유용한 기술들을 열심히 배워 숙달하고자 한다. 또 그는 “성공적인 경험은 아동에게 능력과 숙달감, 근면함을 느끼게 해준다. 한편 실패는 열등감과 자기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일을 잘 하려고 하고, 시작한

것은 완성하려 한다. 그러나 너무 성공만 강조하면 실패가 닥쳤을 때 좌절하기 쉬우니 성공보다는 최선이 더욱 훌륭한 가치 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 에릭슨은 "이 시기는 내적인 욕구 출현이 없는 심리적 잠복기"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성공담과 위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고 영적인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4) 인지적 발달

발달이론에서 구조주의 (Structurism theories) 를 대표하는 사람은 삐아제이다. 구조주의적 입장이란 인간정신 (human mind) 속에 들어있는 형식적 성질 (formal properties) 을 인정하고, 이것이 모든 유형의 인간행위가 일어나는 범위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삐아제의 동화-조절 (assimilation-accomodation) 모델은 인간의 인지체계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발달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개인은 경험되는 바를 단순히 정신적으로 복사기보다는 환경과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 현실에 대한 정신적 구조물을 창조해낸다.

이처럼 개인의 외부세계와의 인지적 만남은 언제나 동화와 조절의 두 측면을 지닌다. 동화란 기존 인지체계에 의하여 외부 자료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조절이란 외부자료의 구조를 짐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지체계는 현실을 자신의 구조에 순응(동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환경의 구조에 순응(조절)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서 인지체계의 내부적 구조는 점차 변화하게 된다. 즉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131]

[131] J. H. Flavell, *인지발달론*, 김재은, 정명숙 역 (서울: 정민사, 1982), 21.

삐아제는 인지발달을 크게 4단계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132] 본 논문에서는 제3단계 구체적 조작기 (concrete operational period) 인 아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계에 들어오면 아동의 사고는 급격한 진전을 보여 사고를 조작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논리적 조작은 부분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면 여러 형태의 조작에 의해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된다.[133] 이 시기에는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상징을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사물의 한 쪽 면에만 집착하지 않고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동시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된다.[134] 그러나 아동기의 사고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계에 한정되며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추신경계의 성숙으로 인해 아동기에는 주의 집중 능력이 발달하며, 기억용량의 증가, 기억 전략과 상위 기억의 발달, 지식 기반의 확대 등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의 어린이는 눈 앞의 세계가 지닌 여러 특징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초기에는 물질(6-7세)과 길이(7-8세)의 보조개념을 배우고, 후기에는 무게와 면적(9-10세)의 보존관념을 구축해 간다. 보존 (conservation) 이란 수, 길이, 양, 위치, 모양 등이 변하여도 원래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 것을 깨닫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구체적 조작기의 단계는 어린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므로 부모와 교사는 신앙의 개념을 어린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132] 성영혜 외 8인, *영,유아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1999), 239.

[133]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125.

[134]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71.

5) 사회적 발달

아동기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은 생활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그동안은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종적 관계에서 학교 중심의 횡적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으로 변화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어린 시기의 사회성 발달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식에 의하여 소속감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135]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자아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부모나 친구 선생님 그리고 이웃 성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며 이런 자아 개념을 기초로 타인을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인식하게 된다.[136]

아동기의 어린이가 자기 것만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만 최고라 여기는 점을 보고 이기적인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어린이들의 성향을 타인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137]

이 시기의 어린이들의 발달과제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행동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발달 특징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

---

[135] 오인탁, *기독교교육학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202.

[136] IbiI.V.Cully, *어린이와 교회와 기독교 교육*, 서광선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72.

[137] 박지영, *아동기 아동의 발달특징에 근거한 교회교육 연구* (전주: 한일장신대 신학대학원 교역학 석사논문, 2006), 26.

이 시기의 아동이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기 아이들은 가르침과 칭찬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 양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138] 그러므로 부모나 교 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며 타인을 수용하고 용납하도록 이끌면서 바람직한 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아동기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속감의 증대이다. 즉 이들은 한 개인의 차원으로서의 자신이 아닌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속에서 행동하며 그 곳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교육 형태는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교육학자인 웨스터호프는 아동기의 신앙의 형태를 귀속적 신앙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면 마음으로부터 소속된 자 답게 참여하고 있다고 느낌과 동시에 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닮아 감으로써 신앙을 형성해 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 주어서 아이들의 신앙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6) 정서적 발달

아동의 정서는 학습된 것이 많다.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는 피로상태, 수면상태, 출생순서와 환경, 영양상태, 건강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139] 이러한 아이들의 정서적 표현은 처음에는 폭발적 형태로 전체적이었지만 아동 전기로 들면서 눈 물을 흘리거나 입술을 깨물고 참기도 한다.

---

[138] Ibid., 28.

[139] 고용수 외 4인, *기독교교육개론(상)*, 174.

아동은 연령이 증가되면서 전체적 표현은 부분적 표현으로, 직접적 표현은 간접적 표현으로 그 표현 양식이 다듬어져 간다. 이러한 아동의 정서발달은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초가 되므로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 수준,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정서발달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140]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단계로 보고 있으며 이 시기를 통해 중요한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숙달하며 이들이 느끼는 위기가 근면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이라는 것이다.[141] 이 단계에서 아동들이 지나친 부적합함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로서 이때에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느낀 심한 열등감은 새 과제를 배우고, 숙달하는 데 심한 장애요인이 된다. 때로는 이때에 받은 열등감의 경험을 통해 고착(fixation)현상이 일어나서 성장해야 할 정서적 성숙이 정지되어 버리는 부분도 있다. 이때에 부모와 교사는 아동들에게 꾸준한 주의 집중과 지속적인 근면을 유지하는 자아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142]

7) 도덕적 발달

아동의 도덕발달 연구로 콜버그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통합'과 '분화'의 원리로 설명한다. 통합이라는 것은 단계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보다 낮은 단계를 통합하여 점점 완전한 도덕적 원리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며, 분화하는 것은 단계가 점점 높아질수록 자기 일신상에 미치는 사실적 결과에서 점점 분화된 도덕적 원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

[140] Ibid., 174.

[141] I William C. Crain, *발달의 이론,* 서봉연 역 (서울: 중앙 성적연구소, 1983), 256.

[142] 고용수 외 4인, 유안진, *기독교교육개론(상),* 177.

그는 가설적 딜레마를 통해서 6단계로 분류하였다. 아동기는 6단계 중 2단계로서 도구적 상대주의(native instrumental relativism)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개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이다. 즉 이때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도구적으로 충적시키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판단하는 때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도덕성은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한다.[143]

아동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순전히 흑백 논리 안에서 본다. 이들 은 그들이 행한 상태 그대로 만을 보아주길 바란다. 아동들에게 잘못한 것은 잘 못일 뿐이며 그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어떤 일이 벌을 받을 것처럼 보이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즉 자연현상도 무엇인가 잘못한 때와 일치되는 경우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발달과제로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교사의 일관성 있는 교육으로 통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고 올바른 도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교사를 통하여 아동기 어린이들에게 그 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도덕성은 그들이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올바르고 그릇된 행동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하여 이것을 그림처럼 눈에 보여 지도록 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나 활동은 왜 좋으며, 어떤 것은 왜 좋지 않다는 명확한 설명을 실례를 들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이다.[144]

---

[143] 장화선, 김난예, *기독교 아동교육*, 100.

[144] 박지영, *아동기 어린이의 발달특징에 근거한 교회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30.

8) 신앙적 발달

파울러에 따르면 어린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인간으로서 평생 동안 신앙의 순례여행을 시작한다. 순례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어린 시기는 어떤 신앙을 소유하거나 신앙의 개념을 형성하기 이전의 시기인 것이다. 그리하여 파울러는 이런 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이전의 시기라고 명명하였다.[145] 이 연령층의 신앙발달에 대한 파울러의 연구에서 그의 신앙발달단계 이론 중 어린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파울러의 신앙발달단계는 총 일곱 단계로 나뉘는데, 어린이에 해당되는 단계는 셋째 단계 "신화적-문자적 신앙 (Mythic Literal Faith)"로 나이는 6-7세부터 11-12세까지이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구체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인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논리구조를 따라 서술할 수 있는 반면, 설화의 주인공들을 신인동형론 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그 이야기로부터 성찰적인 어떤 개념을 도출하지 못하고, 설화가 표면적으로 주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단계의 어린이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생생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146]

파울러에 의하면 신앙의 발달은 전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인적인 발달은 무엇보다 그가 말한 신앙의 일곱가지 구성요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일곱가지 요소 란, 논리의 형태, 관점, 채택, 도덕적 판단의 형태, 사회의식의 테두리, 권위의 장소, 세계관의 형태, 상징적 기능이다. 사고의 틀이 발달하도록 하는 자신의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타인 또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

[145] Fowler. J. W.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196.

[146] Ibid., 241.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성숙해지도록 하는, 사회 의식의 테두리가 확장되도록 하는, 전체적인 판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적인 상징 들을 성숙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파울러에 근거하면 신앙교육은 각 단계별로 다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각 신앙단계별로 신앙을 획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린이 단계에 권장되어야 할 교육방법은 "신화적-문자적 신앙"의 단계에서는 비로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기에 논리적 사고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앙적인 이야기가 담긴 그림들을 논리구조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거나, 논리적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결과 혹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어린이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대답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전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이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성인들을 모방하는 가운데 의미를 직관적으로 투영시킴으로 가능하다. 이들의 신앙은 언어, 행동, 자세 생활뿐 아니라 신앙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까지도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이들과 일차적으로 관련된 성인들은 아동들에게 신앙의 실례를 올바로 보여주어야 하며 교회나 가정의 분위기가 편안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이 시기에 경험하는 기독교 예전과 공동체가 갖는 상징들은 깊고도 오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 모른 다는 이유로 예배나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예식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중요한 신앙적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147]

[147] 박지영, *아동기 어린이의 발달특징에 근거한 교회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33.

아동기 어린이의 신앙발달은 정서적발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뿌리가 전적으로 부모나 교사 그리고 근접한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들과 충분한 대화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지도하는 부모나 교사는 아동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상상력을 통하여 바른 신앙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148]

## 2. 전인적 신앙발달과 아동 영성

### 1) 전인적 신앙의 의미

전인적 신앙이란 아동의 신앙이 지적 신뢰적 실천적 발달을 포함한 온전한 성장을 의미한다. 전인적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통합 지 덕 체의 조화를 삶 속에 발현하여 처해 있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총체적 인격교육이다. 또 인간 사회의 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전 지구적 생명의 공존과 우주적 공존의 발현을 위한 정신적 영적인 교육으로 정의한다.[149]

오늘날 아동 교육은 지적 능력의 향상에 집중해 있으므로 불균형 적인 신앙은 아동으로 하여금 지신의 타고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지적 감성적 능력을 통해 얻은 삶의 결과에 궁극적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영적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

인간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한 가지 측면을 절제하거나 제한하여 다른 측면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

[148] Ibid., 34.

[149] 한성모, *전인적 기독교교육의 방법론*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신앙교육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고르게 성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전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도, 부모의 바람 사회의 요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자신 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150]

2) 신앙발달의 의미

신앙발달이란 신앙의 현상을 발달심리학적 관점으로 평생발달(Life-span) 단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며 발달심리학에서 말하는 단계의 의미에 충실히 따른다. 즉 신앙도 다른 심리학적 현상과 같이 발달의 단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 단계를 따른다. 각 단계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한 단계는 다음 단계와 질적인 차이를 갖는다. 신앙에 관해서 인간은 일평생을 통해서 일곱 번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신앙의 질적인 변화는 단순히 어느 한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근본적인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파울러에 의하면 신앙은 성장의 개념보다는 발달이라는 개념이 더욱 적합하다. 신앙은 아무런 방향도 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서를 따르며 이를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바로 오늘날 그의 이론이 기독교교육에서나 목회상담의 영역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이유이다. 파울러가 말한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성장을 평생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면 교육적 노력이나 상담의 노력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151]

---

[150]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삶* (서울 다산 글방, 2002), 131.

[151]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44.

파울러는 우리가 신앙을 발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본질적 성격이 바로 발달 심리학이 말하는 기본 가정과 평행선을 긋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앙이 일평생을 통해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신앙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사고하며 믿느냐(Contents) 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사고 또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사고나 신념을 갖게 하는 배후는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다.

파울러는 신앙은 일평생을 통해서 고찰해야 하며 아울러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표현과 동시에 내적인 동인 내지는 구조와 그 변화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신앙에도 내적인 구조가 있으며 그의 주된 관심은 바로 이 내적 구조와 그 구조의 발달에 있다. 비록 신앙의 내용이나 상징들 의식과 같은 외적인 모습은 교파나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양태 내지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도 외적인 구조 가치 구체적인 이미지, 신앙체계, 상징, 의식, 교리 등에 있어서는 다른 신앙과 구분되지만 그 내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다른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는 외적인 모습이나 내용 못지 않게 내적인 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적인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야 참된 의미의 성장을 말할 수 있다.[152]

신앙의 발달이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지적신앙), 믿고(신뢰적 신앙), 생활하는(실천적 신앙), 신앙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영적변화의 과정을 의미한다.[153]

---

[152] Ibid., 47.

[153] 김국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기독학교, 2006), 29.

3) 전인적 신앙의 특성

전인적인 신앙의 특성을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성이 높고 지속적이며 신뢰적이고 이를 통하여 봉사와 섬김의 헌신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더불어 대인관계 속에서는 편견적이지 않고 내적인 자아 통제와 책임성이 강하다. 또 자기애와 자기실현의 추구로 자아감이 확대되어 타인과 원만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으론 안정되어 현실적으로 바른 지각과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전인적인 신앙의 특성으로 영성을 통한 신앙과 나눔을 통한 신앙을 들 수 있다.

(1) 영성을 통한 신앙발달

그동안 형성되었던 기독교 영성은 삶의 현장이나 가정,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성이기보다는 광야, 수도원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곳에서 형성된 영성이었으므로 전인적 영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전인적 영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인을 창조하셨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는 현재에도 전인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육체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전인이 전체적인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영성의 전인성이 어떠해야 함을 제시하는 내용이다.[154]

전인적 영성은 신앙의 성장 발달적 측면에서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여 더 온전한 상태로 성장발달이 가능해지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전인적 신앙의 소유자로 성장 발달하게 된다. 전인적 영성은 생명력 있는 영성을 추구하여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활의 영성을 추구할 때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상태로써 예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이다.

[154] Francis A. Schaeffer, *기독교성경관,* 문석호 역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406.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며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창출하도록 도우며 그의 몸 된 교회와 한 지체가 됨을 확인케 함으로 생명력 있는 영성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155]

전인적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므로 은사는 지속적으로 계발되어야 한다. 은사 계발은 자기중심적 옛사람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삶의 구조를 가지게 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의 그리스도 다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영성은 은사계발을 통해 영적 변화를 지향하게 한다.

영성 교육은 전인적 신앙을 형성하여 건강한 영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영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신앙 교육적 접근방법으로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영성교육이라는 방법으로 영성을 통한 전인적 신앙발달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영성교육의 목적을 총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합일의 목적 영성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통전적이고 전인적 총체적 차원에서의 능력형성, 영적 성숙을 위한 창조적 차원의 비판적 성찰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156]

영성교육을 통해서 인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격려하고 신뢰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도록 촉진하며 생활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

[155] Werner C. Graendorf, *복음주의 기독교교육론,* 김국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63.

[156]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59.

영성교육은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들음의 요인으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격려 행위로 영성에 대한 갈망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생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명명의 요인으로 자신의 경험한 영적 경험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는 자세로써 이러한 분위기가 공동체에 확산되면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공동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돕는 행위이고 축하적 요인으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에 감사하도록 돕게 되고 행함의 요인으로 구원의 경험을 확인하게 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통치에 대한 비전속에 동참하여 생활하도록 돕는 교육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157]

영성을 통한 신앙 발달을 위해서는 구원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게 하며 전인적 영성을 위한 지적 신뢰적 실천적 성향의 조화로운 영성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나눔을 통한 신앙발달

① 나눔 신앙의 의미

토마스 그룸 (Thomas H. Groome)에 의해서 연구된 나눔의 신앙 (Shared Faith)은 성경적 앎을 기독교적 삶으로 변화시키려는 데 주안점이 있다. 그룸은 몫을 나누어 참여하는 나눔의 실천 (Shared praxis)이라는 방안을 제기하여 석학적 관점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했다. 나눔의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과 총체적 기독교 신앙을 위함에 있다.

[157] 조은하, *통전적 영성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52.

그룸은 지혜를 위한 기독교교육에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물은 후에 이에 대하여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또 하나는 총체적 기독교 신앙을 위하여 라고 답함으로 나눔의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였다.[158]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는 질문이지만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고 나눔의 신앙 발달에서 추구하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신앙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형성될 때 신앙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인적 신앙발달인 나눔의 신앙발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159]

나눔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수된 복음에 대한 앎을 기독교적 삶으로 연계하여 더 나은 영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한다. 그룸은 나눔의 신앙발달을 위하여 신앙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성경적 앎과 기독교적 삶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할 것을 제기하며 그 대안으로 몫을 나누어 참여하는 실천적 접근 방안[160]의 참여를 통하여 기독교 전통의 연속성과 신앙공동체에 대한 현재의 변화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나눔의 신앙은 지적 차원으로의 신앙(Faith as Believing)과 신뢰적 차원으로의 신앙(Faith as Trusting)과 실천적 차원의 신앙(Faith as Doing)으로 형성되어 지적 인식으로의 앎, 정적 신뢰로의 확신, 행함으로의 실천을 통한 전인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161]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 나눔의 신앙이 지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인적 신앙발달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게 되는 요인이다.

---

[158] Thomas H. Groome, *나눔의 교육과 목회*, 한미라 역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1997), 14.

[159] 김국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기독학교, 2006), 89.

[160]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3), 267.

[161] Ibid., 96.

나눔의 신앙은 공동체와 더불어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인해 오늘날 가정 및 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증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교육의 현실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성찰적 비대화적 비상호적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는 신앙교육 상황을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신앙교육이 삶 속에서 신앙의 역동성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영적 성찰을 통하여 형성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앙교육을 통하여 아는 정도의 초보적 신앙의 상태는 형성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신앙발달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앙은 알고 느낄 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으로 자신을 더 나은 영적 상태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육성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신앙교육을 통하여 기독교적 의식이 있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사랑의 실천, 복음의 증인, 생활속의 신앙인을 육성해 가게 된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은 성경적 지식의 구조와 가치를 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케 하여 성숙한 신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전인적 신앙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나눔의 신앙 발달이 필요하다.

② 나눔의 신앙발달 단계

나눔의 신앙을 구체화하는 나눔의 실천(Shared praxis)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있다.[162]

[162] 김국환, *그룸의 나눔의 신앙발달* (성결대학교논문집 신학, 자연과학편 제 31집, 2002), 49.

a. 신앙공동체의 현재 행위(Present Action)에 대한 성찰 - 그룸은 현재를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과 그 현재 안에서 과거의 영적 유산과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실존적 현재임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재는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난날의 삶에 대한 현재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현재로써 여기에는 영적으로 성찰 된 역사적 자아와 사회에 대한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현재의 행위에 대해 성찰함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b. 비평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 현재의 생활을 평가하기 위한 비평적 이성과 현재 속에 있는 과거를 드러내기 위해 비평적 기억과 현재에서 미래를 표출하기 위한 창조적 상상력을 요하는 정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비평적 성찰의 요인인 비평적 이성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살피는 과정과 보다 확실한 것을 인식하려는 측면에서 현재적 행위에 대한 관심과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을 비평하고 그러한 행위의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한다. 아울러 비평적 기억은 기억 활동과 함께 자신에 대한 성찰과정으로 개인적 행위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살피게 함으로 주변으로부터의 영적인 앎을 습득하게 한다.

c. 대화(Dialogue) - 주체 대 주체와의 만남의 행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그룸은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속적인 신앙교육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공동체 구성원 간에 그리고 구성원 상호간에 신앙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한다.

d. 기독교 이야기(The Story) - 기독교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공동체와 세계가 어떻게 응답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의미한다. 기독교 이야기는 신앙공동체의 신앙전승 및 형성과정에서 있었던 신앙의 응답행위, 삶의 양식, 성례전,

성경 말씀의 해석 및 신앙고백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의미화 한 용어로 이와 같은 기독교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e. 비전 (The Vision) - 하나님의 부름 받은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들로 기독교적 사명의 초청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해방을 뜻하는 것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이야기 속에서 제시하신 약속을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성취과제에 대한 응답 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그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몫을 나누어 전인적 측면에서 지적차원, 정적 및 신뢰적 차원, 실천적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이와 같은 나눔의 신앙발달 단계는 오늘날 가정, 교회, 학교 신앙교육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4) 전인적 신앙발달의 유형

(1) 지적(앎)의 신앙

신앙의 대상에 대한 앎과 인식을 통해 신앙이 기초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인적 신앙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앎과 인식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앎과 인식은 마음을 통한 앎(히브리적 성향)과 지식을 통한 인식(헬라적 성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두 요인은 하나님을 알아 감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있으며 신앙의 기초적 변화단계이다.

① 종교적 개념 발달

'종교적' 이라는 용어는 종교에 대한 종교에 부속되거나 종교의 색채를 띠거나

종교와 관계가 있거나 종교에 관한 뜻으로 그룸(T. H. Groome)은 말한다.[163] 종교적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인 생활 안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므로 오저(Oser)는 종교적이라는 용어를 기독교교육학이 특성화된 연구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라 설명한다.

종교적 개념발달의 연구는 피아제의 이론을 토대로 골드만(R. Goldman)과 엘킨드(D. Elkind), 로젠버그(R. Rosenberg) 등이 종교적 사고를 중심으로 연구하다가 미국에서는 엘킨드가 영국에서는 골드만에 의해서 신앙발달과 관련된 주제들을 어린이에게 제시해주고 면담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그들의 종교적 개념에 관한 이해를 분석하여 신앙의 상태를 단계화 했다. 어린이와 관련된 신앙지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며 그들의 연령과 이해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적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하나님 개념은 함즈 (E. Harms) 로부터 시작되어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별과 관련된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연구 주제이다. 그는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언어의 제한성 때문에 그림 그리는 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의 종교적 개념 및 사고를 연구하였다. 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가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3단계로 구분하였다.

a. 제 1단계는 동화적 단계(The fairy - Tale stage, 3~6세)로 하나님이나 종교적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동화나 상상적으로 유추하여 묘사하였다. 이것은 이 단계의 어린이는 하나님이나 종교적 개념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163]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3), 21.

b. 제 2단계는 실제적 단계(The realistic stage, 7~12세)로 자신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인식한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직자, 유대인의 별과 같은 전통적인 상징들을 사용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함즈는 어린이가 종교적 개념들을 제한적이나마 묘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 단계라 표현하였다.

c. 제 3단계는 개별적 단계(Individualistic stage, 13~18세)로 하나님이나 종교적 개념에 대해 부모나 주변의 영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주의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함즈가 연구한 하나님 개념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과 비교해 볼 때 전조작기 어린이의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구체적 조작기 사고의 특성 및 형식적 조작기의 추상적인 인지발달 과정들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64]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종교적 개념과 관련된 신앙교육을 실시할 때 어린이의 종교적 개념은 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능력 범위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린이의 신앙지도에 있어서 추상적 개념들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의 종교적 개념발달을 위하여 지적인 성장을 조력해야 한다.

(2) 신뢰적(체험) 신앙

신앙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자를 이성적으로 알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알고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64] 김국환, *그룸의 나눔의 신앙발달* (성결대학교논문집 신학, 자연과학편 제 31집, 2002), 120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앙의 대상자에 대한 전인격적이고 전생애적인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내적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또는 교육적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기보다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즉 확신적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영적 체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엡2:8)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적 체험은 신앙성장발달의 중요과정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과정으로 발생되는 것이 신앙의 대상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 할 수 있고 신앙의 성장을 위한 변화단계이다.

① 묵상을 통한 신앙발달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신의 열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응시로써 내면의 진지함 겸손함과 영적 정체성을 찾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 즉 하나님의 창조하심, 섭리하심, 구원하심, 인도하심 등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일들을 영적으로 상기하고 숙고하게 함으로 생활 속에 신뢰적 관계성을 형성하고 회복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165]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초월의 시간이며 전인격적인 시간이므로 묵상 전에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포함한 영적 행위이며 그 자체 안에 전인적 요인들이 그 과정 속에 정적 신앙의 특성으로 표출된다.

기독교 진리가 지닌 영적 의미를 신앙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내면화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앎과 신뢰의 차원인 정적 및 실천적 신앙이라 할 수 있다.

[165] Ibid., 181.

묵상에서의 신뢰성은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감성의 한 역할을 하므로 신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요구함과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여 자신의 내면성을 발견하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내, 외적인 삶을 더욱 경건하게 하며 영혼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묵상은 자기중심적 자아가 중생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영적 자아로 거듭나는 상태로서 개인의 삶과 삶의 근원적 전환의 원동력이 되고 영성이 형성되며 이를 삶으로 확장시켜 신뢰적 신앙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게 한다.

묵상을 통한 신앙발달은 하나님의 영과 조화가 이루어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영적 생명력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영성으로 영적 생활에 힘을 공급하게 하여 성숙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러므로 묵상을 통한 신앙 지도는 개인적인 경건성을 추구하게 하고 전인적이고 통합적 신앙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게 하므로 성경읽기 관상 기도 등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3) 실천적(행함) 신앙

행함의 신앙은 영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심성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가치를 삶으로 표출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신앙의 성장과 발달은 바로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발생되고 이것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영적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할 내용은 인격적 신앙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일, 지속적으로 영적 관계성을 유지하는 일,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의 성장발달은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 단계나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은 이 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발달된다.

① 공동체 신앙발달

신앙공동체는 신앙의식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동질의 신앙에 대한 지속 적인 유지와 보존 계승 및 확산의 필요성에 의해서 형성된 유기체적 조직으로서 구성원 간의 강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 또 신앙공동체는 공동의 기억과 전통, 공동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고 목적의 상호작용을 위해 친숙한 교제, 상호 배려 및 신앙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소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166]

넬슨(Carl Ellis Nelson) 은 기독교신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달되며 성장 발달이 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의 사회화와 신앙공동체의 회중 교육론을 연구하였다. 그는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존재여부 및 사회의 기초가 신앙에서 비롯되고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신앙공동체에 의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형성되고 관계가 지속화 됨으로 더 나은 상태의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167]

신앙은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고 이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확장되고 생활 속에 영적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신앙은 회중 복음과 관련된 일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함과 나누어 줌을 통해 형성되고 회중들의 변화에 의해 성장 발달되고 다른 회중에게 전달하게 됨으로 공동체 신앙발달을 통하여 전인적인 신앙발달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

[166] John H.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104.

[167] C. E. Nelson,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2.

넬슨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회중(Congregation) 이라 하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기독교적 삶을 실천하는 이들로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사귐과 공동체의 계획과 활동들을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기에 회중은 공동체를 뜻한다. 회중에 의해서 신앙공동체의 특성이 결정되고 회중은 신앙생활의 경험을 나누며 어우러져 더 나은 믿음의 변형을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넬슨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적절치 못한 대처에 대해 신앙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신앙교육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종교 사회화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종교사회화는 회중 중심의 신앙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회중중심으로 형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신앙전달 방안을 보면 마음을 통한 전달, 경험을 통한 전달, 자아를 통한 전달, 교회를 통한 전달이 있고 신앙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도의 사귐과 교제, 성경해석, 예배, 성경탐구가 있는데 이는 사회의 변화에 교회공동체가 적절히 대처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관점에서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② 종교적 판단발달

오저는 종교적 판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종교적 인식이나 판단은 인지, 정서, 행동 및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같은 특성들은 궁극적 존재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 지각이나 인식에 의해 노출되며 개인의 종교적인 상태는 삶의 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차원의 해석을 통해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종교적 판단이란 넓은 의미에서 궁극적 존재자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신앙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미화 할 수 있는 영적 의식을 구체화한 언어적 표현을

뜻하는 것이다. 좁은 의미로는 인지적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의 신앙적 관계를 살피기 위한 표현으로 각 개인의 신앙적 특성과 관련된 주관적 종교성 또는 그와 관련된 신앙심을 의미한다. 종교적 판단이라는 용어는 우발적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생활 가운데나 영적 변화가 생길 때, 목표에 대해 반성해 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발생된다고 말한다.

기독교교육학에서 오저의 종교적 판단 발달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독교의 종교성을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에 의해 연구하여 기독교교육학의 실천적 영역에 성찰적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의 실체를 바르게 본질 규명하여 보편타당성이 있는 신앙의 이론적 체계화 수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신앙의 신념적 인식의 특성을 신앙의 본질에 수용함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인격적 신앙을 형성하도록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168]

종교적 판단발달론이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요청되는 이유는 생활중심 신앙지도의 필요성의 종교적 사고력 및 판단력 개발의 필요성, 신앙지도 방법 개선의 필요성, 사회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교재개발의 필요성 때문이다.

종교적 판단측정의 방법으로 준 임상적 면담법(The semi-clinical interview)은 종교적 판단 특정을 위한 자료수집과 이에 적합한 행위결정을 도출해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정해진 표준 질문과 필요에 따라 준 표준 질문을 사용하는 것과 면담이후 자료를 분류하는 평가자가 피 면담자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이름, 기타 내용을 인식하지 않아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피 면담자에게 일정한 임무나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그 과제나 질문에 관하여 반응하도록 요구한다.

[168] 김국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기독한교, 2006), 247.

이 방법은 연구자가 정해진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 면담자와 면담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판단에 대한 성향들을 파악하게 한다. 준 임상적 면담법은 면담질문이 기초적 이론에 따라 구조화되고 피 면담자들의 답변은 신뢰할 만하며 면담자가 요구하는 것이 파악될 때까지 다양한 질문으로 피 면담자의 상황파악이 가능하게 상담과정의 신뢰성이 형성되어 깊은 내면에까지 사고의 추이를 살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종교적 딜레마(Religious Dilemma)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들 이를테면, 기도, 묵상 등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는 삶의 위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과정 속에 있는 피 면담자의 종교심리학적 반응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안으로 이 같은 종교적 딜레마 속에는 종교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존재해 있다. 사람들을 갈등상황에 처해 놓고 양자택일의 원칙을 내세운다.

딜레마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표현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딜레마에 접하게 된 피 면담자는 딜레마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종교적 상황에 강하게 몰입하게 된다. 이 같은 몰입은 현재 또는 추후의 결과들에 대한 설명 시간분석, 상호 관계적 해석 가치화, 선행된 지적, 의사결정과 추론 발생된 상황에 대한 의미추구 등으로 나타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종교적 판단발달을 교육에 활용하여 영적 갈등상황 해결을 돕고 종교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며 성경연구 학습으로 활용하고 발생된 문제해결을 위한 협동학습으로 실천적 신앙발달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인적 신앙발달이론을 살펴본 바 전인적 신앙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밀성이 높고 지속적이며 신뢰적이고 봉사와 섬김의 헌신적인 생활을 지향하고 대인관계가 편견적이지 않으며 내적인 자아통제와 책임성이 강하다.

전인적 신앙의 특성을 영성의 신앙과 나눔의 신앙에 대해 살펴본 바 지적 신앙의 유형인 종교적 개념발달과 종교적 사고발달은 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였고 단계적으로 신앙이 발달하였다. 신뢰적 신앙의 유형인 묵상을 통한 신앙은 진리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열망 의지 결단의 요소들이 묵상의 과정 속에 정적 신앙의 특성으로 표출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증진되었고 회심적 변형발달은 인식과 앎의 변화를 일으켜 신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천적 신앙은 공동체 신앙 안에서 교제 배려 신앙경험을 나누며 신앙이 성장하고 종교적 판단은 상위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자유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하나님과 사람 및 주변의 관계가 원만한 상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 V.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 아동 영성

### 1. 포스트모던 시대에 대한 이해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의 사회는 새로운 사상의 도전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때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조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이후 수백 년을 지배했던 근대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후기근대, 또는 탈근대라고 불리우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된 것이다.[169]

포스트모던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스페인 작가 오니스가 예술분야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약간의 반발 경향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수십년이 지난 1970년대부터이다. 이때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은 예술과 건축 분야를 넘어서 인문과학의 각 분야로 확산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스트 모던 풍조는 문예 사조나 철학 사상을 넘어서 대중문화에까지 깊이 침투되었다.

포스트모던의 사유 방식은 선택 가능한 하나의 관점 보다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서구 세계를 통하여 세계 전체로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하나의 시대정신으로서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젊은 세대들의 관점과 사고방식에 깊이 작용하고 있다.[170]

특히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형성해 가는 아동기에 주어진 환경인 포스트모더니즘은 아동의 사고와 감각을 형성해 가며 다음 시대의 모습을 결정하게

---

[169]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285.

[170]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3.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관점, 그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과 교육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및 관점

(1)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21세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의 하나가 '포스트모더니즘'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의 시대사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면서 근대주의의 사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의 경향이라 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앞에 '이후'를 의미하는 '포스트'라는 라틴어를 삽입함으로써, 근대 3대 혁명이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산업혁명, 프랑스혁명을 통해 표출된 계몽주의 사상에 종식을 고하는 '이즘'이다.[171]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기본 이념을 축약하고 있는 근대 계몽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즉 데카르트 이후 오늘날까지 서양사상의 주된 흐름을 규정해 온 근대성의 시대정신인 이성적 주체관, 그 같은 주체와 대립되면서 주체의 인식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 실재,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아 역사의 진행과정이 진보성을 띤다고 하는 첨예한 역사의식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근대성의 시대정신은 이제 더이상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부적절하며, 근대성 자체에서 배재 된 부작용과 모순을 척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근대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서구사회에서 포스트 분석철학, 신실용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마르크스 주의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서 탈 근대성의 모

[171]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6), 286.

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데카르트 이후 서구사회의 철학사조들이 추구해 온 지식과 존재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증명하는 절대적 근거의 탐색은 이 시대에 있어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최초의 포스트모더니스트인 푸코는 이성의 중심인 자아에 대한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서양 고대, 중세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핵심인 이성 중심주의가 생성되어온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관념의 보편적 타당성을 부정하였다. 푸코에 따르면 이성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도록 한 것은 근대의 특유한 구조화된 강제력인 권력-지식 연계의 생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대성의 중심적 시대정신인 이성 중심주의는 다른 담론체계를 비정상적인 것 또는 열등한 것으로 억압하는 하나의 특수한 담론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는 탈정전화 또는 탈중심화, 자아나 주관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 핵심적인 예술장치로서 패러디의 사용, 행위와 참여의 중심, 임의성과 우연성 그리고 유희성, 전통적 계급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 탈장르화의 확산, 자기반영성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172]

(2)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과 관점

모더니즘의 극복을 주장하는 철학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172] 곽덕영, 양승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아교육* (논문집 제 22권, 2000), 113.

서 진행되고 있는 사상 체계이므로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라볼 때에 모더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모더니즘과의 단절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자체가 어떤 사상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관점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173]

첫째로 자아에 대한 확신의 붕괴이다. 사고하고 인식하는 주체 로서의 자아에 대한 확신은 현대 세계를 출현시킨 근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세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자아에 대한 근본 확신을 문제 삼는다. 자아는 세계를 초월한 주체로서 세계에 대한 확실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리어 자아는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중세기에 유지되었던 신의 존재와 권위에 대한 비판이 현대 세계의 출현과 연결되어 있듯이 자아에 대한 현대의 확신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모던 세계의 출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174]

둘째로 객관적인 세계상의 몰락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이후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세계상에 대한 관점을 거부한다. 객관적인 세계상을 거부하는 것은 즉 세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175]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따라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세계에 대하여 객관주의 적인 전망을 가질 수는 없고 다만 해석하는 자로서 세계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을 뿐이다.

---

[173]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73.

[174] Ibid., 77.

[175] Michael Alsford, *The Atonement and the Post-Modern Deconstruction of the Self* (London: SPCK, 1995), 40.

객관주의적 관점은 다른 말로 상응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진리란 객관적인 세계와 우리의 주장이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몽주의 이후 현대 세계는 서양을 중심으로 발전 확대되어 왔던 이론이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그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을 거부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상황에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제 더이상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실재, 모든 인간의 관심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편적인 단일한 세계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된 다양한 집단이 각기 자신들이 경험한 세계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며 그러한 현실을 받아 들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176]

셋째로, 웅대한 이야기를 거절한다. 현대 세계는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가능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건설되었다. 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의 가능성은 인식의 주체인 자아의 자율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 세계에 깃들여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대한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러한 확신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판정하고 뒷받침해 주는 보편성을 담지한 웅대한 이야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웅대한 이야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현대의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이야기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웅대한 이야기에 대한 불신은 지금까지 표준으로 여겨져 온갖 주장이나 가치가 사실은 지식과 힘의 행사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해 온 계층이나 집단의 관점이었음을 자각하게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서양, 백인, 남성, 기독교의 관점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고 있다.

[176]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80.

그런 의미에서 여성 운동, 동성연애자들의 투쟁,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운동, 환경운동, 포스트 식민주의 등은 직접, 간접으로 웅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177]

넷째, 과학의 일방성 거부이다. 현대 세계가 신뢰하는 웅대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관점은 그 밑바닥에 과학의 일방성에 대한 거부의 뜻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리오타르의 분석에 의하면 일사분란한 통일성 있는 탐구의 시대는 끝나 버렸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웅대한 이야기는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학의 파탄은 연구의 목표를 바꾸어 놓았다.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과학적인 지식의 탐구에 참여함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삼기 보다 연구 수행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를 지원하는 재정 후원자나 단체가 갖고 있는 일차적인 목적은 지식의 확대나 인류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증대 시키려는 데 있다. 이제 사람들은 진리를 문제삼기보다 그것이 무엇에 유용한가를 문제 삼는다. "그것이 잘 팔리겠는가? 효율성과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178]

다섯째로 진리의 부정이다. 진리의 부정이란 표현은 앞에서 네 가지로 정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현대는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세계를 건설하였다.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확신, 객관적 세계상에 대한 확신, 인간은 그 대상에 상응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해 낼 수 있다는 인간의 정신과 언어의 능력에 대한 확산, 그리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정밀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합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인

[177] Ibid., 81.

[178] Ibid., 84.

간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 등은 모두 진리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뒷받침하고 확대해 나가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했듯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자아에 대한 확신, 객관적 세계상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리를 표현해 내는 언어의 능력에 대한 확신 등을 근원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진리의 객관성과 가능성, 그리고 진리의 객관적 표현 가능성은 근거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는 진리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포스트 진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진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게 된 것은 철학적인 성찰을 통한 논리적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구 세계가 겪은 현대 문명의 어두운 면에 대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멜파스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나치즘의 경험이 진리에 대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도를 갈라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그는 나치즘은 모더니즘의 관점을 철저히 이어받은 체계요, 모더니즘이 산출한 체계였음을 지적하면서 서구 사람들은 나치즘을 겪은 다음 현대 세계가 추구하고 발전시킨 결과에 대하여 회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지식 혹은 진리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치즘을 비롯하여 현대 문명 이 직면한 갖가지 문제들에 대한 경험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로 하여금 진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상대성을 넘어서 진리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도 없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179]

2)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

(1)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

[179] Ibid., 84.

모더니즘은 자유와 이성이라는 계몽주의의 이상에 따라 개인의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교육자에게 모더니즘은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진보, 산업노동의 합리적 분화, 인간의 노동 및 자연에 대한 지배의 강화와 비견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동시에 진보와 인간 발전의 대서사를 예견하는 교육은 미래세대로 전수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과 '정당화 신호'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근대 이성의 핵심을 차지하는 교육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공격한다. 공교육의 사명을 구조화하고 충동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테크놀러지가 학생과 교육자 개개인을 사생활과 공공생활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조절하는 담보인으로 그리고 경제와 민주국가를 상호 규합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지식과 권력의 공생적 관계를 추적한 푸코를 중심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교육학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한다.[180]

첫째는 총체성의 회의 즉 거대담론의 거부이다. 오랫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근대적 공교육관의 이념적 지주였던 '현대성'의 인식론과 도덕적 토대가 '총체적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탈 모더니티 또는 후기 모더니티로 지칭되는 '후기현대성'의 문제의식은 공교육의 실패와 궤를 같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공교육의 이념적 지주였던 현대성의 거대 담론(Meta-Narratives)의 힘을 뒤흔든 것이다.

후기현대성은 컴퓨터, 과학지식, 선진기술, 전자서적 등의 확산되는 현상이며, '다양성','국부성','특수성','우연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변화 조짐이다. 이것은 계속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역사의 단일한 목적과 주제라는 계몽주의의 '목적론적'역사관은 더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181]

---

[180] 곽덕영, 양승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유아교육*, 121.

[181] Ibid., 123

'탈현대성'의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섰던 리오타르는 그것이 현대성과 마찬가지로 시간상의 개념이 아님을 강조한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 문학, 예술 등에서 일어나는 서구문화의 대전환 속에서 근대사회와 과학적 지식의 정당화를 제공한 현대성을 그는 '메타서사' 또는 '큰 이야기'라고 명명하였다. 실체화된 초월적인 '초담론'에 기초하는 타당성 주장에 회의적이며, 규범적 이해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권력관계를 정당화하는 특정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 선다면 후기현대주의 교육은 막시즘, 헤겔주의, 기독교주의, 자본, 가부장제도, 주체, 인과관계의 개념에 대한 역사철학, 인간의 운명을 총괄하는 전 지구촌적 결정에 의해 규정되는 교육이론과 실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요약되며, 공교육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182]

둘째, 타자성의 정당화: 정전의 다수성이다.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실재를 총체화 하려는 거대서사가 분열되면서 나타나는 거부적 태도는 '타자성'(otherness)의 정당화로 귀결된다. 즉, 타자는 항상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화'되었고, 강압적으로 '균질화'되었다. 교육이론과 실천의 '선택적 전통'을 통해 타자를 배제시켰던 것이다.[183] 학교체제의 중심에는 '큰 이야기','큰 목소리'로 구성된 '표준화된 지식'이 버티고 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정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해석하는 절대자로 군림한다. 정전의 중심에는 모더니즘의 담론에서 나오는 거대지식이 자리하고 있다. 정전은 거의 유럽형 기독교 백인문화와 문명에서 기원한 것이 태반이다. 정전의 중심은 엘리트적 감각에 기초한 고급문화가 민중문화 또는 대중문화에서 분리된 특권적 백인남성에 의해 쓰여진 '문화경전'에서 빌려왔다.

[182] Ibid., 125.

[183] Ibid., 126.

후기 현대주의 교육의 타자성 전략은 특히, 학교교육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정전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수많은 해석을 열어준다.[184] '타자성의 정당화'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 만을 내세워 그동안 소외된 실천적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예기치 못한 '일상적 지식','작은 대화'등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또한 타자성의 논리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여는 것을 허용한다.[185]

셋째, 자기 한계적 인식태도: 이야기적 지식의 중시이다. 푸코는 '자기 한계적 인식태도'를 중시한다. '자기 한계적 태도'(limit-attitude)는 지식의 구성을 사실의 진리와 자유의 행사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세계를 둘러싸고 말하고, 사고하고, 행하는 인간이 전체 속에서 '타자성'과 '국부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186] 고로 '자기 한계적 인식 태도'는 다음의 세 가지 태도에 부정적이다. 첫째, 유기체적 전체에 의해 효율성 원리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체계적인 태도'를 갖는 기능주의 교육, 둘째, 통합된 전체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보이는 갈등주의 교육, 셋째, 대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의의 태도'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교육 등의 '일원성', '이원성', '일치성'의 자명함을 추구하는 인식론에 회의를 표시한다.[187]

후기현대주의자들은 '사실주의'에 기초한 교육인식론과는 달리 '역리'와 '차연'의 기법을 채용한다. 체제의 개방성 연구, 국부적인 결정론, 역방법 등을 통해 규칙의 이질성과 이견을 추구하는 '역리 작업'을 수행한다. 역리 작업을 통해 하나의 게임을 정의하는 규칙과 그 게임에서 둘 수 있는 여러 '수들'에 대한 합의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국부적 태도'를 취한다.

---

[184] Ibid., 127.

[185] Ibid., 128.

[186] Ibid., 130.

[187] Ibid., 131.

리오타르의 말 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재'란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언어와 진술, 그리고 관념을 창안해내고 상상력을 계발함으로 써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생산해낸다. 진리는 '존재'를 낳는 동시에 사라지는 '흔적'일 따름이다.[188]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신념체계는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결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일 수 없으며, 특정한 관점과 가치관 하에서 형성된 하나의 해석체계의 일종으로 본다. 때문에 지식의 절대적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성의 순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허구적인 것으로 비판된다. 그리고 객관적 합리성이 계발된 개인의 형성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로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전통적 신념은 특정한 집단의 사고방식과 사회적 지배를 정당화하고 영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189]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육에 주는 부정적 영향과 위기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가 전개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교육자 또는 교육이론가들에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신 있는 답변을 마련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희망과 비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교육적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일이다.[190]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이론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188] Ibid., 135.

[189] 조화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와 한국교육이론의 과제* (교육철학 제11호, 1993), 22.

[190] Ibid., 23.

(2)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적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의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지식과 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이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적 특징과 함께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의 대안들로 떠오른 모델들이다.

① 다중지능이론(MI이론)

교육 영역에서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의 하나가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이면서 보스턴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론일 것이다. 그는 기존의 IQ중심의 지능이론에 반대하면서 지능 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9가지 지능을 소개하고 있다.[191] 그 9가지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리적 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음악 지능, 대인관계 지능, 내면성찰 지능, 자연탐구 지능, 실존 지능으로 나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에 의하면 종래까지의 근대교육은 다양 한 지능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언어지능과 논리, 수리적 지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지능들이 있으며 이는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함으로써 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모든 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가드너는 뇌의 연구를 통해 각 지능이 뇌의 독특한 부분과 관계 있음을 밝힘으로써 이를 입증한다. 그동안의 근대주의적 교육은 언어, 논리-수리 지능 만 높은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영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다양한 지능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가드너는 주장한다.

[191] 하워드 가드너가 1983년에 출판한 *Frame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에서는 7가지 지능을 소개하지만, 그가 1996년에 출판한 *Intelligence: Multiple Perspectives*에서는 9가지 지능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지능의 발견은 그동안의 교육이 매우 편협했음을 드러내고 다시금 통전적인 교육으로 회복하는 데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 그동안 근대교육이 지나치게 지적인 교육으로 제한되어 왔다면, 지·정·의를 모두 포함하며 예술적, 신체적, 관계적, 내면적, 실존적 능력을 교육의 가치로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 교육 마저도 근대교육의 틀에 의존되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원래적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전인적인 인간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전적 기독교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교육만이 아닌 기독교교육 분야에도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192]

② 상상에 대한 강조

최근 일반교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상상'을 강조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엘리옷 아이즈너를 들 수 있다. 그는 상상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기술공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일러식 교육 과정을 비판했다.[193] 그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앎의 형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즈너는 인지에 있어서 상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념의 형성 자체가 인간의 감각 구조에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서 예컨대 장미는 단지 물질로서의 구조만이 아니라 색깔, 향기, 그리고 이들이 질적으로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고로 감각구조가 의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 그것을 통해 개념형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194]

---

[192]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294.

[193] Elliot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ew York : Macmillan, 1985), 61.

[194]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295.

아이즈너에 따르면 진정한 교육개혁은 문자나 숫자만이 아닌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여 다양한 인지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인지적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오전에 주의집중이 잘 될 때 가르치고 반면에 미술, 음악 과목과 같은 정서적인 과목은 졸리는 오후나 주말에 가르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였다.[195] 아이즈너의 인지에 있어서의 상상의 강조는 근대주의 교육의 편협한 인지관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다중지능이론이 언어, 논리-수리 지능만을 강조해온 경향에서부터 통전적인 지능이해를 가능케 했던 것처럼 보다 통전적인 교육인식론을 가능케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96]

③ 인격적 지식론

근대 인식론은 한마디로 '객관적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지식은 그것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며, 탐구하는 사람이 순수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위 가치 중립적인 지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이 근대 과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인식론은 이를 반박한다. 그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학자가 마이클 폴라니이며 그의 『인격적 지식론』(Personal Knowledge)이라는 책은 이러한 그의 인식론을 담고 있다. 관찰을 통해 순수하게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서구 근대 인식론에 대해 비판하는 폴라니는 앎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지식에 대한 객관주의적 관점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197]

---

[195] Elliot W. Eisner, *표상형식의 개발과 교육과정*, 김대현, 이영만 역 (서울: 교육과학사, 1994), 56.

[196]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296.

[197] Michael Polanyi, *a Post-Critical Philosop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16.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주'(indwelling)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앎에 있어서 주체는 객체에, 객체는 주체 속에 내주하게 된다. 즉,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체가 객체에게 헌신해야 하고, 주체의 앎 속에는 이미 객체가 내주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조적 수준에서 앎의 주체는 이미 알려지는 것 속에 참여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지식은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참여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의 관계는 일종의 상호 참여적이다. 폴라니는 또한 지식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앎의 주체들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의 상호 통제는 과학자들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합의를 도출해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폴라니의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을 생각할 때 교사가 객관적인 지식을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사의 인격적인 요소, 교사의 신념, 교사의 열정, 교사의 가치관, 교사의 영성, 교사의 삶 등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과서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인 진리일 수 없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 역시 객관적인 과정이 아니다.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의 내용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교사의 영성과 삶, 인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198]

④ 공동체 이론

기독교교육 분야에서는 존 웨스터호프나 엘리스 넬슨 같은 학자들이 소위 '신앙공동체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신앙은 교수-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여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화되고 문화화 되기 때문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98]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296.

웨스터호프는 오늘날 기독교교육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그러한 위기의 이유를 교육적 패러다임의 문제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기존의 기독교교육이 학교수업이라는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수업으로는 신앙이 형성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199]

전통적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은 의도적인 지식 전달은 강조했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이라 고 할 수 있는 종교적 사회화(religious socialization)의 과정에는 관심을 기 울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웨스터호프에 의하면 학교식-교수 패러다임에서는 종교에 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신앙을 가르칠 수는 없으며 결국 가르쳐지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기독교 내용뿐이다.[200] 그는 이런 패러다임의 대안으로서 '신앙공동체-문화화 패러다임'을 제안하고 있다.

웨스터호프는 기독교 교육의 자리를 학교 교실로부터 신앙공동체로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 참여함을 통해 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문화를 내면화 하듯이 일종의 문화로서의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식 체제(schooling system) 속에서 수업(introduction)을 통해 교사가 인지적 내용을 거의 일방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근대주의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면, 신앙공동체(faith community)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교육의 모델은 포스트모던 교육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201]

⑤ 영성에 대한 강조

---

[199] John H.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83), 32.

[200] Ibid., 51.

[201]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299.

포스트모던 현상 중에서 또 한가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영성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경향 중 교육과 관련하여 파커 팔머(parker palmer)의 책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그의 책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영적 형성으로 서의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팔머는 교육의 가능성을 영적 공동체인 수도원에서 찾고 있는데 그는 오늘날의 교육이 수도원 전통에서부터 세 가지 영적 훈련을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신성한 문헌들에 대한 연구, 둘째는 기도와 관상훈련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들고 있는데 팔머는 마이클 폴라니의 인식론을 인용하면서 지식(앎)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며 인격적이고 영성적임을 주장한다.[202]

근대교육은 가르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팔머는 교육은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비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가르침이라고 보았으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간을 만드는 것 즉 '비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무엇보다 '기도'야 말로 가르침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어지는 공간 창조의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런 영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영성이 중요한데 교사의 겸손이 단지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인식론적 덕목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영성훈련이 필요한데, 그는 침묵과 고독과 기도를 통한 영성훈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모던 경향은 다중 지능론이 등장, 상상에 대한 강조, 인격적 지식론, 그리고 공동체 및 영성에 대한 강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202] John H.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83), 17.

이러한 교육적 특징 안에서도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어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만을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다름의 분석은 각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던 경향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동안 팽배했던 근대주의적 교육에 도전을 주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203]

따라서 오늘날의 아동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한 감각에 익숙해져 가는 아동들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3] 박상진, *기독교 학교 교육론*, 300.

# VII. 과제 실행

## 1. 연구반원 구성과 사역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네 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원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 이름 | 교회직분 | 전문분야 | 비고 |
|---|---|---|---|
| 김모세 | Pastoral Assistant | 영성 지도 | |
| 이현주 | 조앤영어연구소 소장 | 아동 프로그램 | |
| 박광흠 | 아태장신대 교수 | 교회 음악 및 행정 | |
| 김미경 | Member | 제정 관리 | |

본 연구반원은 필리핀 아동 선교에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교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성에 특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한 그룹은 필리핀 아태장신대 교수 선교사로 본 연구자와 동역하는 분들이다. 이들은 학교의 방학이고 쉴 수 있는 조건이나 시간과 열정을 이 아태장신태 SUMMER CAMP에 드린 귀한 분들이다. 이들의 도움으로 본 연구자가 아태장신태 SUMMER CAMP를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장소와 학교 시설 이용, 행정에 관한 부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한국에서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픽업, 잠자리, 식사, 안전 관리 등을 협력하여 도와주셔서 선교사역에 큰 울타리 역할을 해 주셨다.

그리고 서울 연신교회 선교부다. 필리핀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지도교수인 본 연구자는 파송 교회이자 후원교회인 서울 연신교회와 긴밀히 연락하여 필리핀 아태장신대에 대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적절하고 분명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연신교회 선교부는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아태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사 및 스텝으로 참석하여 선교하고 있다. 본 선교 활동이 일회성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정말 필요한 선교가 되기 위해 서울 연신교회 선교부와 본 연구자와 필리핀 아태장신대 학생들이 정기적인 줌 미팅을 통해 비전을 나누고 기도 모임을 한다.

연구반원 중에 김모세 목사는 서울 연신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부를 담당해왔던 부목사로 한국과 필리핀 선교를 본 연구자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의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도와주며 연구실행과 연구반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조앤영어연구소(JOANNE ENGLISH) 이현주 소장은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필요한 아동 관련 프로그램 자료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어 양질의 교육 선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 아태장신대 박광흠, 김미경 교수는 아태장신대에서 SUMMER CAMP가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함께해 주셨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주신 연구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외에도 서울 연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제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필리핀 아태장신대 총장님과 부총장님의 허락 및 지원은 본 프로젝트 실행에 큰 힘이 되었다. 본 연구반원은 자주 모여서 논문의 방향성과 실천적 활동 계획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다. 이와 같이 소중한 이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큰 용기와 도전을 받게 되었고, 아동 영성의 바른 이해와 교육을 통해 복음 중심의 영적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었다.

2. 프로젝트의 실행

1)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교안 작성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기획하였고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교안을 작성하였다.[204] 본 연구자는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보호자에게 이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아동 영성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교안을 작성하였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교안은 이곳에 참여하는 아동에게 기독교 신앙과 성품을 형성을 위한 영어테마동화 스페셜미와 함께한다. 스페셜미는 어린이가 따라 하기 쉬운 리듬과 라임이 가득한 패턴 북이다. 이 가장 쉬운 영어 그림책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린이 영성 성장을 도모한다. 노래와 애니메이션 영상을 도구로 내용을 전달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페셜미는 하나님께 대한 경이와 감사, 부르심과 응답, 비전과 소명, 지혜와 용기, 섬김과 나눔 등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영성이 성장하며 더 나아가 인성 교육에까지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은 테마동화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셜미는 어린이가 혼자서도 풀어볼 수 있는 쉬운 워크북이 있다. 본 워크북은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지식과 생각이 자라고 이를 통해 영성이 성장하며 언어능력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통합 능력 형성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태장신대 스페셜미를 기획하였고 이를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속의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204] Appendix A 참조.

또한 아태장신대 SUMMER CAMP 는 어린이의 지식과 정서, 언어교육을 아우를 영어 그림 동화들도 함께하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복음의 핵심 즉,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통한 예배의 장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본 교안은 교육적 기대가 높은 21세기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지역만이 아니라 더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지역사회 전도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

본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인 아태장신대 SUMMER CAMP 는 어린이 5세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총 12회의 테마를 한 SESSION로 하여 총 4번의 SESSION을 4주에 걸쳐 진행한다. 매 회의 소요시간은 120분이며 한 주에 영어테마동화 6권을 교재로 사용한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와 같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학기제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기는 3~5월, 9~11월로 정하여 총 2년간 4학기로 한 주에 한번의 모임을 가지며 한 학기동안 6권의 영어테마동화를 교재로 사용하여 이 프로그램 교안을 활용할 수 있다.

본 교안의 목차 중 1 session 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 월/일 | 주제 | 스페셜미 | 오늘의 알파벳 |
|---|---|---|---|---|
| 1 차 | 3 월 13 일 | 참 좋았더라! | In the Beginning | Ss (sun, seal, sock…) |
| 2 차 | 3 월 20 일 | 이름을 지어주렴! | In the Beginning | Ff (fox, frog, fish…) |
| 3 차 | 3 월 27 일 | 난 특별해요! | I'm So Special! | Bb(bee, bird, bear) |
| 4 차 | 4 월 3 일 | 모두 최고! | I'm So Special! | Nn(nose, nurse, net) |
| 5 차 | 4 월 10 일 | 난 소중해요! | I Have My Hands | Hh(hands, hat, horse) |
| 6 차 | 4 월 17 일 | 하나님의 소원 | I Have My Hands | Tt(toes, top, tail) |
| 7 차 | 4 월 24 일 | 널 사랑해! | Mommy | Mm(mom, mop, mole) |
| 8 차 | 5 월 1 일 | 널위해 기도해! | Mommy | Ss(sad, sick, sub) |
| 9 차 | 5 월 8 일 | 내가 갈게. | The King is Coming | Kk(king, kite, kiss) |
| 10 차 | 5 월 15 일 | 내가 태워드릴게요 | The King is Coming | Bb(bus, bird, bear) |

| | | | | |
|---|---|---|---|---|
| 11 차 | 5 월 22 일 | 이리 오렴. | Let Them Come | Ww(weak, wolf, web) |
| 12 차 | 5 월 29 일 | 내가 안아줄게. | Let Them Come | Ch(children, church, chair) |

본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교안은 세상의 빛이 되어줄 21세기 글로벌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며 일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유산이 될 기독교 복음 이야기를 그림동화와 노래를 도구로 만나게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 영어 교육이 함께 가는 통합 교육 모델을 마련해주는 교육 목표로 설계하였다.

2)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실행

위의 교안을 통해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젝트는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한번은 필리핀 아태장신대(Asia-Pacific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에서 진행하였고, 또 한번은 교육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필리핀 산소망교회(Jesus Christ Living Hope Church)에서 진행하였다.

첫번째는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4주간에 걸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의 교육시간을 가지고 필리핀 아태장신대(Asia-Pacific Christian College and Seminary)에서 참가 인원은 지역 아동, 선교사 자녀 및 교회 추천 아동 총 50명과 그들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필리핀 한 해 날씨중 가장 더운 4월에 학교들은 약 한달간 방학을 한다. 그리고 이 기간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인적 교육을 실시하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철저한 준비와 집중이 요구되었고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과 아태장신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속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의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선교를 돕기 위해 3개월 전부터 화상 회의 및 연락을 통해 프로그램의 필요사항 및 준비물, 그리고 선교 지원 물품 및 금전적 부문 등등의 세심한 부분을 연신교회 선교담당 김모세 목사와 조앤영어연구소 이현주 소장, 그리고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 대표 학생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기도회 및 회의를 하였다. 그 결과 선교를 위한 인력들이 비록 많이 떨어져 있어도 아태장신대 SUMMER CAMP준비는 철저하고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은 선교담당 김모세 목사와 더불어 총 19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5명의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 학생들이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교사 및 스텝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조앤영어연구소에서 이현주 소장은 서울 연신교회를 통해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물품을 헌물 하였다. 아태장신대에서는 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채플실, 교실, 그리고 식당 및 운동장을 개방해 주었고, 안전을 위해 가드를 방학 중에도 출입문에 배치해 주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스페셜미를 주 교재로 사용하여 총 12회에 걸쳐 3시간 동안 집중력이 짧은 유치, 초등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모든 프로그램은 짧지만 재미있고 복음이 담긴 전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힘썼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기에 교실과 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며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아동을 맞이하기 위해 교실에 풍선 및 캐릭터 장식과 함께 환영준비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성경동화 및 테마 동화를 전시하여 아동과 보호자가 오늘 어떤 것을 학습할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였다.

12회의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첫번째 테마는 “참 좋았더라!” 였다. 본 테마곡인 “In the Beginning” 과 오늘의 알파벳 Ss를 교실 앞 보드판에 공지하였다. 본 프로그램 시작 전 한달 전에 참가 신청서 및 진도표를 아동의 가정에 배포하여 미리

작성하고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혹시 미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동을 위해 여분의 신청서와 진도표를 준비해 두었다. 참가 신청서를 토대로 이름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였고 아이와 아이의 가정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처음 15분간 밝은 음악과 함께 신나는 어린이 체조 및 찬양과 율동으로 참가 아동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본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시간에 그날의 테마송을 율동과 함께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습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어린이의 집중력은 5분이 채 안되기에 찬양과 율동, 그리고 재미있는 어린이 체조를 통해 그들의 집중력이 최고인 상태에 본 연구자가 그날의 주제에 대한 설교를 약 3분간 전하였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담아 전달해야 하기에 인형극을 준비하여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테마인 “참 좋았더라!”를 통해 창조주가 있고 우리는 그 분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임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빛, 궁창, 땅과 바다와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들, 그리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들임을 소개하였다.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스페셜미는 한 주제를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다. 예배후에 10분간 그날의 영어성경동화를 읽어주는데 1차시는 “스토리 타임”시간을 갖고 다음 날은 2차시로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우선, 1차시 “스토리 타임”은 모든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미리 받은 동화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스토리 타임~”이라고 함께 외치게 하였다. 그리고 책을 뒷면까지 보이도록 펼쳐 들고 책 제목을 먼저 읽어주었다. 그리고 제목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책 커버를 보고 주인공(Who)과 배경(Where)을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what)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서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다같이

책 안을 들여다보며 책 읽기를 시작했다. 책을 읽어줄 때 시작은 에너지를 더 모아 집중해서 하고 문장이 끝난 후엔 쉬었다 읽어주기,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 표현하기와 적절히 다음을 예측해볼 질문도 하는 것, 그리고 끝은 감동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집중하며 스토리타임을 진행하였다.

다음 날 2차시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하였다. 1차시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의자에 안도록 한 후 “스토리 타임~”을 외치게 하면서 시작하였다. “스토리텔링”은 미리 준비한 그림카드를 융판에 붙여가며 손인형극 형태로 스토리를 재현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직접 책을 펼쳐보게 하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finger reading을 하도록 하여 함께 읽어보았다.

스토리를 읽어주고 난 후 이 스토리의 핵심 내용을 담은 스토리 송을 다같이 노래와 율동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아태장신대 스페셜미 오늘의 주제인 “In the Beginnig”스토리 송의 율동을 배운 후 에니메이션을 보면서 함께 찬양을 하였다. 이때 미리 찬양과 율동을 준비한 교사들이 스토리 송에 맞춰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노래와 율동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을 어색해했는데 학기말이 다가오자 모두 교사보다 더 잘 부르고 율동을 하였다.

주제 율동을 배운 후에 알파벳타임을 7분간 가졌다. 이를 위해 알파벳 실물상자, 알파벳 관련 실물자료, 스케치북과 마커, 그리고 실물 전시용 테이블을 배치하였다. 알파벳 실물자료들은 재활용 물건들을 통해 준비하였고 지퍼백에 알파벳 별로 모아두었다. 알파벳 타임의 활동은 테이블 활동에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은 수업 중에 알파벳 활동을 해보고 집에서도 연계하여 ‘이 중의 알파벳’으로 활용하도록 종용하였다.

아이들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알파벳 타임” 이라고 외치게 하고 알파벳 송을 불러보았다. 오늘의 알파벳인 Bb를 말해주고 스케치북에 천천히 크게 써준 후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공중에 들어 따라 서보게 하였다. 그리고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말해주면서 상자에서 실물자료를 하나씩 꺼내 주었다. B, b, b, bear! 하면서 곰을 꺼내 주고 아이들도 참여시켜 상자에서 하나 꺼내 보게 하였다. 오늘의 간식도 알파벳에 맞추어 "바나나"를 준비하고 관련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먹거리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게 하였다. 그리고 라임(모음으로 시작되는 끝소리)을 들려줄 때에는 끝소리가 같은 bear/pear 등의 단어들을 묶어 라임소리를 들어보게 해주었다. 여기 까지가 본 프로그램의 전체 활동이고 이것이 끝나면 그룹 별로 테이블 활동을 25분간 진행하였다.

알파벳 타임이 끝나고 나면 "테이블 타임" 하고 함께 외치게 한 후 좌식 테이블 위에 아이들에게 오늘의 워크북, 크레용, 가위, 풀 등이 안에 든 개인 학습용 바구니를 나누어 주었다. 먼저 오늘의 워크북을 풀어보고 집에서도 이주의 알파벳에 집중하여 놀이로 이어지게 종용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연결된 만들기, 그리기 등을 통해 주제 활동을 합니다. 이때 본 연구자가 연신교회 선교팀 인원중에서 풍선 아트, 비누아트 등 본 프로그램의 그날의 테마에 맞게 아동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주제활동이 끝난 후 오늘의 간식 감사기도를 드리고 간식을 나누었다. 먼저 테이블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하고 물수건을 주어 손을 씻도록 하였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 좋은 간식을 준비하였다. (알파벳 활동과 연결된 간식을 준비하도록 연신교회 선교팀에 본 프로그램의 테마들을 미리 공지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간식을 먹는 동안 중요한 광고나 크리스천 육아를 위한 교육 정보전달을 하였다. 본 활동은 아동 5명을 한 그룹으로 하였고 각 그룹에 담당 교사 및 도우미가 알파벳 만들기, 그날의 주제 활동, 그리고 간식타임을 인도하였다.

이 활동이 끝나고 다시 다같이 모여 15분간 블랑켓 타임을 통해 오늘의 주제 "In

the Beginnig”에 따른 창작 그림 동화 “In my world”를 읽어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만져보고, 흉내내 보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닫는 예배로 본 연구자의 주도하에 10분간 다같이 영어성경을 암송하고 보호자와 모든 스텝이 참가한 아이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참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다음 날 일정 및 집에서의 활동, 그리고 준비물 등을 공지한 후 마지막으로 축복송을 다같이 부르며 본 프로그램 첫번째 날 순서를 마쳤다.

참가 아동과 보호자들이 돌아간 후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모든 참가 스텝이 모여 그날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진행을 위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텝은 크게 설비팀, 환영팀, 준비팀, 예배팀, 교사팀, 간식팀, 안전팀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팀은 그날의 평가와 체크리스트를 발표하고 각 팀별로 준비 사항 및 진행 시 필요한 내용을 서로 나누어 다음 날 본 프로그램의 진행이 차질 없도록 준비하였다. 이 모든 회의가 끝나면 모든 스텝이 모여 참여 아동과 보호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그들이 세계적인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3) 필리핀 산소망교회(Jesus Christ Living Hope Church) 토요학교

두번째는 2023년 5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12주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의 교육시간을 가지고 본 연구자가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필리핀 산소망교회(Jesus Christ Living Hope Church)에서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스페셜미를 활용하여 토요학교를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필리핀 산소망교회(Jesus Christ Living Hope Church)의 유치, 아동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43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고 필리핀 산소망교회 청년부가 스텝으로 섬겼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20㎞ 떨어진 동쪽 산간 지역 안티폴로 지역에 위치한 산소망교회는 주변에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 교회 어린이 지도자를 초청하여 함께 본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교육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복음전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 14명의 지역 교회 목회자 및 교회 교육 담당자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각자의 교회에 적용 실시하는데 이르게 되었다. 산소망교회에서 시행된 본 교육 프로그램은 교회에 중요한 토요학교로 정착하여 소문이 나 유치, 아동부의 부흥을 이끌었고 더 나아가 지역 교회 및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 지역단체에 유용한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요청으로 지역 복음 및 교육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 VIII. 과제 실행 평가

## 1. 의식적 변화에 대한 결과

본 프로젝트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통해 우선, 참가 아동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그들에게 본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이며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곳이며 그들이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필리핀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아동에 대한 의식을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의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본교에 진학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이 그들의 체험과 결합하여 아동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한다.

본 연구자는 이들이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젝트를 통해 참가 아동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들여다보았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더 전문적이고 풍성하게 진행하도록 교육선교에 물질과 기도, 섬김과 사랑을 아끼지 않은 서울 연신교회와 선교팀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본 프로젝트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필리핀 산소망 교회 아동부를 대상으로 토요학교를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변화된 의식을 확인하는 것 역시 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의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205]

[205] 내용은 Appendix를 참고한다.

1) 일반 성도에 대한 설문조사(100명)

본 연구자는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4월과 9월 두 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6개월 동안 일반 성도들 즉,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는 서울 연신교회 성도들과 필리핀 산소망 교회 성도들의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 성도들의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관한 관심도에 있어 설문조사가 24.0% 포인트 정도의 인식의 변화가 보였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대한 홍보와 초청세미나, 교회적 관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본 연구자가 섬기는 아태장신대와 필리핀 산소망 교회에 선교적 관심은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파에 대한 큰 원동력이 된다.

2)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본 연구자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참가 지원서 및 설문지를 통해 참가 아동들의 실태조사 및 전반적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참가자의 상황을 알아보려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참가자들의 종교상황(개신교 47.8%), 타 종교로 부터의 개종자(12.6%), 만족도 및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긍정적 영향(85%이상), 경제적 상황 (어려움 70.0%), 기초교육지원 상황(10.0%), 영어 교육 경험(26.4%)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참가자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많으며, 기초 교육에 노출되지 않은 대다수의 아동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적 소외 및 아동의 발달 및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은 열망이 있는 보호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기초 교육적 부재를 통해 사회적 고립 현상을 겪고 있는 63.8%의 참가자들 가운데, 88.0%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스페셜미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격적 교육 발달 효과를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교육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스페셜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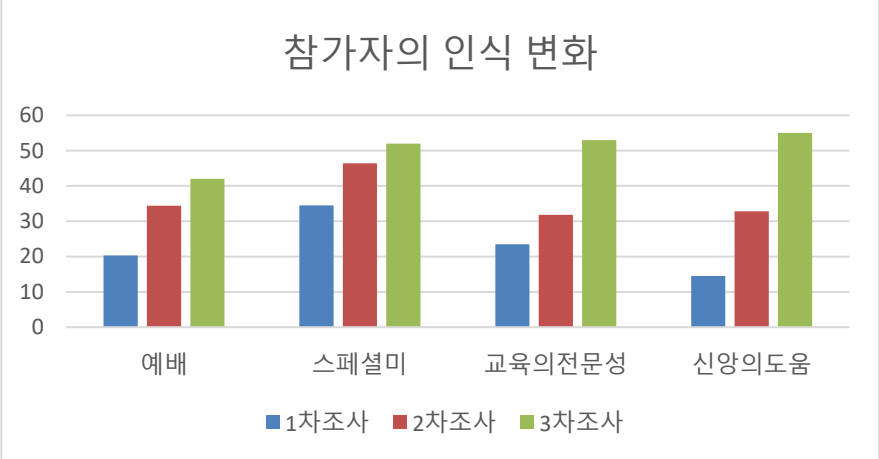
또한 본 프로그램을 마친 후 참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대상: 52명, Appendix D)에서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심각한 교육 지원 부재 및 참여 가능한 교육적 시스템 부재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적 부재가 아동의 가정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90.9%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프로그램이 교육적 갈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스페셜미가 아동들의 전인적 교육에 대한 갈망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70%이상이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영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태장신대 SUMMER CAMP가 준비되었고 스텝으로 섬기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인 기독교 교육학을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들은 아동 교육 전문가인 이현주 소장의 교육 자료 제공 및 세미나를 통한 교육이 어루러져 전문성을 갖추었고 이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전문적 교육 제공 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동과 그 가정에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의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본 연구자는 스텝으로 섬기게 되는 학생들과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과 연합하여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했기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영성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본 설문 조사에서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마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한 질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노래와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63.0%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바라는 점에서는 좀더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실시 및 아동 캐어가 65.1%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반의 예상(대략 60%이상)과 부합하는 수치로서,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프로그램이 아동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참가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본 연구자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목표달성에 관련된 참가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총 3회(APPENDIX B, 60명)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를 통한 그래프의 수치를 보면 우선, 본 프로그램에서 시작과 끝의 자리를 차지하는 예배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변화는 낮은 기대에서 마지막에는 참가자 대다수가 만족하였다. 이는 예배를 처음 접하거나 예배 자체가 낯선 환경속에서 지낸 아동들이 예배에 익숙해지고 예배를 통해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교육적 부분을 담당하는 스페셜미에 대한 응답은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대를 하였고 이에 부흥하였음을 본 그래프 수치는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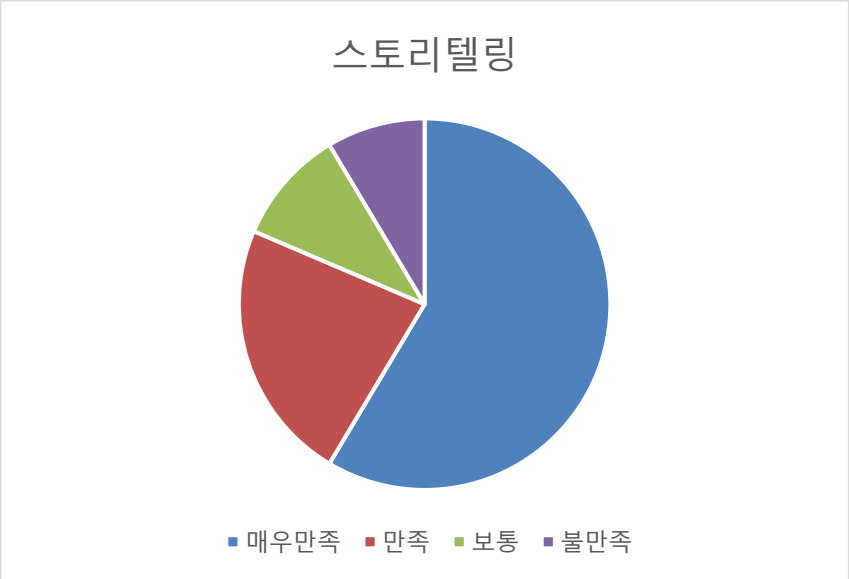
스페셜미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프로그램 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교회학교 등에서 이미 입증된 프로그램을 본 교 지역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여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고려된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 측면과 연결되어 참가 아동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인식변화 조사중 본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신아에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영역을 살펴보면, 참가 아동은 대부분 신앙을 목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배우고 놀이와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아동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실시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인 복음전파가 잘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2.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스토리 텔링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큰 주제는 “나는 특별해”이다. 이 주제에 대해 12개의 테마가 있는데 그날의 테마를 가장 분명하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시간이 바로 스토리 텔링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스텝들은 그날의 테마 내용 검토, 오디오 여러 번 듣기, 율동 외우기, 읽어주기 연습하였다. 그리고 스토리 텔링 담당자는 제목과 관련된 주제 아이들과 계속 대화를 하며 책의 커버를 보고 주인공(who), 배경(where)을 묻고 무슨 일(what)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다음날은 같은 테마를 가지고 스토리 텔링을 진행했는데 진행자가 그림카드를 융판에 붙여가며 손인형극 형태로 스토리를 재현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 아동들이 그날의 테마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하였고 아태장신대 SUMMER CAMP 마지막 주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 테마에 대한 스토리 텔링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비해 본 스토리 텔링은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주제에 더 다가가고 그날의 테마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기억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다. 설문 조사에서도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80% 이상의 아동이 만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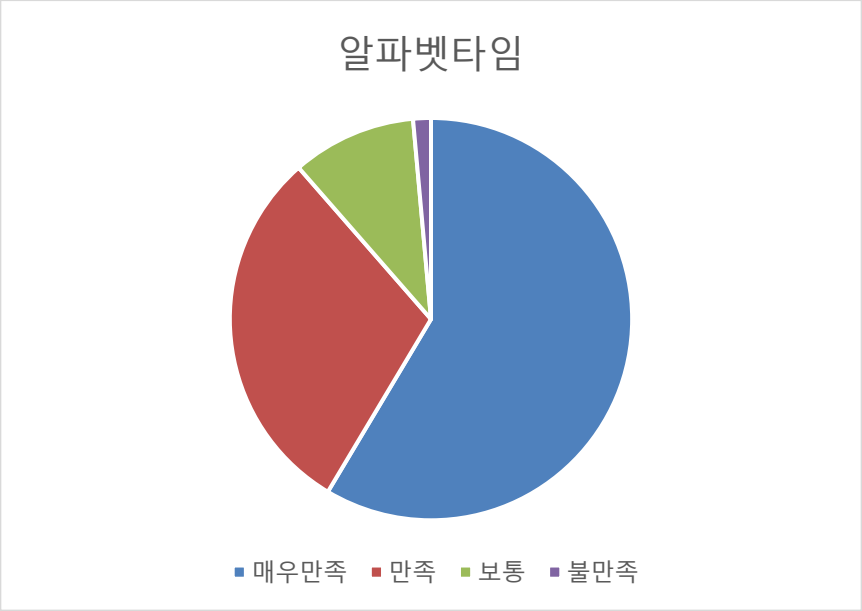

2) 알파벳 타임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알파벳 실물상자, 알파벳 관련 실물자료, 스케치북과 마커, 전시용 테이블을 미리 스텝들이 준비하였다. 알파벳 실물자료들은 재활용 물건들을 통해 준비하였고 지퍼백에 알파벳 별로 모아두었다. 그리고 알파벳 타임의 활동은 이후 활동인 테이블 활동에도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아이들은 수업 중 알파벳 활동을 해보고 집에서도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알파벳 타임” 이라고 외치게 한 후 그날의 알파벳 송을 불렀다. 그리고 오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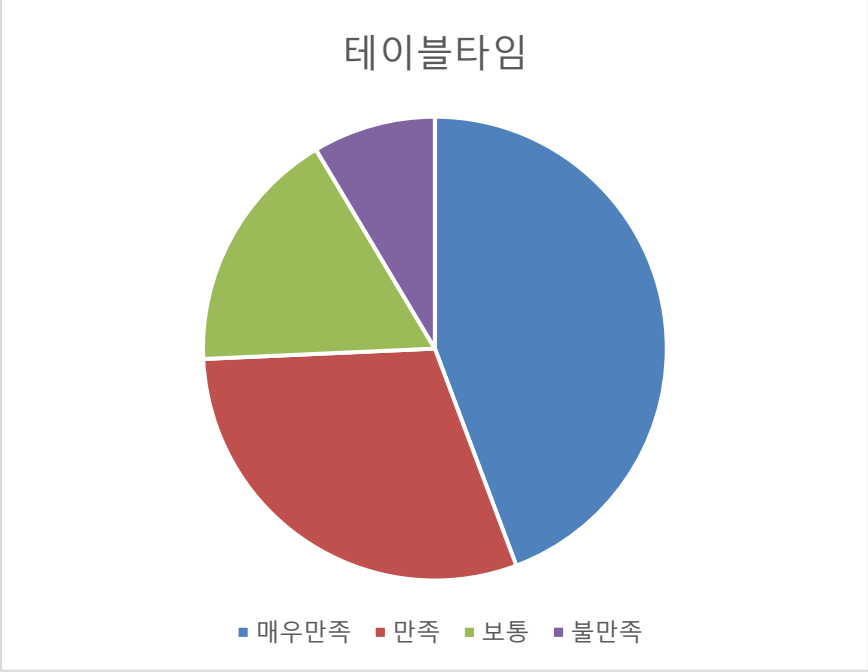
알파벳을 말해주며 스케치북에 천천히 크게 써주었다.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공중에 들어 따라 써보게 한 후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말해주면서 상자에서 실물자료를 하나씩 꺼내 주었다. (예: B, b, b, bear!) 하면서 곰을 꺼내 보았다. 본 활동에 아이들도 참여시켜 상자에서 하나 꺼내 보게 하였다. 오늘의 간식도 가능한 한 알파벳에 맞추어 준비했고 (예: 바나나) 관련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먹거리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게 하였다. 라임(모음으로 시작되는 끝소리)을 들려줄 때에는 끝소리가 같은 (예: bear/pear 등) 단어들을 묶어 라임소리를 들어보게 해주었다. 차시 별 알파벳과 실물 알파벳 자료와 간식까지 스텝들은 차질 없이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아래의 설문에 대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실행 지역의 대다수 아동들이 겪고 있는 교육의 부재를 통해 고통받는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교육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매시간 다른 테마에 맞게 정해진 알파벳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파벳을 습득하였고 가정에서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알파벳 타임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이유라 판단된다.



3) 테이블 타임

좌식 테이블을 준비하여 그 위에 아이들에 오늘의 워크북, 크레용, 가위, 풀 등을 그날의 테마에 준비한 주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 학습용 바구니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알파벳 타임이 끝나고 이어서 진행되는 활동인 “테이블 타임”을 함께 외치게 하고 시작하였다. 그날의 테마와 연결된 활동(만들기, 그리기 등)을 테이블 타임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때 스탭 중 풍선 아트, 비누아트 등 아동을 위한 특별수업을 진행하도록 미리 공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업 테마를 미리 말하여 주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놓았던 이 활동을 통해 참가 아동은 그동안 해보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활동에 관한 모든 준비물을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스텝들이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었고 각 모듬에 담당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그날의 테이블 타임의 활동을 모든 아이들이 체험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아래의 설문 조사의 결과와 같이 높은 만족도를 주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다.



3. 구조적 변화에 대한 결과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지속적 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 행사를 주관하는 아태장신대, 아태장신태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 그리고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의 유기적 협조가 반드시 요구된다.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상의 문제, 예산의 문제, 교사의 양육시스템 인식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위한 학교와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본 사역은 힘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필리핀 아태장신대는 본 SUMMER CAMP를 학교의 정식 행사로 위상을 변화시켜 본 교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동 교육 현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 관리하게 하였다. 둘째,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참석하는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은 매년 본 사역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정기 선교 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 연신교회에 건의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의 정기 선교 행사로 지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서울 연신교회 성도들 역시 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사역예산을 확대하였다. 아동들의 간식비를 개인당 50페소 인상하고, 참가 아동의 입학금 보조금을 10% 줄여 전체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아동들이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참석을 보다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며 아동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IX. 목회 유능성 개발

## 1. 목회 능력 개발의 중요성

영성 목회 사역자는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이 있어 세워진 구별된 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세워진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능력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움 받아 겸손히 섬기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영적 존재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은 절대절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성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목회자의 영성은 목회 전체의 관건이 된다. 바른 인격의 형성과 영성 생활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는 현 시대를 정확히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서 신속하고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통한 아동 교육 및 선교 목회의 전문가를 위한 유능한 목회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분야별 전문가의 소양을 키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시행전략을 통해 노력하고 실천하였다. 또한 적용을 통한 평가를 내렸다.

## 2. 구체적 계획

### 1) 영성 신학자

성경은 인간이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살전 5:23)고 나타낸다. 인간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아동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점점 더 개인주의 사상이 강해지고, 왜곡된 구원관들이 넘쳐나고, A.I의 등장으로 혼돈의 미래속에서 믿을 것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온전한 기독교 영성을 아동에게 소개해주고 그들 가슴에 영성을 형성시키며 그것을 성장하게 한다 것은 현 시점에 너무도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현대의 영적 흐름을 알기 위해 James E. Loder의 기독교 교육론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나의 이해, 더 나아가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더 연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영성신학자로서의 영향과 더불어 영적 지도자 로서의 균형을 갖춘 목회자이자 교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2) 종교 교육자

자아를 앎의 주체로, 세계를 앎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영성적 교육은 표준적, 일반적 교육을 넘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Parker J. Palmer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성경과 영적 도서에서의 배움을 그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재를 통해 거룩한 통찰을 얻으며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교육적 변화와 시대 흐름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삶는 기독교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르치는 자로서 영성 개발에 소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연구하여 구원에 이르는 종교교육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지도자

필리핀 아태장신대에서 교수 선교사를 7년간 하고 현지인 교회에서 목회자로 지도자의 역할을 한 본 연구자는 이번 뉴욕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의 D.MIN 과정 중 리더쉽 수업를 받게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리더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인가? 나는 탁월한 리더쉽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나는 리더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았다. 앞으로 교수로서 선교사로서 영적인 부분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채워야 하겠다.

3. 목회 능력 개발 결과

1) 영성신학자

선교지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지금 사역하는 본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사역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확신에 찬 긍정적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실행하면서, 본 연구자는 모든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이자 결과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임을 잊지 않는 영적 신학을 분명히 하고 사역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다. 본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사역은 참여하는 아동에게 전인적

교육을 통해 성경을 소개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다.

이 사역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울의 고백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장6)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고 전인격적 교육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주인이 되어 성장시키도록 인도하는 영성 신학자 로서의 분별과 인도는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설립 목표이자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아동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영성 신학자로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본 연구자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 것이다. 또한 본 사역에 참여하는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들과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지속적으로 모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준비된 스텝으로 서도록 지도자 영성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 종교 교육자

본 연구자는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핵심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일인 종교 교육자 로서 무엇보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것” 즉, 아동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함을 알았다.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며 치료하는 의사와 같이 종교 교육자는 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적, 신학적, 학문적 이론을 쌓고 그 위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아동을 바라보는 종교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Parker J. Palmer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강조한 것처럼

교육자로서 교육 대상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사역으로 이어가야 한다.

사역을 통해 종교 교육자는 가르치는 이인 동시에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춘 종교 교육자라 할 지라도 영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파트너 사역을 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여러가지 변화에 집중할 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없는 사람의 일에 불과할 것이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실행은 본 연구자와 스텝들로 하여금 종교 교육자로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하면서 스텝으로 섬기는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과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아동에 대한 이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좀 더 연구하여 본 연구자가 스텝 모두가 전문 지식을 갖춘 종교 교육자가 되도록 교육 교제를 연구 준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사역을 하면서 아동에 대한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강의과 스페셜 미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아동이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을 소개받고 만남을 가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나 아동을 전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자는, 아동의의 심리와 영과의 관계 속에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이번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사역을 통해 아동 영성을 공부하게 되었고, 영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찰력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분야를 더욱 연구하고 실행하여 아동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는 전인적 교육을 실행, 경험하게 하려 한다.

3) 지도자

본 연구자는 2008년부터 교육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선교사로 지도자로서 일해왔다. 그리고 2022년 뉴욕 신학대학교(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있다. 본 연구자는 특히 학문이 그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사역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신학 학사, 신학 석사, 그리고 기독교 교육 석사, 그리고 지금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도 리더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요청된다는 것을 사역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권위형 리더쉽, 민주형 리더쉽, 자유방임 리더쉽 중 어떤 유형의 리더쉽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쉽은 어떤 것이었는 지와 오늘 날 아동 사역을 위해 필요한 리더쉽은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위해 나에게 맞는 리더쉽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하고 아동사역 및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쉽을 갖추는 준비된 리더가 되어야 하겠다.

4. Project Evaluation (평가)

1) 교육자 평가

본 프로젝트의 교육자는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과 필리핀 아태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본 연구자로부터 교육 및 훈련 중에 있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동에 대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열정으로 다가갔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자 스스로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그 동안 몰랐던 아동 교육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아동의 시기에 그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교육에서 소외된 그들에게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그들 가슴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며 전인적 교육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교육자들이 오랜 시간 함께 본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는 여건은 아쉽다. 이들이 오랜 시간 교육자로 남아 참여 아동의 변화와 그들의 필요를 그때 그때 채울 수 있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들이 다음 선교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 아동들의 성장과 반응 평가

아동의 대다수는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친밀한 관계속에서 예배를 통해 신앙 교육을 하고 영어로 성경 이야기 및 동화를 배우고 여러 활동을 통해 전인적 교육을 받은 이들은 영적으로는 믿음의 씨앗을 그들 가슴에 심어주고 여러 활동을 통해 지식적 욕구도 충족하였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체적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본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학교와 가정이 같이 아동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이 마친 후에도 그들에게 전인적 교육을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를 배가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는 아태장신대에서 봄 방학 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 이들을 일년 내내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교육할 수 없으나 본 연구자는 매년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통해 더 발전된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참여아동에게 꾸준히 연락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 연신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망이 식으면 안될 것이다.

3) 학교 및 선교적으로 평가

현세대는 고령화로 인해 나라마다 고민들을 하며, 저 출산으로 교회의 주일 학교는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교회와 학교 및 선교 단체 등으로 신앙 교육을 이어나 갈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아태장신대에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여 교육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본 교에서 시행되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통해 신앙 교육 현장 학습을 체험하고 이론과 실습을 접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이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더 전문성을 갖춘 신앙 교육자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기에 학교는 본 연구자에게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장소 및 교육환경을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본 활동은 학교의 노력으로만 진행할 수 없다. 선교 후원교회인 서울 연신교회 선교팀의 기도, 물질, 인적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선교팀이 교육자로 아태장신대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회는 리더의 변화나 당회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 결정에 선교지의 선교사들은 사역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교회적 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성도들과 공유하여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교육 선교 프로그램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거시적 안목과 비전이 요구된다. 본 연구자도 이 사역이 장기적인 사역이 되기 위해 각 과정의 교재 및 선교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킬 계획이다.

# X. 결론

본 논문은 아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및 실행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성형성과 전인적 교육을 연관시켜 연구했다. 기독교교육은 다음세대를 책임질 어린이를 기독교적 신앙관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의 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의 이원화 현상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세대를 책임질 아동에게 전인적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서론은 본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목적, 방법과 범위, 용어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로서의 아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형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으로서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이론적 연구는 네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성서에 나타난 아동 영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을 연구하였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의 개념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구약의 영성 이해는 하나님의 영이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책임적인 존재로 참여하는 영성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영성 이해는 구약에서 예언된 일들의 실현, 곧 끊어졌던 영이 되돌아옴으로써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때가 실현 성취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서에서의 영성 이해를 바탕으로 성서에 근거한 아동의 이해들을 살펴보았다. 즉, 아동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기쁨의 자원이며 미성숙한 존재이며 주님의 훈계로 교육되어야 할 존재이며

신앙의 모범이 되며 마지막으로 죄 성을 가진 피조물이다.

두번째로, 신학적 측면의 아동 영성을 살펴보았다. 예수그리스도의 성령은 영성의 구심점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 역사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구되어진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각 시대별로 추구했던 영성을 고찰함으로써 신학에 근거한 아동에 대한 이해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영성과 기독교 교육을 다루었다. 영성적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며 아동에 대한 전인적 접근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

아동의 영성 형성을 위한 전인적 교육을 위하여 복음 교육과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접근을 하였다. 복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신뢰와 순종의 반응, 즉 '믿음'의 차원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음 교육은 아동의 죄책감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다.

아동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야기와의 만남'이다. 이야기는 경험적이어야 하고 체험적이어야 하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어린이의 복음교육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아동을 위한 복음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는 성서이다. 아동에게 성서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들이 이야기에서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 문제들을 다루게 됨을 본 논문을 통해 정리하였다.

세번째는 심리학적 관점 연구로서 우선, 발달 심리학적 아동의 이해를 시도하였다. 즉, 아동의 신체적, 심리학적, 심리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 발달에 대해 연구하며 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아동의 전인적 교육 및 영성 형성에 대한 시도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시도는 바로 전인적 교육을 통한 아동의 영적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전인적 신앙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전인적 교육은 인간의 내적인 통합 지, 덕, 체의 조화를 삶 속에 발현하여 처해 있는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총체적 인격 교육이며 또 인간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 지구적 생명의 공존과 우주적 공존의 발현을 위한 정신적 영적인 교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신앙발달로 이어지게 하는 시도는 그 속에 바로 '영성' 이 개입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아동 영성을 형성하며 성장시키기 위한 신앙발달을 위해서는 구원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게 하며 전인적 영성을 위한 지적 신뢰적 실천적 성향의 조화로운 영성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신앙발달은 아동으로 하여금 종교적 개념 발달, 체험 신앙 확립, 성서를 묵상하고 더 나아가 실천적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 본 논문의 교육 대상인 아동에 대한 심리적, 발달적, 인지적 특성 및 교육의 시도들을 시대별 학자들의 분석 및 비판을 통해 발전한 이해를 통해 아동의 전인격적 교육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아동의 영성 형성 프로그램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네번째는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이다. 아동의 사회적 위기와 대처 방안은 우선적으로 현 시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이다. 오늘날 가장 큰 시대 사조는 바로 포스트 모던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 이후의 시대사상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면서 근대주의의 사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상의 경향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정신은 근대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요약되며 탈정전화 또는 탈중심화, 자아나 주관성에 대한 새로운 태도, 핵심적인 예술장치로서 패러디의 사용, 행위와 참여의 중심, 임의성과 우연성 그리고 유희성, 전통적 계급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계급의 출현, 탈장르화의 확산, 자기반영성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신념체계는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결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일 수 없으며, 특정한 관점과 가치관 하에서 형성된 하나의 해석체계의 일종으로 본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의 상대성을 넘어서 진리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도 없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복음 전파 및 기독교 교육에 대한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아동에게 영성 성장을 이루는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본 논문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육의 대안 즉,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 엘리옷 아이즈너의 상상에 대한 강조를 통해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앎의 형태들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교육 개혁은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여 다양한 인지 능력을 아이들에게 길러주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마이클 폴라니의 인격적 지식론은 앎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모든 지식은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참여적이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의 관계는 일종의 상호 참여적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의 내용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교사의 영성과 삶, 인격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신앙은 교수-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앙공동체에 참여하여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화되고 문화화 되기 때문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웨스터호프, 엘리스 넬슨의 '신앙공동체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커 팔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을 통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영성에 대한 강조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든 시대의 교육 대안을 연구하였다.

위의 여러 측면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연구를 바탕으로 시행한 아동 영성

교육 프로젝트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전인적 교육의 필요성을 다루면서 아동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참여 아동들의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보호자들에게 아동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처음에 지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참여한 아동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이 중요하고 이것들을 통해 신앙 발달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영성 형성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시대에 요구되는 기독교 교육일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가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더 많은 참여 아동의 보호자들이 사역에 참여해 주기를 바랐지만, 가정 여건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교라는 장소와 한 달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본 프로젝트는 참여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성장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것이 잠깐 아니면 일회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과제이고 사역이기에 아동 영성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몇 가지를 제언한다. 우선, 종교와 영성을 구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영성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종교는 제도적인 것이나 예배와 같은 행위 등으로 보는 반면 영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본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종교를 제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모든 부분이 영성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향으로 바뀌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자나 교사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지침을 제공하여 실천적 영성교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적 앎(orthodoxy)과 기독교적 삶(orthopraxis)을 일치시키는 교육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교육은 영성에 대한 앎의 문제나 혹은 영성적 삶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간의 대화를

통해 효율적 기독교 영성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영성교육을 통해 영적 실제를 누리도록 해주며 앎과 삶이 일치되는 전인적 신앙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까지 신앙에 대한 파편화된 시선은 전인적 신앙 성장을 다룰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 현장에 전인적 신앙 성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따른 기독교 신앙교육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발전되어야 할 영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인적 신앙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제를 설계하였으나 지 정 의 세 차원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PPENDICES

APPENDIX A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교육 장소: 필리핀 아태장신대학교

교육 일정: 4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월~금요일

교육 시간: 오전 9:30 ~ 오후 12:30

교육 대상: 유치 / 초등 저학년 어린이 30~40명

목적: 복음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어줄 글로벌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 마련하기.

교육내용:

-크리스천 신앙과 인성에 관한 읽기 중심 그림동화학교

-아동을 위한 유아 마사지, 찬양과 율동, 예배 알파벳 활동, 주제활동, 간식

-영어그림동화 읽기, 놀이와 신체활동

-인형극, 소풍, 이벤트행사 진행.

등 록 비: 12만원내외(교재비와 자료비 외)

원서교부 및 접수:

준 비 물: 입학원서, 아이 사진1장, 가족(또는 보호자와 찍은) 사진 1장,
가방/뱃지/책(교재)

연락처: 아태장신대 교무실 및 담당자 연락처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 소개>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는 크리스천 신앙과 인성을 주제로 한 아동 영어테마동화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세상에서 제일 쉬운 영어그림책 프로그램**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는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리듬과 라임이 가득한 패턴북을 통해 진행합니다.

**② 노래와 함께 하는 그림책**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는 내용 그대로가 노래이며 애니메이션 영상이 또한 함께 합니다.

**③ 크리스천 신앙과 삶의 핵심 메시지를 담은 테마동화**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는 하나님께 대한 경이와 감사, 부르심과 응답, 비전과 소명, 지혜와 용기, 섬김과 나눔 등 크리스천 신앙 교육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담은 테마동화를 전달합니다.

**④ 스토리와 함께 가는 워크북**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는 아이 혼자서도 풀어볼 수 있는 워크북이 함께 합니다. 워크북은 크리스천 신앙과 삶을 중심으로 한 지식과 생각이 자라고, 언어능력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통합 리터러시로서의 대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의 비전과 소명**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가 한국과 필리핀을 넘어 전 세계 다음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① 아이들의 일생에 유산이 될 '그 이야기' 즉, 복음을 전해주기.

② ‘영어’에 관심 많은 21세기, 아이들을 교회(학교)로 모으는 시대의 ‘빵’과 ‘피리’가 되어주기.

③ 기독교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하나님의 글로벌 일꾼 양성의 기초가 되어주기.

④ ‘영어책 읽는 아이’를 만들어주기. (교회의 교육적 힘 회복)

⑤ 선교지는 이제 현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 컨텐츠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⑥ 젊은이들을 다음세대 교육의 실제적 대안을 마련해주고 오는 단기 교육 선교사로.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 활용**

① 엄마와 함께 읽는 “일생의 유산이 될 그 이야기”로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② (영어 그림동화와 함께하는) 아동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합니다.

③ (영어 동화와 함께하는) **토요학교**(유치/초등저학년) 영어**프로그램으로** 활용합니다.

④ 기독교 신앙과 성품 교육을 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재로** 활용합니다.

⑤ 이웃과 선교지에 노래하는 어린이 “사영리”로 활용합니다.

⑥ 선교지 summer camp**나** 유치원 교재로 활용합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 구성**

※스토리북(6권이 한세트/총 4세트)

스토리북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6권씩 한세트/총4세트/가정용/아동학교용)

스토리북6권+오디오CD1+애니메이션DVD1(총4세트)

| | |
|---|---|
| Set 1<br>빨강 | <br>스토리북 6 권+오디오 CD1 장+애니메이션 DVD1 장 |
| Set 2<br>파랑 | <br>스토리북 6 권+오디오 CD1 장+애니메이션 DVD1 장 |
| Set 3<br>초록 | <br>스토리북 6 권+오디오 CD1 장+애니메이션 DVD1 장 |
| Set 4<br>하늘 | <br>스토리북 6 권+오디오 CD1 장+애니메이션 DVD1 장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 주제들

## Set 1

| 수업 차 시 및 제목 | | | 주제 | 중심내용 |
|---|---|---|---|---|
| 1 | In the Beginning | | 자연/ 경이와 감사 | 하나님은 세상은 질서대로 만드셨으며 만드신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
| 2 | I'm So Special! | | 동물/ 자기 존중 |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
| 3 | I Have My Eyes | | 몸/ 경이와 감사 | 모든 만물 중 우리는 더더욱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더더욱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 4 | Mommy | | 일과/ 아가페 사랑 | 엄마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슬플 때, 배고프거나 더러워졌을 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며 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니다. |
| 5 | The King is Coming! | | 교통수단/ 함께 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당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
| 6 | Let Them Come! | | 감정과 상태/ 부르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스페셜미 주제들

## Set 1

| 수업 차 시 및 제목 | | | 주제 | 중심내용 |
|---|---|---|---|---|
| 1 | In the Beginning | | 자연/ 경이와 감사 | 하나님은 세상은 질서대로 만드셨으며 만드신 것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
| 2 | I'm So Special! | | 동물/ 자기 존중 |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
| 3 | I Have My Eyes | | 몸/ 경이와 감사 | 모든 만물 중 우리는 더더욱 특별한 존재이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더더욱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 4 | Mommy | | 일과/ 아가페 사랑 | 엄마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슬플 때, 배고프거나 더러워졌을 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며 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니다. |
| 5 | The King is Coming! | | 교통수단/ 함께 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당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
| 6 | Let Them Come! | | 감정과 상태/ 부르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

# Set 2

| 수업 차 시 및 제목 | | | 주제 | 중심내용 |
|---|---|---|---|---|
| 7 | Here They Come! | | 동물소리/ 주님 찬양해요. | 모든 동물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 "호산나"로 주를 찬양합니다. |
| 8 | Be Cheerful! | | 특징/ 모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소중하다 말씀하시며, 사랑해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십니다. |
| 9 | I Wonder Why | | 장소/ 예수님이 행하신 일 | 예수님은 우리를 구석구석 찾아 다니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
| 10 | To the King | | 몸동작, 인물/ 주님은 치료자, 주님은 왕. | 주님은 우리의 왕이요 주이시며, 나의 방패와 창이 되시고, 치료자 되시며, 백합화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
| 11 | If | | 동작동사/ 용기와 지혜주세요. | 어둡고 악한 세력이 내게 겁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유혹할지라도 나는 "No!" 하며 단호하게 이 더러운 세력을 내어쫓을 것입니다. |
| 12 | Right in the Middle | | 라임, 사물/ 주님 사랑해요. | 벌레가 양탄자 한 가운데를 기어가듯, 개구리가 등나무 한 가운데 앉아 있듯, 나무 한 가운데 벌이 있듯, 내 마음 한 가운데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

# Set 3

| 수업 차 시 및 제목 | | | 주제 | 중심내용 |
|---|---|---|---|---|
| 1 | THANK YOU LORD! | | 경이와 감사 |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가족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을 선물을 내어주셨습니다. |
| 2 | THE LOVE OF GOD | | 자연<br>경이와 감사<br>사랑 |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고 넓고 위대한 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
| 3 | I CAN DO ALL THINGS! | | 지혜와 용기<br>책임 |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
| 4 | NOAH | | 순종/성실 |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순종하겠습니다. |
| 5 | MY DAD | | 고치시는 하나님<br>장난감 | 아빠가 무엇이든 고쳐주고 내 상한 맘도 위로해주듯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
| 6 | NO MATTER WHAT | | 용납/자존감 |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십니다. |

# Set 4

| 수업 차 시 및 제목 | | | 주제 | 중심내용 |
|---|---|---|---|---|
| 7 | THE DAYS | | 일상의 감사 | 주님 은혜 안에서라면 어떤 날이든 매일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
| 8 | MR WOLF | | 지혜와 용기 |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릴 유혹하고 힘들게 해도 우린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
| 9 | CHURCHES | | 소명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상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
| 10 | ELOHIM | | 경배와 찬양 |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로 주님 찬양합니다. |
| 11 | WHO WILL HELP ME? | | 섬김과 나눔 순종 |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어디든 듣고 따르겠습니다. |
| 12 | I WONT GIVE UP! | | 인내와 성실 |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인내와 성실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기획>

**1.**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크리스천 신앙과 성품을 위한 영어테마동화, 아태장신대 스페셜미와 함께합니다.

•아이의 지식과 정서, 언어교육을 아우를 명품 영어 그림 동화들과 함께합니다.

•아동과 엄마가 함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듣는 스토리텔링의 장을 마련합니다.

•교육적 기대가 높은 21세기, 지역사회 전도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합니다.

•교육 콘텐츠가 절실한 선교지에 교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2. 프로그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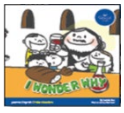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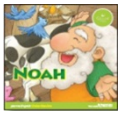
•필리핀 리얼 섬머 기간인 4월, 학교의 방학기간에 본 summer camp를 실시한다. (총4주)

•토요학교 학기는 3~5월, 9~11월 2년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총4학기)

•대상연령은 5세~초등 저학년 아동

•한학기 동안 아이들은 동화책 6권을 교재로 사용한다. (summer camp의 경우 1주 기준)

•시간은 오전 10시30분~ 오후 12시 30분

| 1주(1학기) | 2주(2학기) | 3주(3학기) | 4주(4학기) |
|---|---|---|---|
| | | | |
| |  |  | |
| | | | |

| | Session 1 | Session 2 | Session 3 | Session 4 |
|---|---|---|---|---|
| 1주 | 참 좋았더라 | 주님 환영해요 | 하나님의 사랑은... | 난 즐거워요 |
| 2주 | 축하해요! | 주님이 최고에요 | 가장 좋은 선물 | 난 행복해요 |
| 3주 | 난 특별해요 | 용기를 내세요 | 멋진 세상 | 조심할래요 |
| 4주 | 신기하고 놀라워요 | 나도 할 수 있어요 | 하나님 최고 | 안돼! |
| 5주 | 난 소중해요 | 왜 그러셨을까? | 날 할 수 있어요 | 우린 한 가족 |
| 6주 | 하나님의 소원 | 이만큼 사랑하셨대요 | 예수님이 힘 주세요 | 모두 소중해요 |
| 7주 | 하나님은 날 사랑해요 | 주님은 왕이세요 | 네. 그럴게요 | 주님은 나의 힘 |
| 8주 | 하나님 날 돌보세요. | 주님 찬양해요 | 똑딱! 똑딱! | 주님은 내 목자 |
| 9주 | 하나님은 날 찾으세요 | 아니야! 라고 말해요 | 괜찮아! | 나 여기 있어요! |
| 10주 |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 저리가! 라고 말해요 | 잘 될 거야! | 내가 할래요! |
| 11주 | 모두 오라세요 | 내 마음 한 가운데 | 고쳐주세요! | 언제까지나 |
| 12주 | 주님 품에서 쉬라세요 | 주님 사랑해요 | 하나님이 해주세요 | 모두 화이팅! |

**3. 교육 목표**

•세상의 빛이 되어줄 21세기 글로벌 일꾼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준다.

•일생에 유산이 될 “복음” 이야기를 그림동화와 노래로 만나게 해준다.

•기독교 교육과 영어 교육이 함께 가는 통합 교육 모델을 마련해준다.

**4.모집인원 및 교육비**

•권장 인원: 아동 20~30명 (부모 포함 4~60명)

•권장참가비용: 학기당 12만원(교재비+가방+뱃지+수업자료비+간식비)
개인구매품: 동화6권(CD2장포함) 38,000원 +활동북1권(5,000원)+
가방과 뱃지(5,500원)=총48,500원

(본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시행 주변 지역은 빈민층,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대부분/ 따라서 교육비의 70%는 선교 비용으로 충당. 나머지 30%만 참가비용의 받음)

**5.시간표(일일 80분수업)**

<table>
<tr><th colspan="2">내용</th><th>시간</th><th>수업<br>형태</th></tr>
<tr><td colspan="2">①체조/찬양과 율동</td><td>15 분</td><td rowspan="4">전체<br>활동</td></tr>
<tr><td colspan="2">②예배(테마설교)</td><td>3 분</td></tr>
<tr><td>첫째날</td><td>둘째날</td><td rowspan="2">10 분</td></tr>
<tr><td>③읽어주기<br>율동배우기</td><td>③스토리텔링<br>율동과 노래</td></tr>
<tr><td colspan="2">④알파벳타임</td><td>7 분</td><td></td></tr>
<tr><td colspan="2">⑤테이블활동<br>알파벳 만들기+주제활동+간식</td><td>25 분</td><td>테이블활동</td></tr>
<tr><td colspan="2">⑥ 블랑켓 타임<br>(창작그림동화 + 메이지타임)</td><td>15 분</td><td rowspan="3">전체활동</td></tr>
<tr><td colspan="2">⑦엄마의 축복기도<br>(영어성경암송/아이축복기도)</td><td>10 분</td></tr>
<tr><td colspan="2">⑧너서리라임+축복송</td><td>5 분</td></tr>
</table>

**6.물품 및 운영예산**

| 항목 | 내용 | 예산 |
|---|---|---|
| 초도장비 | 무선 마이크 1 | |
| | 컴퓨터/프로젝터/음향시설/스크린 | |
| | 테이블 2 개, 책 넣어둘 바구니 2~3 개(자율도서용) | |
| | 이젤(책세우기용), 책받침, 융판 | |
| | 아동용 좌식테이블(수강자 수에 맞추어) | |
| 초도물품 | 스페셜미 교사용 **빅북**(30x30cm) 24 권 | 792,000 원 |
| | 추천그림동화(교회비치용) | (예산범위안/자율) |
| | 스페셜미 앞치마 (약 5 개) | 100,000 원 |
| | 아동용 초도물품(개인바구니/이름표/색연필/풀/가위) | 100,000 원 |
| 광고비 | x 배너 2 개+플래카드(placard)2 | 150,000 원 |
| | 팜플랫/전단지(1 천장) | 100,000 원 |

## 7. 필요인원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책임자와 담당자(교회에서 할 경우 교역자와 부장)

•강사(담당사역자 또는 외부 강사).

•진행교사 (5~10명): 담임교사 외 간식/촬영/화면과 음향담당

•총무/회계/관리교사 필요: 예산 집행, 출석 및 교적 관리, 행정 자료 정리, 원서 접수

## 8. 정규교사모임

•스토리 해설 및 메시지 공유

•영어노래와 율동 익히기

•만들기 자료 사전 작업 등

## 9.수업 순서별로 정리한 최종 준비물 채크리스트

| | 항목 | 준비물/준비할내용 | 확인란 | 담당자 |
|---|---|---|---|---|
| 1 | 설비 | 잭+컴퓨터점검 | | |
| | | 프로젝터 연결상태 | | |
| | | 음향연결상태 | | |
| | | 마이크+살색테이프 | | |
| | | 화면점검 | | |
| | | 비상시 시설/기물 담당자 연락처 | | |
| 2 | 교실환영/아이맞이 | 온도 | | |
| | | 청소상태 | | |
| | | 테이블/테이블보 | | |
| | | 신발정리 | | |
| | | 앞치마 | | |
| | | 이름표(선생님/아이들) | | |
| | | 출석부 | | |
| | | 볼펜 | | |
| | | 가정통신문 | | |
| | | 수업 바구니 내용물점검 | | |

| | | | | |
|---|---|---|---|---|
| | | (워크북, 가위, 풀, 기타자료) | | |
| | | 간식 | | |
| 3 | 자율놀이<br>동화와 장난감 | 그림동화 넣을 바구니 | | |
| | | 그림동화책들 | | |
| | | 기타 장난감과 인형 | | |
| | | 바닥에 깔 카펫트 | | |
| | | | | |
| 4 | 수업용 준비물 | 테이블(좌식)+테이블보 | | |
| | | 테이블(의자용)+테이블보 | | |
| | | 융판+이젤 | | |
| | | 교사용의자 | | |
| | | 책받침 3 개 | | |
| | | 오늘의 동화들 | | |
| | | 테이블보 | | |
| | | 인형들 | | |
| | | 스케치북+마커 2 색 | | |
| | | 알파벳 실물자료 | | |
| | | 촬영용 카메라와 비디오 | | |
| 5 | 담당자배치 | 진행, 안전교사<br>(교실, 화장실 사전점검 등) | | |
| | | 환영교사 | | |
| | | 수업자료, 테이블, 환영자료설치 | | |
| | | 놀이공간담당 | | |
| | | 음향/영상/설비담당 | | |
| | | 비디오담당 | | |
| | | 수업 세팅 담당 | | |

# 아동을 위한 베이비 마사지

## 1.베이비 마사지, 이렇게 좋아요

사람에게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감각이 있고, 그 중에서도 유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촉각이다. 목욕물 온도나 분유를 타는 온도에 따라 유아가 좋고 싫음을 나타내거나, 엄마가 유아를 안고 보듬어 잠을 재운 후 이부자리에 눕히면 금세 깨어 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온도 변화, 포근함 등을 촉각으로 바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아는 촉각에 가장 민감하므로 유아와의 가장 효과적인 대화방법은 촉각을 이용한 접촉, 즉 마사지라 할 수 있다.

베이비 마사지는 전신을 고루 만지고 움직이게 하여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유아의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변비와 설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적당한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면 유아의 피부가 보다 촉촉하고 건강해진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접촉을 이용한 사랑의 전달로 유아와 엄마 모두에게 평온한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해 엔도르핀과 프로락틴의 분비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이처럼 마사지로 인한 접촉은 건강 도모와 발육 등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엄마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올바른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여 성장기의 긍정적인 교우관계 등 사회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 2. 베이비 마사지를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서 할 때

본 베이비 마사지를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서 적용할 때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모든 마사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마사지를 해야 하므로 팔, 다리, 얼굴마사지 중 하나를 택하셔서 3회 반복하시고 다음으로 배, 등,

심장 중 하나를 택하셔서 하면 된다.

**3.베이비 마사지를 배울 수 있는 곳**

프로리더 www.pro-leader.c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4.베이비 마사지 순서**

***길고 곧은 다리 만들기 (다리 & 발 마사지)**

인디언 밀킹/쥐어짜기와 비틀기/발바닥 밀킹/발가락 돌리기/발가락 스트레칭/발바닥 지압/발등 밀킹/발목 돌리기/스웨디시 밀킹/롤링

***선이 예쁜 팔 만들기 (팔 & 손 마사지)**

액와 임파밀킹/인디언밀킹/쥐어짜기와 비틀기/손바닥 밀킹/손가락 돌리기/손가락 스트레칭/손바닥 지압/손등 밀킹/손목 돌리기/스웨디시 밀킹/롤링

***예쁜 얼굴형 만들기 (얼굴 마사지)**

얼굴윤곽 밀킹/눈썹 위 세로 밀킹/눈썹 위 가로 밀킹/태양돌리기/코 밀킹/스마일 밀킹/볼 돌리기/귀 밀킹/편도임파 밀킹/얼굴윤곽 밀킹

***척추는 건강의 중심 (등 마사지)**

양손 교차 가로 밀킹/양손 함께 세로 밀킹/요배부 밀킹/둔부 밀킹/목-엉덩이 쓸어내리기/목-발 쓸어내리기/꽃그리기/빗질하기

***소화기능UP! 면역력 UP! (배마사지)**

물레방아 수장법/물레방아 소지구법/양 엄지 가로 밀킹/해와 달/I Love You/손가락 걷기

***사랑해!(가슴마사지)**

하트모양 밀킹/나비모양 밀킹/분복음양/중완 돌리기

아동을 위한 추천 영어 동요

1. **Bubble Gum**

| | |
|---|---|
| **Bubble gum, bubble gum,**<br>**In a dish!**<br>**How many bubbles**<br>**do you wish?**<br>**One, two, three, four…**<br>**Boom!** | |
| **http://www.youtube.com/watch?v=zhCIiLTIfE0** | |

2. **Head and Shoulders**

| | |
|---|---|
| **Head an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br>**Eyes and ears and mouth and nose!** | |
| **http://www.youtube.com/user/SuperSimpleSongs?v=lMQcwNZVUO8**<br>**http://www.youtube.com/watch?v=xwV-OTH9O84** | |

3. **Open Shut Them**

| | |
|---|---|
| **Open, shut them. x2**<br>**Give a little clap, clap!**<br>**Open, shut them. x2**<br>**Put them in your lap. Lap, lap.**<br>**Big and small!**<br>**Please! No, thank you!**<br>**Fast and slow!**<br>**Loud and quiet!**<br>**Peeka-boo!** | |
| **https://www.youtube.com/watch?v=RNUZBHlRH4Y** | |

4. **Shape Song**

| | |
|---|---|
| **1.Circle, triangle, square, a heart!**<br>**Can you see a circle? Yes I can.**<br>**Can you see a triangle? Yes I can.** | |
| http://www.youtube.com/watch?v=g2jdZ46nK-M | |

5. **Clap Your Hands**

| | |
|---|---|
| **Clap your hands. X2**<br>**Listen to the music and clap your hands.**<br>**Stamp your feet.**<br>**Jump up high.**<br>**Turn around.** | |
| http://www.youtube.com/watch?v=ZBjFYW_TrdM | |

6. **It's a Dog!**

| | |
|---|---|
| **It's a dog, woof, woof!**<br>**It's a cat. Meow! It's a cat. Meow!**<br>**Ba-ba-ba-ba-ba..**<br>**2. It's a bird. Chirp, chirp!**<br>**It's a snake. Sssss!**<br>**3. It's a rabbit. Hop, hop!**<br>**It's a fish. Swim!** | |
| http://www.youtube.com/watch?v=rN6cpE81hjU | |

7. **Rolly Polly**

| | |
|---|---|
| **1.Rolly polly, rolly polly**<br>**Up, up, up! (Down, down, down!)**<br>**2.Rolly polly, rolly polly**<br>**In, in, in! (Out, out, out!)**<br>**3.Rolly polly, rolly polly**<br>**To you right side! To you left side!** | |
| **http://www.youtube.com/watch?v=thtmw-KAr3E** | |

8. **There was a Crocodile!**

| | |
|---|---|
| **There was a crocodile, an orangutan,**<br>**a flying eagle, and a silvery fish.**<br>**A bunny, a beaver,**<br>**a crazy elephant!**<br>**Nah nah nah nah nah nah, nah!** | |
| **http://www.youtube.com/watch?v=AurNPX3XHxw** | |

9. **Eency Weency Spider**

| | |
|---|---|
| **Eency weency spider went up the water spout.**<br>**Down came the rain and**<br>**washed the spider out.**<br>**Out came the sun and it dried up all the rain**<br>**So the eency weency spider**<br>**went up the spout again.**<br><br>**-Great big spider -Teeny tiny spider** | |
| **http://www.youtube.com/watch?v=-GggaglCr2Y** | |

**10. Five Little Ducks**

| | |
|---|---|
| **Five little ducks went out one day.**<br>**Over the hill and far away!**<br>**Mama duck called quack, quack, quack!**<br>**But only four little ducks came back!**<br>**Three-two-one-none of five**<br>***Sad mother duck went out one day!**<br>***And all of the five little ducks came back!** | |
| **https://www.youtube.com/watch?v=FG6GXdUOR_Y** | |

**11. Two Little Black Birds**

| | |
|---|---|
| **Two little back birds sitting on a hill.**<br>**One named Jack and the other named Jill.**<br>**Fly away Jack, fly away Jill.**<br>**Come back Jack, come back Jill.**<br>**slow-fast, high-low, quiet-loud** | |
| **http://www.youtube.com/watch?v=SdbQqH_IVvY** | |

**12. Flitter, Flatter, Butterfly**

| | |
|---|---|
| **Flitter flatter, butterfly!**<br>**Flying in the big blue sky!**<br>**Flutter high and flutter low!**<br>**Flutter fast and flutter slow!**<br>**Flitter flatter, butterfly!**<br>**Flying in the big blue sky!** | |
| **http://www.youtube.com/watch?v=WJKho0KS0aM** | |

### 13. Roll Your Hands

| | |
|---|---|
| **Shake them x2 just like this!**<br>**And roll your hands!**<br>**Wiggle them x2 just like this!**<br>**And roll your hands!**<br>**Clap them x2 just like this!**<br>**And roll your hands!**<br>**I like to move! x2** | |
| **http://www.youtube.com/watch?v=EAPmy1SxDdQ** | |

### 14. Walking, Walking

| | |
|---|---|
| **1. Walking walking x2**<br>**Hop, hop, hop! X2**<br>**Running running, running x2**<br>**Now let's stop! x2**<br>**2. Shaking-clap-turn**<br>**3. Tip, toe-stomp-swimming** | |
| **http://www.youtube.com/watch?v=cxnNj9ZSiVo** | |

### 15. Ten Little Indian Boys

| | |
|---|---|
| **One little, two, three little Indians**<br>**Four little, five little, six little Indians**<br>**seven little, eight little, nine little Indians**<br>**Ten little Indian boys!** | |
| **http://www.youtube.com/watch?v=urdg94V7NLE** | |

프로그램 진행 콘티

**1. 스토리 읽어주기 (1차시)**

**스페셜미 읽어주기 순서와 팁**

**준비:**

①읽기 전에 내용 검토/오디오 여러 번 듣기/율동 외우기

②읽어주기 연습한다.

**읽기전 활동:**

**먼저 의자에 앉아 동화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스토리타임~" 이라고 함께 외치게 한다.**

①책을 뒷면까지 보이게 펼쳐 든다.

②책 제목을 먼저 읽어준다.

③제목과 관련된 주제 대화를 한다.

④커버를 보고 주인공(who), 배경(where)을 묻고 무슨 일(what)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본다.

⑤책 안을 살짝 들여다본다.

**읽어주기:**

①시작은 에너지를 더 모아 집중해서 한다.

②문장이 끝난 후엔 쉬었다 읽어주기

③읽으면서 생각 표현하기

④적절히 다음을 예측해볼 질문도 하기

⑤끝은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기

**2. 스토리 텔링 (2차시)**

**"스토리타임~"** 이라고 외치게 한다.

그림카드를 융판에 혹은 하드스틱을 붙여 손인형극 형태로 스토리를 재현한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직접 책을 펼쳐보게 하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finger reading을 하도록 하여 함께 읽어본다.

### 3. 노래와 율동

스토리를 읽고 나선 스페셜미 율동을 배워보고 애니메이션을 보며 함께 찬양한다.

- 스페셜미 율동은 영상 애니메이션에 들었다.
- 교사들은 미리 보고 좌우를 잘 맞추어 미리 율동 연습을 한다.
- 수업시간에 가능한 한 율동 없는 영상을 틀어준다.
- 음향은 최대한 살려 분위기를 살린다.
- 부모가 율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 4. 알파벳 타임

준비물:

알파벳 실물상자/알파벳 관련 실물자료/스케치북과 마커/테이블(실문전시용)

알파벳 실물자료들은 재활용 물건들을 통해 준비하고 지퍼백에 알파벳 별로 모아둔다.

알파벳 타임의 활동은 테이블 활동에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아이들은 수업중 알파벳 활동을 해보고 집에서도 연계하여 '이 중의 알파벳'으로 활용하도록 종용한다.

① "알파벳 타임" 이라고 외치게 한다.

② 알파벳 송을 불러본다.

③ 오늘의 알파벳을 말해주고 스케치북에 천천히 크게 써준다.

④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공중에 들어 따라 써보게 한다.

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말해주면서 상자에서 실물자료를 하나씩 꺼내준다. 예: B, b, b, bear! 하면서 곰을 꺼내본다.

⑥ 아동을 참여시켜 상자에서 하나 꺼내보게 한다.

⑦ 오늘의 간식도 가능한 한 알파벳에 맞추어 준비하고 (예:바나나) 관련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먹거리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게 한다.

⑧ 모음으로 시작되는 끝소리) 을 들려줄 때에는 끝소리가 같은

(예: bear/pear 등) 단어들을 묶어 라임소리를 들어보게 해준다.

### 차시별 알파벳 및 샘플 단어 (Session 1)

| 주 | SESSION 1 | 알파벳 | 실물 알파벳 자료 |
|---|---|---|---|
| 1주 | In the beginning | Bb | bird, bee, bear, ball, boat, box, bell, bubble, balloon, Bible |
| 2주 | In the beginning | 라임 | moon-spoon, sun-bun, fish-dish |
| 3주 | I'm so special | Ss | sun, sock, seal, snail, slipper, stocking, snake, swan, spider, Samson |
| 4주 | I'm so special | 라임 | bee-tree, ant-plant, frog-dog |
| 5주 | I have my eyes | Hh | head, hat, horse, house, hippo, hare, hen, hamster, hosanna |
| 6주 | I have my eyes | 라임 | head-bed, ear-deer, nose-rose |
| 7주 | Mommy | Mm | mom, mouse, moon, milk, monkey, monster, mop, mug, Moses |
| 8주 | Mommy | 라임 | pray-hay, hug-bug, hungry-angry |
| 9주 | The king is coming! | Kk | kite, kiss, kangaroo, koala, kiwi, King |
| 10주 | The King is Coming! | 라임 | bus-plus, boat-boat, donkey-monkey |
| 11주 | Let them come! | Cc | cat, cow, corn, cup, cap, crocodile, cross |
| 12주 | Let them come! | 라임 | sad-glad, weak-beak, children-run |

## 차시별 알파벳 및 샘플 단어 (Session 2)

| 주 | SESSION 1 | 알파벳 | 실물 알파벳 자료 |
|---|---|---|---|
| **1주** | Here They Come! | Pp | pig, penguin, pineapple, peach, pizza, **peace** |
| **2주** | Here They Come! | 라임 | pig-wig, dog-frog, duck-truck |
| **3주** | Be Cheerful! | Gg | goat, gorilla, grasshopper, girl, grandma, grandpa, **grapes** |
| **4주** | Be Cheerful! | 라임 | pig-wig, dog-frog, duck-truck |
| **5주** | I Wonder Why | Vv | violin, vest, vet, van, vase, **vine** |
| **6주** | I Wonder Why | 라임 | wine-pine, bread-head, town-crown |
| **7주** | To the King of Kings | Jj | jump, jeep, jam, jacket, jug, jet, **Jesus** |
| **8주** | To the King of Kings | 라임 | king-ring, hand-band, light-bite |
| **9주** | If | Ii | igloo, Indian, ice, ice cream, island, **Israel** |
| **10주** | If | 라임 | knock-sock, scare-hare, bed-red |
| **11주** | Right in the Middle | Ff | frog, flower, fan, fish, fox, flag |
| **12주** | Right in the Middle | 라임 | frog-log, fish-dish, fox-box, bug-rug |

## 차시별 알파벳 및 샘플 단어 (Session 3)

| 주 | SESSION 1 | 알파벳 | 실물 알파벳 자료 |
|---|---|---|---|
| 1주 | Thank You Lord | st | **star**, stool, stamp, stocking, stick<br>라임: star-car |
| 2주 | Thank You Lord | fl | flower, flag, flounder, fly<br>라임:flower-shower |
| 3주 | The Love of God | Oo | ocean, orange, ostrich, octopus, orangutan<br>라임:octopus-bus |
| 4주 | The Love of God | Dd | duck, dog, dolphin, dinosaur, donkey,<br>dragon, doll 라임:dog-frog |
| 5주 | I Can Do All Things | Tt | table, truck, toad, tricycle, tractor, train<br>라임:table-cable |
| 6주 | I Can Do All Things | Xx | fix, mix, ox, ax, six, fox, box<br>라임:fix-mix |
| 7주 | Noah | Ww | window, watch, wolf, worm, web, wig,<br>wand, well, witch 라임: window-shadow |
| 8주 | Noah | Hh | **hippo, house, horse, hamster, hare, hut, hat, hosanna** 라임:house-mouse |
| 9주 | No Matter What | gr | grumpy, grasshopper, grandma, grandpa,<br>grapes, 라임: grapes-tapes |
| 10주 | No Matter What | pr | prize, print, princess, prince, **pray**<br>라임: pray-hay |
| 11주 | My Dad | Zz | zebra, zoo, zero, zipper<br>라임: zebra-cobra |
| 12주 | My Dad | Rr | robot, roller-skate, rooster, robot<br>라임: robot-spot |

## 차시별 알파벳 및 샘플 단어 (Session 4)

| 주 | SESSION 1 | 알파벳 | 실물 알파벳 자료 |
|---|---|---|---|
| **1주** | **The Days** | fr | Frog, fruit, friend, Frisbee<br>라임:frog-log |
| **2주** | **The Days** | th | Thumb, thief, thorn, thunder<br>라임:thorn-horn |
| **3주** | **Mr. Wolf** | Ll | lizard, ladder, lion, lemon, lamp, lobster, leopard<br>라임:lizard-card |
| **4주** | **Mr. Wolf** | Gg | **goat, goose, gorilla, gate, gum, grasshopper** 라임:gorilla-koala |
| **5주** | **Churches** | ch | church, chair, chopsticks, chicken, chalk, cheese 라임: chair-hair |
| **6주** | **Churches** | nt | tent, cent, plant, hunt<br>라임:plant-ant |
| **7주** | **Elohim!** | Ee | elephant, elf, elevator, egg,<br>라임:elf-shelf |
| **8주** | **Churches** | Vv | victory, violin, vase, van, vet, vest<br>라임: van-fan |
| **9주** | **Who Will Help Me?** | bl | blow, blouse, block, blanket, black, blue 라임: blow-bow |
| **10주** | **Who Will Help Me?** | cr | **cross**, crayon, crab, crown, cream, crackers 라임:crown-clown |
| **11주** | **I won't Give It Up!** | Mm | march, monkey, mug, mole<br>map, monster, moon 라임:mole-hole |
| **12주** | **I won't Give It Up!** | cl | climb, clock, cloud, clown, clip<br>라임:clock-sock |

5. 테이블 타임

**※언어활동과 주제활동을 담을 워크북은 별도 제공함**

② 알파벳 타임이 끝나고 나면 “테이블 타임” 하고 함께 외치게 합니다.

② 좌식 테이블 위에 아이들 개인 학습용 바구니를 나누어 줍니다.
(바구니 안에는 오늘의 워크북, 크레용, 가위, 풀 등을 넣어둡니다.)

③ 알파벳 활동:
- 먼저 오늘의 워크북을 풀어봅니다.

- 집에서도 이주의 알파벳에 집중하여 놀이로 이어지게 종용합니다.

④ 주제 활동: 오늘의 주제와 연결된 주제활동(만들기, 그리기 등)을 합니다.

⑤ 간식: 오늘의 간식 감사기도를 드리고 간식을 나눕니다.
-먼저 테이블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하고 물수건을 주어 손을 씻도록 합니다.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 좋은 간식을 준비합니다.
(알파벳 활동과 연결된 간식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예: B를 배운 날엔 바나나 주기 등)

-간식을 먹는 동안 중요한 광고나 크리스천 육아를 위한 교육 정보전달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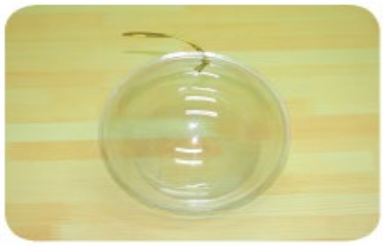
## 6. 주제 활동

1-1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봐요.

준비물: 반구, 본드/시트실, 실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한쪽반구윗부분에구멍을내어손잡이를 만들고 끼워 넣는다.



3 반구 두 개를 본드로 붙인다.

4 잘라놓은 시트지로 꾸며서 완성시킨다.

1-2 **I am so special!** 하나님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나도요~

준비물: 거울종이, 하드보드지, 스틱, 반짝이, 목공풀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별모양으로잘라놓은하드보드지위에 둥그랗게자른거울지를가운데에붙인다. 손잡이가있도록밑에스틱을연결한다.

3 거울지를붙이고나머지하드보드지부분을 목공풀로 칠한다.

4 반짝이로 꾸며서 완성시킨다.

1-3 I have my eyes 우리의 눈을 특별한 것을 보라고 주셨어요.

준비물: 휴지심, 테이프, 반짝이, 풀, 가위, 실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휴지심2개를시드지로전체를붙인다.

3 휴지심2개를글루건으로붙이고,목에 걸 수 있는 길이 만큼의 줄을 연결한다

4 스티커로겉을꾸며서망원경을완성시킨다.

1-4 Mommy 엄마의 사랑은 놀라워요.

준비물: 가제수건, 염색물감, 스폰지, 글자 본, OHP 필름, 칼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I ♥ mom 본을 OHP필름과 겹쳐서 스테이플러로 고정한 후 칼로 도려낸다 (Mom에서 o는 그림과 같이 잘라낸다.

3 가제수건 위에 칼로 도려낸 본을 올려놓고 집게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스폰지에 염색물감을 묻혀서 찍는다.

4 완성

1-5 The King is coming! 우리에게 오신 왕, 예수님을 생각해요.

준비물: 노랑 골판지, 천방울, 반짝이 등 장식, 풀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노란색골판지를그림과같이왕관모양으로자른다. 자른왕관을통그랗게왕관모양으로둘러서테이프로머리둘레에맞게 고정 시킨다.

3 뽕뽕이와반짝이뒤에양면테이프를붙인 후 왕관에 붙여서 꾸민다.

4 잘라놓은 시트지로 꾸며서 완성시킨다.

1-6 Let them come! 주님이 우릴 부르세요. 준비물: OHP 필름, 테이프, 색깔펜, 피리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OHP필름을그림과같이부채꼴로자른다. 자른OHP필름에색깔네임펜으로예쁘게 꾸민 후 피리를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3 피리를고정한OHP필름을말아서테이프로 붙여 나팔을 완성시킨다.

4 완성시킨 후 불어본다.

2-1 HERE THEY COME! 미니북을 만들어요.(유인물에 색칠하고 잘라 접어보세요.)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가운데부분에칼집을내서그림과같이 접어 미니북을 만든다.

3 동물들을잘라서각각의페이지에맞게 붙인다.

4 동물들을 색칠해서 완성시킨다.

2-2 BE CHEERFUL!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준비물: 신문지 5장, 색테이프, 칼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신문지5장을겹쳐서돌돌말아서가운데(손잡이가될부분)를색깔테이프로고정시켜양쪽끝을칼집을낸다.(1.5-2cm간격으로 칼집을 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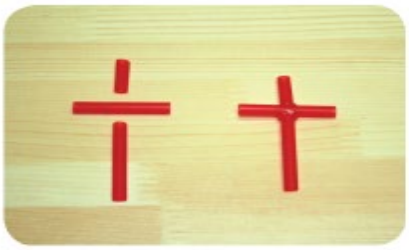
3 바깥부분부터 안 쪽 순서대로 찢는다.

4 완성

2-3 I WONDER WHY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준비물: 빨대, 낚시줄, 비트, 글루건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빨대를5cm크기2개,2cm크기1개를잘라서글루건으로십자가모양을만든다.

3 낚시줄 끝을 빠지지 않게 비드 한 개를 묶어서고정하고가운데에십자가가오도록여러가지비드를끼워서목걸이줄을 꾸민다.

4 완성

2-4 TO THE KING 나도 주님 찬양할래요

준비물: 팝콘, 뻥튀기, 장갑, 나무 젓가락, 색테이프, 양면테이프, 고무줄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나무젓가락2개를색깔테이프로감는다. 양쪽입회용장갑에튀겨낸팝콘을채운다.(손가락부분에넣을때,팝콘을잘게부수어서넣는다.) 채우고난후끝을고무줄로 고정시킨다.

3 그림과같이나무젓가락을장갑뒤쪽에 가운데손가락길이만큼올라오게놓고 양면테이프로 고정 시킨다.

4 완성 (스토리를 들으면서 clap, rub, wave, etc. 해본다.)필요하면비닐장갑과나무젓가락을남은모루로한번더 고정 시킨다.

2-5 IF... 늑대와 주인공이 되어 나도 이야기해볼래요.

준비물: 샌드위치 봉투 2개, 그림본, 풀, 색연필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늑대와아이본을잘라서색칠하고,종이봉투밑부분에늑대얼굴과아이얼굴을각각의 봉투에 풀로 붙인다.

3 늑대의입부분과아이의몸부분을붙인다.

4 완성된 아이가 늑대를 가리키면서 "Goawaybigbadwolf!"라고외친다.

2-6 RIGHT IN THE MIDDLE 우리 맘 한 가운데 있는 주님 사랑 표현해요.

준비물: 하드보드, 칼, 모루, 뽕뽕이, 내사진, 목공풀, 글루건

1 필요한 재료를 그림과 같이 준비한다.

2 하드보드지를하트모양으로자르고하트 둘레는글루건을이용해모루로두른다. 윗 부분에 손잡이를 만들어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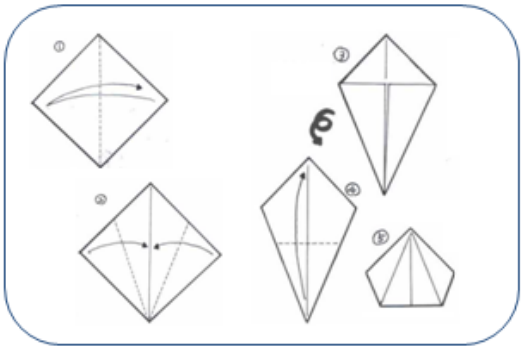
3 목공풀로하트전체를바른후가운데에 사진을 붙인다.

4 나머지부분을뽕뽕이로꾸며서완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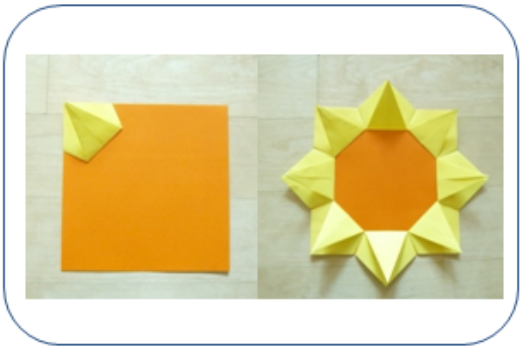
3-1 THANK YOU LORD

주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얼굴 해바라기를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노란색 색종이(4등분*8장), 주황색/초록색 색종이 1장씩, 인형 눈 2개, 뽕뽕이 1개, 모루 약간, 빨대 1개, 초록색 테이프, 스케치북, 풀, 스카치테이프, 가위



① 노란색 색종이로 접기 기호를 참고하여 해바라기 꽃잎 8장을 접는다.



② 주황색 색종이 위에 접어놓은 해바라기 꽃잎을 그림처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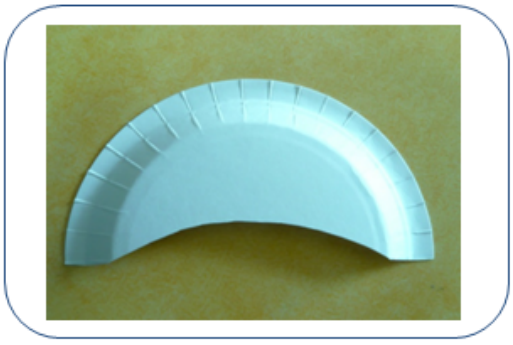
③ 해바라기 얼굴을 꾸미고 빨대에 초록색 테이프를 돌돌 말아 붙여 줄기를 만든 후 스케치북에 붙인다.

④ 초록색 색종이를 나뭇잎 모양으로 오려 붙여 얼굴 해바라기를 완성한다.

3-2 THE LOVE OF GOD

무지개 모빌을 만들어보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아요.

준비물: 종이 접시, 색종이, A4 용지, 풀, 알루미늄 호일, 펀치, 끈 약간



① 종이 접시를 반으로 자른 다음 아치 형태가 되도록 잘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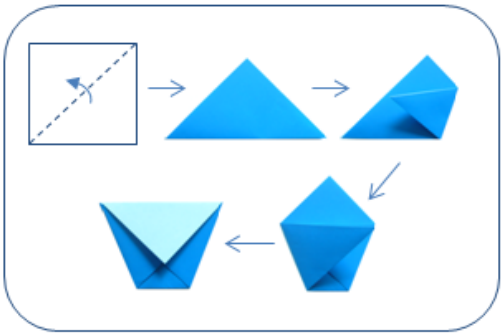
② 색종이를 하나씩 들고 색깔 이름을 말해본 다음, 길게 찢어 종이 접시 위에 무지개 형태로 붙인다.

③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 맘껏 구겨서 구름을 만든 다음 무지개에 붙인다. 펀치로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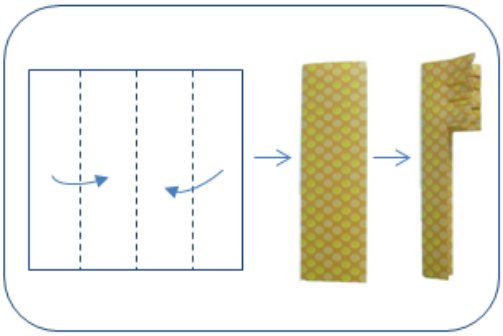
④ 알루미늄 호일을 잘라 붙여 비 오는 장면을 표현하면 더 멋진 무지개 모빌을 완성할 수 있다.

양치도구를 만들어 양치하는 행동을 해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져요.

준비물: 색종이, 8절지 도화지(또는 스케치북), 색연필(또는 크레용), 풀, 가위



① 접기 기호를 참고하여 종이컵을 접는다. 만든 종이 컵의 아랫부분을 누르면 입체감 있는 종이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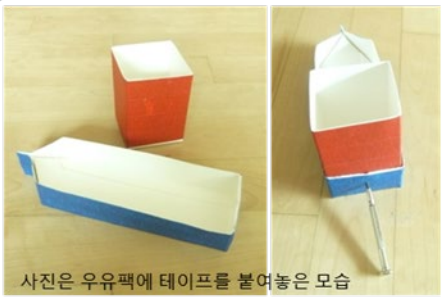
② 접기 기호대로 색종이를 접는다. 칫솔모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구분하여 자른다. 아래 부분은 안쪽으로 접어 손잡이를 만들고 윗부분은 가위로 잘라 칫솔모를 만든다.

③ 종이 접기로 만든 컵을 도화지에 붙이고 컵 안에 칫솔을 꽂는다. 아이가 연결 그림을 그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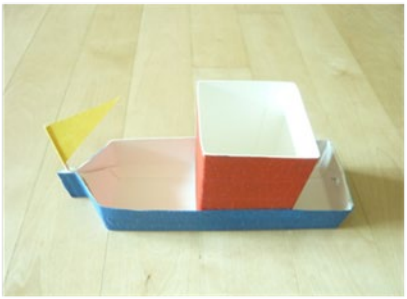
④ 아이가 칫솔을 들고 양치질 하는 행동을 해 보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배를 만들어 물에 띄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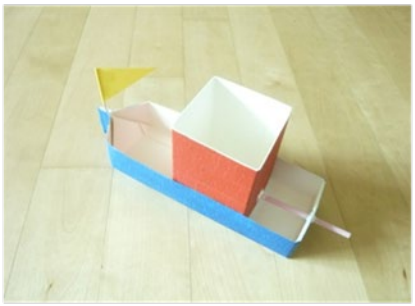
준비물: 우유팩 1000ml 2개, 송곳, 빨대 반 개, 색종이, 이쑤시개 1개, 본드




① 그림과 같이 우유팩을 자르고 뒤쪽에 구멍을 뚫어 놓는다.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자른다.)



② 색종이와 이쑤시개로 삼각 깃발을 만들어 꽂는다. 본드로 우유팩 하나를 그림처럼 단단하게 붙여 갑판실을 만든다.



③ 뚫어 놓은 구멍에 빨대를 꽂고 본드로 구멍 틈을 확실하게 막아준다.

④ 빨대 끝을 손가락으로 막고 갑판실에 물을 1/3 정도 채운 후 물 위에 띄우고 손을 떼면 보트가 움직인다.

주님은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토리에서 보았던 햄버거를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노랑/빨강 색지, 다양한 색깔의 화선지와 색종이, 스케치북(또는 8절지 도화지), 풀, 가위

① 도화지에 노란 색지를 오려 햄버거 아랫부분을 표현한다.

② 햄버거 안에 무엇을 넣고 싶은지 말해보고, 그 색깔에 맞는 화선지(색종이)를 오리거나 구겨서 붙인다. 핑킹 가위를 사용하면 훨씬 멋진 모양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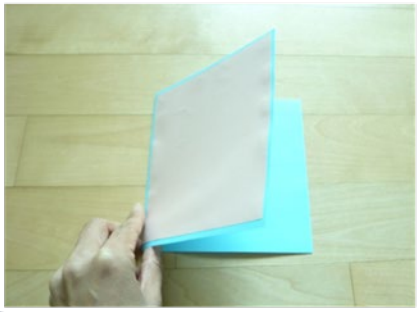
③ 햄버거 안에 넣고 싶은 것들을 좀 더 붙인 다음, 노란 색지를 잘라 맨 위에 붙인다.

④ 오렌지색 화선지(색종이)를 잘게 잘라 구겨서 그림 같이 붙이고 햄버거를 완성한다.

3-6 MY DA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 주시는 아빠께 멋진 카드를 선물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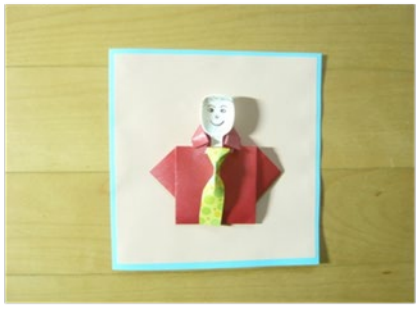
준비물: 색종이, 색지, 요플레 플라스틱 스푼 1개, 풀, 유성 싸인펜, 색연필



① 색지와 색종이를 이용하여 카드 형태를 만든다.
(색종이 크기 기준으로 색지를 자르면 적당함)

② 카드 안쪽에 아이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게 한다. 왼쪽 페이지를 꾸며도 좋다.

③ 색종이로 와이셔츠를 접고, 종이를 적당히 잘라 만든 넥타이와 함께 붙인다. (와이셔츠 접기는 p7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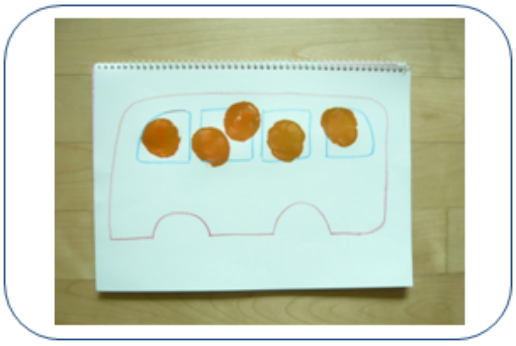


④ 플라스틱 스푼에 아빠 얼굴을 그리고 와이셔츠에 꽂아 완성한 다음 아빠에게 드린다.

멋진 하루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버스를 타고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해보아요.

준비물: 스케치북, 물감, 타원형으로 오려 놓은 스펀지, 색연필, 검은색/회색 색종이, 풀, 가위

① 도화지 위에 색연필로 위와 같은 버스 형태의 그림을 크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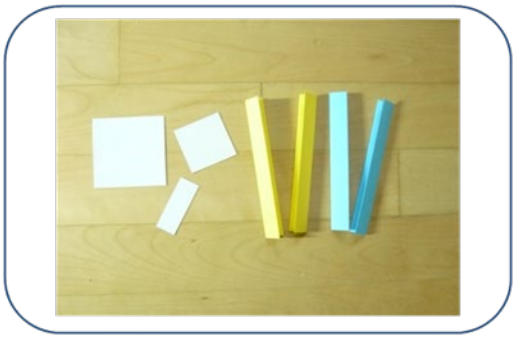
② 핑크색과 밝은 밤색 물감을 섞은 다음 스펀지에 찍어 위의 그림처럼 창문 안에 찍는다.

③ 물감이 마른 후, 재미있는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그려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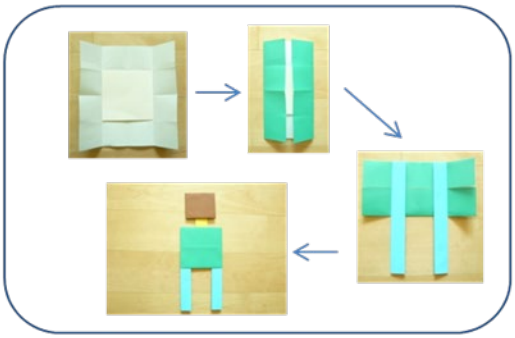
④ 색종이를 이용하여 바퀴를 추가하고, 원하는 대로 버스를 꾸며 완성한다.

늑대가 스토리에서 무엇으로 주인공을 유혹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중의 하나인 로봇을 만들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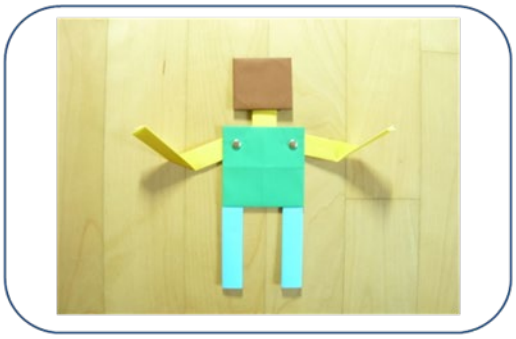
준비물: 두꺼운 종이(색종이의 ¼, 1/9 크기 하나씩, 가늘게 하나), 색종이, 할핀 2개, 풀, 인형 눈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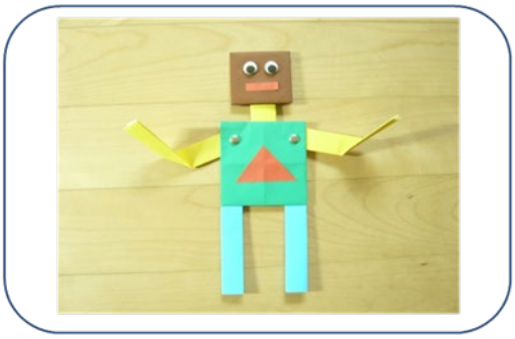
① 두꺼운 종이를 준비물에 있는 대로 오려 놓는다.
색종이 두 장을 반으로 잘라 각각 두 번씩 접어 다리와 팔을 만든다.



② 그림과 같이 몸통(머리, 목)에 해당하는 두꺼운 종이를 색종이 위에 놓고 적당히 접어준다. 색종이를 붙일 때 다리와 목을 안쪽에 붙여주어 깔끔하게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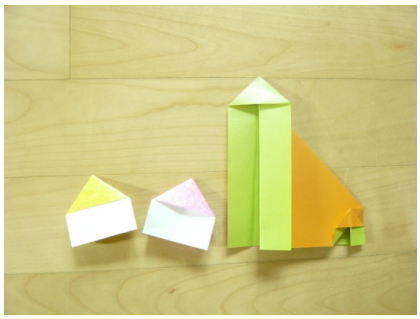
③ 할핀으로 몸통에 팔을 연결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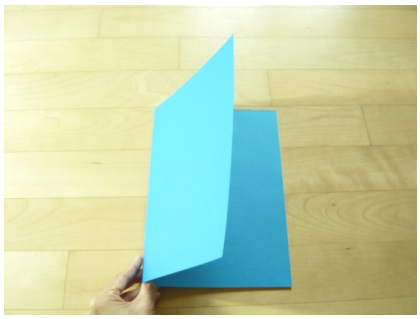
④ 얼굴과 몸통을 꾸며 로봇을 완성한다.

하나님의 소중한 몸인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의 모습이 담긴 카드를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색상지(8절지 크기), 색종이, 풀, 반짝이풀, 은색 색연필



① 교회 접는 방법(p71)을 참고하여 색종이로 교회를 접는다.



② 색상지를 반으로 접어 카드 형태를 만든다.

③ 카드 겉면에 접어 놓은 교회를 붙이고 반짝이 풀이나 은색 색연필을 이용하여 꾸민다.

④ 카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 결정하고 원하는 단어를 적어 넣는다.
(예: Merry Christmas, Thank You!)

주님을 왜 우리의 목자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고 신문지를 활용하여 양을 꾸며보아요.

준비물: 스케치북(또는 8절지 도화지), 색연필(또는 크레용), 신문지, 가위, 풀

① 도화지 가운데에 커다랗게 양을 한 마리 그린 후, 얼굴 부분을 색칠한다.

② 양이 들판에 있는 것처럼 주변 풍경을 그려 넣는다.

③ 신문지를 돌돌 말아준다. 중간 중간, 그리고 끝부분에 풀칠하여 단단하게 만들고 그림처럼 잘라준다.

④ 잘라놓은 신문지를 양의 몸통에 붙여 작품을 완성한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등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 보고 음식 중의 하나인 옥수수를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신문지(또는 잡지), 스카치 테이프, 노란색 화선지 1장, 목공 풀, 노란색 뽕뽕이, 초록색 펠트지

① 신문지(잡지)를 그림과 같이 구겨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

② 노란색 화선지로 그림처럼 감싸준다. 중간 중간 풀을 사용하여 붙여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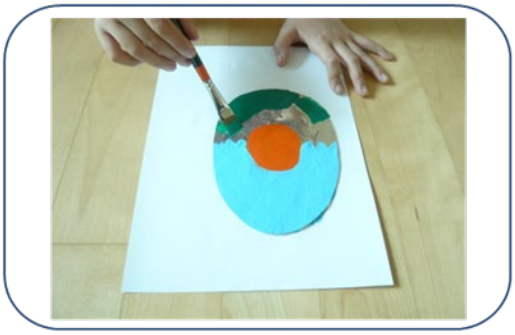
③ 목공 풀을 못 쓰는 종이 위에 짜 놓고 뽕뽕이에 조금씩 묻혀 화선지 위에 붙인다.

④ 초록색 펠트지를 나뭇잎 모양으로 자른 후 그림처럼 붙여 옥수수를 완성한다.

여러 가지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넣은 알루미늄 호일 달걀을 만들어보아요.

준비물: 8절지 두꺼운 종이 1장, 알루미늄 호일, 가위, 포스터물감, 붓, 면봉, 신문지나 이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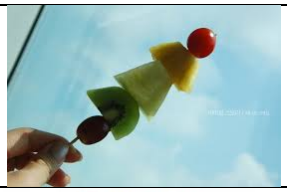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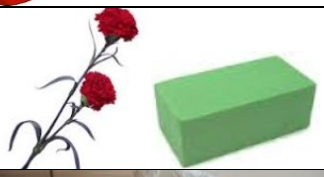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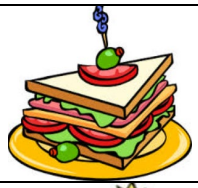
① 두꺼운 종이를 다양한 크기의 달걀 모양으로 오리고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하듯이 감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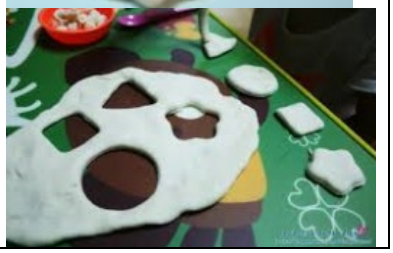


② 신문지나 이면지 위에 알루미늄 호일 달걀을 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색을 칠하게 한다.

③ 물감이 마르기 전에 면봉의 끝을 이용하여 좋아하는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다.

④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알루미늄 호일 달걀을 꾸며본다.

| | 제목 | 준비물 | | |
|---|---|---|---|---|
| 1 | 꼬치 만들기 | 썰어 놓은 과일과 키위, 딸기+꼬치용스틱 | 과일을 미리 조각 내주어. 아동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끼워보게 한다. |  |
| 2 | 목걸이 만들기 | 신발끈, 동그라미 고리(과자등) | 신발끈 사이에 둥근 고리를 걸어 목걸이 만들기. | |
| 3 | 빚기 | 밀가루 또는 떡반죽 떡도장 | 떡반죽 만들어 동그랗게 납작하게 해주고 아동이 그 위에 도장을 찍어보게 한다. | |
| 4 | 양말에 사탕 채우기 | 개인양말 리본용 끈 사탕 | 개인 양말에 아이가 사탕을 넣게 하고 끈으로 묶어준다. | |
| 5 | 꽂꽂이 | 스폰지 꽃 | 그룹별로 모여 꽂꽂이를 한다. |  |
| 6 | 재활용 정리해보기 | 재활용 물건들 | 재활용 물건들을 모아서 가져오게 한다. 박스를 마련해주고 아이들이 제자리에 넣어보게 한다. | |
| 7 | 샌드위치 만들기 | 샌드위치 관련자료 |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어본다. |  |
| 8 | 나무장식 하기 | 나무 2 그루 장식할 아이템 | 나무에 아이들이 만든 물건 장식 | |

| | | | | |
|---|---|---|---|---|
| 9 | 두부놀이 | 두부<br>식용색소 | 두부를 으깨 마음껏 놀게 하고 색을 입혀 반죽도 하여 그릇에 채워보게 한다. | |
| 10 | 밀가루<br>반죽놀이 | 밀가루<br>식용색소 | 밀가루 반죽을 색깔별로 미리하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유롭게 주무르고 작품도 만들어보게 한다. | |
| 11 | 쿠키<br>만들기 | 반죽<br>초코렛<br>건포도<br>찍기판 | 쿠키 반죽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모양을 찍어보고 초코렛 등도 붙여보게 한다. |  |

## 놀이활동

놀이활동은 아이들의 신체와 지능 발달뿐 아니라 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학교라는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시기이므로 엄마와 아이, 친구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면 유익할 것이다.

1. **In the Beginning - 알맞은 그림을 찾아 박스에 넣기.**

준비물: 하늘, 땅, 바다 그림이 붙여진 상자. 새, 식물, 물고기 그림이 그려진 블록 (백업 5㎝를 구입하여 칼로 잘라 블록을 만들고 그 위에 각종 새, 식물, 물고기 그림을 블록 위에 글루건으로 붙인다.)

방법:

- 그림 블록을 바닥에 섞어 놓는다.
- 아이들이 그림 블록을 골라 새는 하늘, 식물은 땅, 물고기는 바다 그림이 붙여진 상자에 담는다.

2. **I'm So Special - 이름을 부르고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기**

준비물: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쪽지, 쪽지를 넣을 상자, 종이 왕관,

방법:

- 선생님이 상자 안에 있는 쪽지 하나를 꺼내 적힌 이름을 부른다.
- 호명된 아이는 앞으로 나오고 선생님은 왕관을 씌워준다.
- 아이는 "I'm so special."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 친구를 안아주며 "You're so special."이라고 말한다.

3. **I Have My Eyes - 낙하산을 펼쳐 올리고 내리며 비누방울 잡기**

준비물: 낙하산, 비누방울

방법:

- 놀이용 낙하산을 크게 펼쳐 잡은 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낙하산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천천히 반복한다.
- 낙하산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후 비누방울을 공중으로 높이 불어 내려오는 비누방울을 손, 손가락, 발로 터뜨린다.
- 선생님은 입으로는 방울을 불고, 손가락으로 방울을 만지고, 손과 발로 방울을 터뜨린다고 제시한다.

4. **Mommy – 이불 혹은 수건 김밥말기**

준비물: 도톰한 이불 혹은 큰 수건

방법:

- 이불이나 큰 수건을 바닥에 깔고 아이들 한 명씩 눕혀서 김밥을 싸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만다. 이 때 아이들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The King is Coming! - 박스타기**

준비물: 버스, 트랙터 그림이 붙여진 바퀴가 달린 큰 상자, 방석이나 수건, 튼튼한 로프

방법:

- 버스와 트랙터 그림이 그려진 상자를 로프로 묶어 손잡이를 만든다.
- 상자 속에 방석이나 수건을 깔고 아이를 번갈아 가며 태운다.
- 고깔을 준비하여 반환점을 만들고 상자를 타고 반환점을 돌아오게 한다.

6. **Let Them Come! - 장애물 지나 달리기**

준비물: 낙하산, 비누방울

방법:

- 놀이용 낙하산을 크게 펼쳐 잡은 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낙하산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천천히 반복한다.
- 낙하산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후 비누방울을 공중으로 높이 불어 내려오는

비누방울을 손, 손가락, 발로 터뜨린다.

- 선생님은 입으로는 방울을 불고, 손가락으로 방울을 만지고, 손과 발로 방울을 터뜨린다고 제시한다.

7. **Here They Come - 동물소리 흉내내기**

준비물: 책 속의 동물그림 목걸이, 동물 그림, 막대기

방법:

- 동물 그림을 출력하여 코팅하고 뒷면에 막대기를 붙인다.
-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동물그림 목걸이를 목에 걸어준다.
- 선생님이 그림 하나를 골라 "Here comes a 00"이라고 말한다.
- 해당되는 아이는 일어나서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다. (eg. 교사가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며 "Here comes a dog. What does it say?" 라고 물으면 강아지 그림 목걸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일어나 "Woof, woof, woof!" 라고 소리 낸다.

8. **Be Cheerful - 물감 찍기**

준비물: 하얀색 전지, 여러 가지 색 물감, 감자, 연근, 물감 찍기 놀이 기구, 테이프

방법:

- 전지를 바닥에 깔고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 아이들이 손과 발에 물감을 묻혀 깔아 놓은 흰색 전지에 손도장 발도장을 찍는다.
- 이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을 찍어본다.
- 선생님은 아이들이 찍어 놓은 그림을 보며 "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00의 손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준다.

9. **I Wonder Why - 선물 포장 풀기 놀이**

준비물: 색깔 별 얇은 노방원단 5-6장 (70X70, 빨강색은 꼭 포함시킨다.), 원단으로 충분히 쌀 수 있는 크기의 상자, 십자가 목걸이(만들거나 구매한다)

방법:

- 상자 안에 십자가 목걸이를 아이 수대로 넣는다.
- 제일 먼저 빨간색 천으로 상자를 싼다.
- 나머지 천으로 상자를 겹겹이 싼다.
- 둥그렇게 앉아 노래를 부르며 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 노래가 마치면 상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보자기 한겹을 푼다.
- 이렇게 계속 진행하여 마지막 빨간색 보자기를 풀면 상자를 열어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어 나눠 갖는다.
- 선생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천 색깔과 같은 붉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한다.
-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10. **To the King - 댄스 파티**

준비물: 파티에 필요한 의상 (인디언 치마, 왕관, 귀걸이, 요술봉, 신사 모자, 면사포 등등)

방법:

- 아이들에게 이 파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파티라고 알려준다.
- 아이들이 하나씩 나와 원하는 파티 의상을 고르고 입게 한다.
- 의상을 입고 각자 책에 나오는 행동을 하게 한다. (clap, stomp, shake, rub…)
- 나머지 아이들은 그 행동을 따라 한다. (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

11. **IF - 늑대에게 호통치기 게임**

준비물: 늑대 가면이나, 머리띠 3-4개

방법:

- 아이들 중 몇 명에게 늑대 가면이나 머리띠를 씌워준다.
- 늑대 친구는 아이스크림 모형을 가지고 나머지 친구들에게 "Do you want ice-cream?"이라고 묻는다.
- 늑대에게 "Go away!" 또는 "No, thanks!"라고 말한다.

12. **Right in the Middle - 예수님과 함께하기**

준비물: 고리, 끈, 허리띠, 예수님 복장

방법:

- 고리를 아이들 수대로 준비하고 끈 한쪽 끝부분에 묶어 놓는다.
- 나머지 한 쪽 끝은 허리띠에 묶는다.
- 예수님 복장을 한 선생님이 그 허리띠를 허리에 두른다.
- 링을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면 돌아다니던 친구들은 고리를 잡는다.
- 고리를 잡고 있는 친구들은 늑대로부터 안전하다.
- 늑대는 고리를 못 잡은 친구들을 따라다닌다.

## 기타 놀이 활동

1. **구르기 활동 후 터널 빠져 나오기**

매트바닥을 두 세번 구른 후 아이 용 터널을 빠져나오는 게임으로 선생님과 부모가 옆에서 보조해주며 한 사람씩 충분히 시간을 준다. 터널 지나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출구 쪽에서 얼굴을 보여주거나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먼저 보게 한다.

*__Special Me tip__: 터널을 통과한 아이들에게 “very good"이라고 말해 준다.

2. **탁구공 집어 올리며 숫자 세기**

색깔 있는 탁구공을 아이들 2배수이상으로 준비한다. 선생님 2명정도 작은 바구니나 수납함을 들고 양쪽에서 대기한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탁구공을 보여준 후 쏟아준다. 공을 잡은 아이들이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을 넣을 때 크게 숫자를 세어준다.

***Special Me tip:** 아이들이 공을 넣을 때 “I’m so special"이라고 말하게 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말해 준다.

3. **낙하산 펼쳐 올리고 내리기 비누방울 잡기**

아빠, 엄마, 선생님모두 함께 놀이용 낙하산을 크게 펼쳐 잡은 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낙하산을 들어올렸다 내렸다를 천천히 반복한다. 박자에 맞추어 안전에 신경 쓰며 여러 번 반복해본다. 낙하산을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은 후 비누방울을 공중으로 높이 불어 내려오는 비누방울을 아이들이 잡으며 터뜨려보는 놀이이다.

***Special Me tip**: 시작전에 말해주세요.
시작전에 하나님 주신 몸으로 신나게 놀아보자고 말하고 다 끝나고는 하나님 주신 몸으로 신나게 논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4. **이불 혹은 수건 김밥말기**

도톰한 이불 혹은 큰 수건을 준비한 후 아이들이 그 속에 누워 부모혹은 선생님들이 김밥을 싸듯이 천천히 부드럽게 말아준다.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머리 쪽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Special Me tip:** 돌돌 말린 아이들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며 부드러운 mommy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5. **장애물 지나 달리기**

아이들이 쉽게 넘을 수 있는 낮은 박스나 쿠션을 준비, 훌라후프도 준비한 후 하나씩 건너 고깔을 지나 돌아온다.

***Special Me tip:** 시작 전에 이야기 해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세요. 우리 장애물을 건너 예수님께로 가는 놀이해 봐요.

### 6. 대형박스에 공 던져 넣기

아이들이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말랑말랑한 공을 아이 수만큼 준비한 다음 커다란 박스에 골을 넣어본다. 양팀을 나누어 진행한 후 이긴 팀 진 팀 공의 개수를 확인해본다. 양팀모두에게 공을 나누어 준다.

***Special Me tip:** 시작 전에 말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 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손에 말랑말랑한 공들이 커다란 박스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이를 해볼께요.

### 7. 물감 찍기(손, 발, 야채, 장난감차 등등)

커다란 전지를 여러 장 바닥에 준비해 둔다. 여러 가지 색 물감을 준비한후 아이들 자신의 손이나 발을 찍어본다. 감자, 연근, 당근, 무, 장난감 등에 물감을 묻혀서 찍어 본다.

***Special Me tip**: 시작 전에 이야기 해주세요.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찍으며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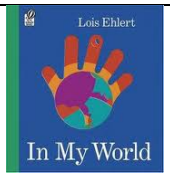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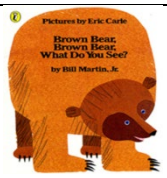
### 8. 얼음 주고받기, 물먹은 수건 돌리기

나무 주걱이나 커다란 수저로 얼음을 옮기는 놀이이다. 또는 수건에 물을 적셔 돌리는 놀이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신나는 음악을 배경으로 친구에게 물을 뿌리는 놀이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주면 좋다. 양말을 신으면 미끄럼 방지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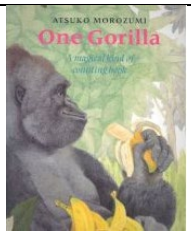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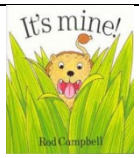
***Special Me tip: If** 노래에 맞추어 늑대를 쫓는 말(get out, get away...등)이 나올 때 취할 행동을 제시하며 게임을 진행해 보세요

# 창작 동화 읽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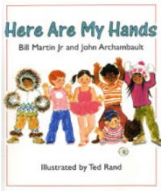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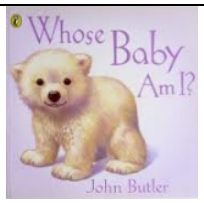
## 1-1 In the Beginning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In My World: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만져보고, 흉내내보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노래하는 동화입니다. |
|  | Brown Bear: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에 대한 경이와 감사의 마음, '이름 지으라' 하신 자리에 있는 아담의 마음을 느껴보게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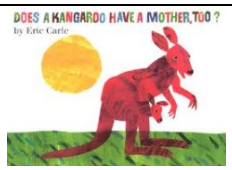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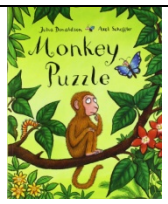
## 1-2 I'm So Special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One Gorilla(Atsuko Morozumi): 고릴라 곁에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고릴라가 있듯이 우리들이 만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계십니다. |
|  | It's Mine(Rod Campbell): 꼬리가 발이 누구의 것인지를 맞춰보면서 생명 현상에 대한 경이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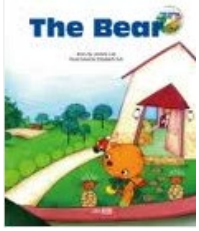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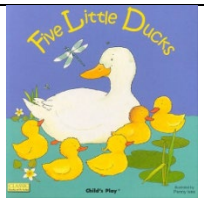
## 1-3 I have My Hands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Here are My Hands: 우리 손과 발은 각각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야 함도 생각하게 합니다. |
|  | Whose Baby am I?: 모든 동물들이 엄마를 닮은 특별하고 예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더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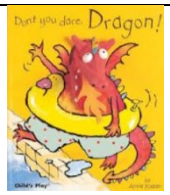
1-4 Mommy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Does a Kangaroo Have a Mother, too.: 모든 동물들에게 엄마가 있듯이 아이에게도 엄마가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행복감과 감사의 마음을 느껴보게 합니다. |
|  | Monkey Puzzle 나비가 아기 원숭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를 쏙 닮은 아기 원숭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것이 우리라는 것도 함께 말해주세요. 유아들에겐 요약해가면서 읽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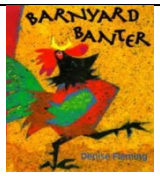
1-5 The King is Coming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he Bear<br>이 세상에 실망할 일도, 실망할 친구도 많지만<br>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
|  | Five Little Ducks: 잃어버린 유아 오리를 찾아나서는 엄마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사랑을 느껴보게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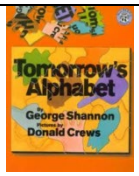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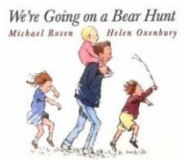
1-6 Let Them Come 과 함께 하는 추천동화

| | |
|---|---|
| | Lots of Feelings: 우리의 슬프고 화나고 속상한 마음 주님이 달래주시고 힘주시러 오셨습니다. 불러 주시는 사랑을 느껴보게 합니다. |
|  | Don't You Dare, Dragon: 오며 가며 사고만 치는 천방지축 공룡. 그러나 이런 공룡도 쓸모가 있습니다. 여전히 또 사고를 칠 것이지만. 이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보게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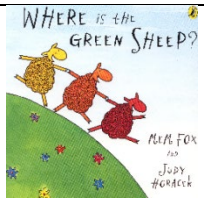
2-1 Here They Come!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Old MacDonald Had a Farm: 농장동물들을 만나보며 소리도 내어봅니다. 동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말해줍니다. |
|  | Barnyard Boogies: 농장 동물 소리를 내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착한 농장 동물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

2-2 Be Cheerful!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omorrow's Alphabet: 스토리에 나오는 사물과 동물처럼 오늘은 작고 어리지만 내일은 멋지게 성장할 나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
|  | We're going on a Bear Hunt: 비록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장애들이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생각하게 합니다. |

2-3 I Wonder Why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Where is the Green Sheep?: 초록 양 한 마리를 찾는 데 스토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나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게 합니다. |
| | King Bidgood's in the Bathtub: 모두가 근심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플러그를 빼어 문제를 해결하였듯이,<br>주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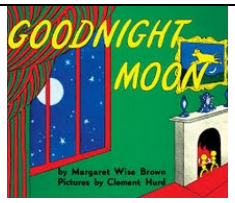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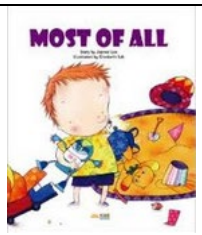
2-4 To the King of Kings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oday is Monday: 우리에게 친히 빵이 되어 주신 주님, 배고픈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배 고프고 맘이 가난한 친구들 모두를 초대하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환영파티를 해요. |
| | Dry Bones: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일어나 연합하여 군대가 되듯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새생명을 얻었고 연합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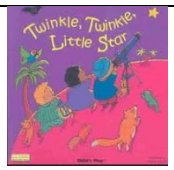
2-5 If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Go Away, Big Green Monster: 겁주는 것이 늑대이지만 용기를 내면 물러가게 할 수 있음을 경험해보게 하고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
| |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Fly<br>우리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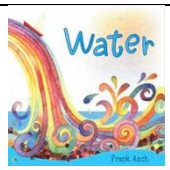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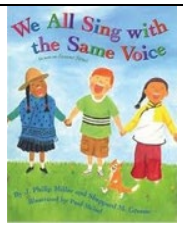
2-6 Right in the middle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Good Night Moon 잠잘 땐 아이 곁에 가장 친근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친근한 분, 우리가 잘 때도 곁에 계시고 사랑으로 우릴 바라보실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
|  | Most of All<br>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엄마가 최고입니다.<br>가장 좋은 것 앞에 모든 것은 상대화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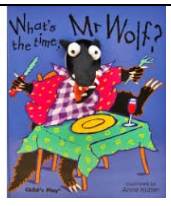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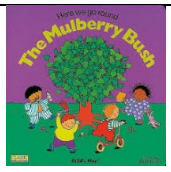
3-1 Thank you Lord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br>반짝이는 하늘의 별들, 너무 아름답게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
| | Down in the Jungle: 정글에 있는 많은 신기한 동물들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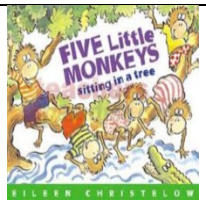
3-2 The Love of GOD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Water: 여기 저기 온 세상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 사랑 온 세상 구석구석에 가득합니다. |
|  | We All Sing with the Same Voice<br>우리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노래해요. 하나님 사랑 노래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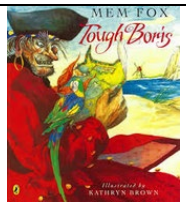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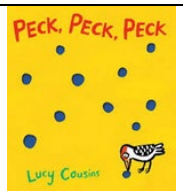
3-3 I can do all things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What's the Time Mr. Wolf?<br>늑대가 시간에 맞추어 하루를 잘 보내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멋지게 잘 보내야 합니다. |
|  | Here We Go Round the Mulberry Bush<br>나는 재미난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옷도 혼자 잘 입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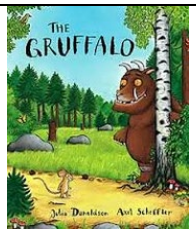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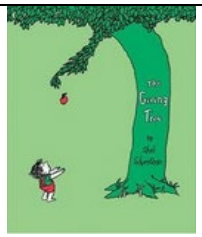
3-4 Noah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Five Little Monkey's Sitting in a Tree<br>엄마 말을 듣지 않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나는 엄마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겠습니다. |
| | Bark, George: 강아지는 멍멍하여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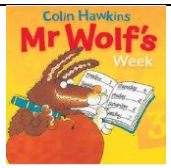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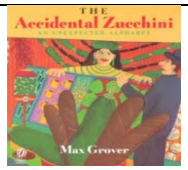
3-5 No Matter What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ough Boris<br>못되고 거칠어 보이지만, 내 맘속에도 아기같이 여린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말썽쟁이라도 그 안에 숨은 착한 아이를 보시고 받아 주시고, 그 마음도 알아주시지요. |
|  | peck, peck, peck<br>무엇을 하든 한다고 해도 어설퍼서 일을 그르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맘을 아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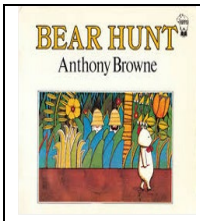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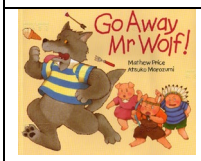
3-6 My Dad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Gruffalo<br>내 뒤에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br>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도 나는 지혜롭고 용감하게 그 분을 믿고 살아갈거에요. |
|  | The Giving Tree<br>무엇이든 다 내어주는 나무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빠의 사랑을 간단히 줄여 스토리텔링으로 읽어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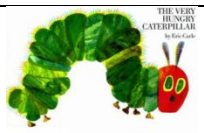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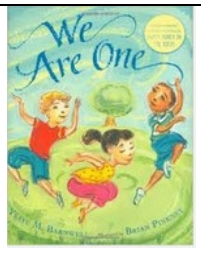
4-1 The Days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Mr Wolf's Week<br>요일에 맞추어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br>주님이 주신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
|  | Accident Zucchini<br>알파벳 첫소리를 따라 멋진 상상의 세상의 열립니다.<br>주안에서 우리도 멋진 세상 꿈꾸고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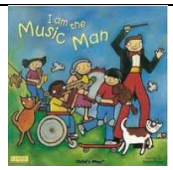
4-2 Mr. Wolf!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Bear Hunt<br>곰사냥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곰. 드디어 우리 안에 잡혔지만 곰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곰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 모두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
|  | Go Away Mr Wolf! 늑대가 나타났지만 용감한 삼형제가 늑대를 물리칩니다.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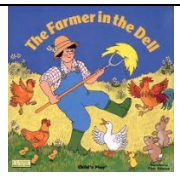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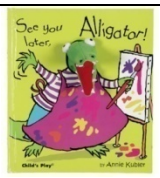
4-3 Churches!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he Very Hungry Caterpillar:<br>비록 작은 애벌레지만 열심히 먹고 나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도 주님 말씀 열심히 먹고, 잘 자라서 나비처럼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
|  | We are One.<br>우리는 모두의 염원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알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br>읽지만 말고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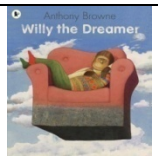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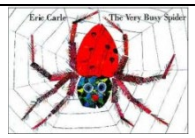
4-4 Elohim 과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Hooray for Fish<br>아름답고 화려한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다니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
|  | I am the Music Man<br>피아노로 북으로 색소폰으로 온맘을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

4-5 Who will help me?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The Farmer in the Dell<br>서로 도와 무를 뽑은 농장 친구들처럼 우리도 서로 도와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  | See You Later, Alligator<br>서로 힘을 모으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lligator 처럼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돕는 제가 될게요. |

4-6 I won't give it up! 와 함께하는 추천동화

| | |
|---|---|
|  | Willy the Dreamer<br>이런 저런 꿈을 꾸는 윌리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랄 거에요. |
|  | The Very Busy Spider<br>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미처럼 저도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꾸준히 하며 살게요. |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입학원서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사진 |
|---|---|---|---|---|---|
| 영문이름<br>(여권용) | | | 전화번호 | | |
| E-mail | | | 핸드폰 | | |
| | | | 보호자성함 | | |
| 주소 | | | | | |
| 등교학교 | | | | | |
| 아이특징 | | | | | |
| 특이사항 | | | | | |
| 건의사항 | | | | | |

## 가 족 사 항

| 관 계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직 업 | 종 교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입학을 신청합니다.**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출석표

※아태장신대 스페셜미 로고 또는 다른 예쁜 스티커를 활용하여 이름표에 붙여준다.

※더 예쁘게 큰 사이즈로 만들어 벽에 붙여주세요.

| 차시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이름 |
|---|---|---|---|---|---|---|---|---|---|
|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5 | | | | | | | | | |
| 6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 | | | | |
| 11 | | | | | | | | | |
| 12 | | | | | | | | | |
| 합계 | | | | | | | | | |

APPENDIX B

#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설문서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에서 앞으로 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어머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니 부담 없이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아동 연령: 아동 성별: 남 여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참여하게 된 동기를 작성해주세요.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해당란에 체크를 하시고 간단히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 프로그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좋지 않음 | 이유 |
|---|---|---|---|---|---|
| **수업진행** | | | | | |
| 베이비마사지 | | | | | |
| 찬양/노래와율동 | | | | | |
| 주제설교 | | | | | |
| 스토리텔링 | | | | | |
| 노래와율동 | | | | | |
| 알파벳타임 | | | | | |
| 테이블타임-유인물 | | | | | |

| | | | | | |
|---|---|---|---|---|---|
| 테이블타임-<br>만들기 | | | | | |
| 테이블타임-간식 | | | | | |
| 놀이와 게임 | | | | | |
| 창작동화<br>읽어주기 | | | | | |
| **행정/관리** | | | | | |
| 환영테이블 | | | | | |
| 아동관리 | | | | | |
| 시설/장비 | | | | | |
| 운영시간 | | | | | |

♥아태장신대 SUMMER CAMP를 마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작성해 주세요.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게 바라는 점을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태장신대 SUMMER CAMP

APPENDIX C

# 일반 성도들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서

1. 본필리핀 아태장신대가 SUMMER CAMP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가 언제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연령이 몇 세 인지 알고 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알고 계시다면, 몇 세입니까? (답:　　)

4.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다　3) 보통이다　4) 낮다　5) 매우 낮다

5. 필리핀 아태장신대 SUMMER CAMP가 아동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된다　3) 보통이다

   4)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주위에 알고 있는 아동이 있다면 아태장신대 SUMMER CAMP 참여를 권유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1) 매우 있다　2) 있다　3) 보통이다　4) 없다　5) 매우 없다

APPENDIX D

## 참가자들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서

1.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서 진행하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2.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서 실시한 '스페셜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3. 이와 같은 아동선교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 인식의 변화에 관한 설문

1. 필리핀 몬탈반 지역에 있는 아동 교육의 프로그램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크다 2) 큰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2. 삶 속에 느끼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이다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3.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의 아동 교육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높은 편이다 4) 보통이다 5) 적은 편이다 5) 매우 적다

4. 본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스텝들의 인력활용(자원봉사활동)을 잘 하고 있나요?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못하는 편이다 5) 매우 못한다

5.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그램이 아동의 신앙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조금 도움이 된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아동들과 함께하는 한 해에 한번 시행하는 아태장신대 SUMMER CAMP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7. 아태장신대 SUMMER CAMP에서 주제활동 및 놀이와 게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8. 아태장신대 SUMMER CAMP는 참여아동의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스럽다 2) 만족스러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 BIBLIOGRAPHY

## 1. 외국 서적


Bonhoeffer, Dietrich. *Letters and papers from Prison*. N Y: Macmillan, 1967.

Brennan, William. The *Abortion Holocaust; Today's Fonal Solution*. St. Louis: Landmark, 1983.

Clinebell, Howard. *Well Being*. Sanfrancisco: Haper, 1992.

Collins, Kenneth. *Exploring Christian Spirituality*.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00.

David Hay, Rebecca Nye, and Roger Murphy. *Thinking about Childhood Spirituality: Review and Current Directions*, Trawbridge: Red Wood Book, 1999.

Elliot W. Eisner.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ew York : Macmillan, 1985.

Erikson, Erik H. *Childhood and Society*. N Y: W.W. Norton, 1963.

Eugene C. Roehlkepartain*, Chrldren's Spirituality*, New York : Macmillan, 122.

Kelsey, Morton. *Healing & Christianity*. N Y: Harper &Row, 1973.

Lester, Andrew. *It Hurls So Bad, Lord*. Nashville: Boadman Press, 1976.

Levinson, Daniel. *The Seasons of a mam's life*. N Y: Alfred A, Knopt, 1978.

Ross, Elizabeth Kubler. *On Death and Dying.* N Y: Mc Millan Pub, co, 1974.

Rubin Theodore. *The Angry Book*. N Y: Coller Books, 1974.

Stranger, Frank Batemen. *God's Healing Community.* Nashville: Abingdon, 1978.

Urban T. Homeless. *Spirituality for Ministr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2

Wilkinson, J. *Healing, New Dictionary of Theology*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88.

Yalom, Irvin. *Love's Executioner*.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0.


## 2. 번역 서적


Anderson, Herbert & Edward Foley. *예배와 목회상담*. 안석모 역. 서울: 학지사, 2012.

Anderson, Neil T.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유화자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2001.

Arnold, Eberhard. *공동체로 사는 이유.* 안정임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2.

Arnold, Johan Christoph. *나이드는 내가 좋다.* 원마루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Beauvoir, Simone de. *노년.* 홍성희, 박혜성 역. 서울: 책세상출판, 1994.

Bondi, Roberta C. *사랑과 기도.* 이후정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4.

Bromley, D. B. *노인심리학.* 김정휘 역. 서울: 성원사, 1990.

Brooke, Christopher. *수도원의 탄생.* 이한우 역. 서울: 청년사, 2005.

Brvere, John. *존 비비어의 관계.* 우수명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_____. *존비비어의 두려움.*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10.

Buber, Martin. *나와 너.* 김천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C. E. Nelson. *신앙교육의 터전.* 박원호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Clift, Wallace B.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 이기춘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82.

Clinebell, Howard. *전인건강.* 이종헌 역. 서울: 성장상담연구소, 1995.

Corey, Gerald. *상담심리 요법과 실제.* 한기태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Cox, Harvey. *세속도시.*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0.

Cully, Iris V. *영적성장을 위한교육.* 오성춘 외 역.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6.

Erikson, Erik H.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8.

Foster, Richard J. *영적훈련과 성장.* 권달천,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Fowler, James W. *신앙의 발달 단계.*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Frankle, Vitor. *로고테라피의 이론과 실제.* 이봉우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0.

Gerkin, Charles V.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Goeden Macdonald.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홍희옥 역. 서울: IVP, 1990.

Hans Rudy Weber. *예수님과 어린이.* 양금희 역. 서울: 장신대 출판부, 2000.

Hendrickson, Berkhor. *기독교와 성령의 역사*. 이창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6.

Herrison, D.K. & W.E.Cole. *노년 사회학*. 최신덕 역. 서울: 경문사, 1985.

Holmes, Urban T. *영성신학총론*. 정대식 역. 서울: 카토릭 출판사, 1985.

Holt, Bradley P. *기독교 영성사*. 엄성옥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4.

Hybels, Bill. *섬김의 혁명*. 서원희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5.

Iris V. Cully, The Bible in Christian education. *성경과 기독교 교육*. 김도일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Jones, Tony. *되찾은 영성*. 최요한 역. 서울: 죠인선교회, 2008.

J. H. Flavell. *인지발달론*, 김재은, 정명숙 역. 서울: 정민사, 1982.

John H. Westerhoff.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서회, 1983.

Kavaler-Adler, Susan. *대상관계 정신분석의 관점, 애도*.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9.

Keller, Timothy. *기도*.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서원, 2015.

_____. *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6.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돌출판사, 2014.

Leslie, Kristen. *지워짖지 않는 상처*. 장보철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

Lewis, C.S. *예기치않은 기쁨*.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Lucado, Max. *일상의 치유*. 최종훈 역. 서울: 청림출판, 2008.

Lucion, Regnault. *사막의 교부는 이렇게 살았다*. 허성식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9.

Luther, Martin.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3 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도서출판 컨콜디아사, 2003.

MacDonald, Goeden.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홍희옥 역. 서울: IVP, 1990.

_____. *베푸는 삶의 비밀*. 윤종석 역. 서울: IVP, 2014.

Margaret A. Krych. *이야기를 통한 기독교 교육*. 이규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McGrath, Alister Edger. *십자가란 무엇인가*. 김소영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6.

Mitchell , Stephen A. & Margaret J. Black. *프로이드 이후*.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Mommsen, Peter. *꿈꾸는 인생*. 홍종락 역. 서울: 홍성사, 2014.

Nieel , Wit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Nouwen, Henri J.M. *영성수업*.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5.

_____. *마음의 길*.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15.

_____.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1.

Nuland, Sherwin B.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명희진 역. 서울: 세종서적, 2016.

Oates, Wayne. *현대종교 심리학*. 정태기 역. 서울: 기독교서회, 1991.

Peterson, Eugene H. *목회자의 영성*. 양혜원 역. 서울: 포이에마, 2013.

Peterson, Peter G. *노인들의 사회 그불안한 미래*. 강연희 역. 서울: 에코리브르, 2002.

Price, Charles S. *치유를 위한 참 믿음*. 이세구 역. 인천:도서출판 바울, 2009.

Ratoret, Kennis. *기독교사*. 윤도혁 역. 서울: 교문사, 1980.

Richards, Lawrence O. *교육신학의 실제*. 문창수 역. 서울: 정경사, 1981.

Robbins, John. *존로빈스의 100 세 혁명*. 박산호 역. 서울: 시공사, 2011.

Rosenberg, Marshall B.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를 말하다*. 정진욱 역. 서울: 한국 NVC 센터, 2016.

Seamands, David A. *상한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서원, 2003.

Sono, Ayako & Alfonso Deeken. *죽음이 삶에게*. 감욱 역. 서울: 도서출판 리수, 2012.

Soelle, Dorothee. *현대신학의 패라다임*. 서광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Stott, John R. W.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화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5.

Thomas H. Groome. *기독교적 종교교육*. 이기문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83.

Thompson, Marjorie. *영성훈련과 이론과 실천*. 고진욱 역. 서울: 은성, 2005.

Tillich, Paul. *흔들리는 터전*. 김천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Tony Jones. *되찾은영성*, 최요한 역. 서울: 죠이선교회, 2008.

Tournier, Paul. *고독*. 윤경남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0.

Virkler, Mark & Patti. *하나님과의 대화*. 임종원 역. 서울: 도서출판브니엘, 2008.

Werner C. Graendorf. *복음주의 기독교교육론.* 김국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후지타 다카노리. *2020 하류노인이 온다*. 홍성민 역. 서울: 청림출판, 2016.

히노하라 시게야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건강법*. 고선윤 역. 서울: 서울문화사, 2003.

3. 국내 서적

구미리암. *치유공동체 신학.* 서울: 쿰란출판사, 2000.

고용수외 4 인. *기독교교육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강근환. *종교개혁시대의 영성과 기독교 영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강남순. *여성신학적영성 이론과 실천 여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강준민.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 서울: 두란노 서원, 2004.

강종찬. *정신위생*. 서울: 현암사, 1975.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김경재. *영성신학서설*. 서울: 기독출판사, 1985.

김경훈.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한다*. 서울: 21 세기 북스, 2016.

김기춘. *2 천년을 살아움직인 초대교회 영성사*. 서울: 영성네트워크, 2004.

김국환.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기독학교, 2006.

김균진. *생명의 신학*. 서울: 연세대학출판부, 2007.

김동건. *김동건의 신학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김동길. *나이 듦이 고맙다*. 서울: 두란노 서원, 2015.

김명용.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비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부출판부, 2000.

김병오. *상처와 슬픔의 치유*.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0.

김보록. *카토릭 수도원 영성*. 서울: 기독교 사상, 1994.

김연택. *21 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김영래. *기독교교육과 앎*. 서울: 다산 글방, 2002.

김 진.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울: 뜨인돌출판사, 2002.

김충렬. *기독교인이 왜 자살하는가*. 서울: 한국상담치료연구소, 2009.

김태련.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4.

김현표. *웃음치료 내몸을 살린다*. 경기도: 포아북스, 2011.

김형석. *백년을 살아보니*. 서울: 알피스페이스, 2017.

남문열. *영적인 건축자*. 서울: 쿰란출판사, 2007.

노인목회연구시리즈 1.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대천덕. *나와 하나님*. 서울: 홍성사, 2011.

민경갑. *미국 속에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민영진. *구약의 영성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문상희.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학출판부, 1984.

문상희 외. *종교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85.

모선희 외 3 인. *현대노인 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5.

문석호. *영성신학의 이해*. 서울: 신앙과 지성, 2004.

_____. *현대신학의 이해*. 서울: 솔로몬, 2000.

박대인. *초대와 중세의 영성생활 목회의 전문화와 영성*.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박상진. *교회교육현장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박원호. *신앙의 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6.

사미자.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 목회*. 서울: 예영컴뮤니케이션, 2005.

성영혜 외 8인. *영, 유아발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1999.

신현국. *웃음치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0.

소기범. *하나님 만나기– 영성의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송명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정석기. *세계 속에 한인교회.* 서울: 쿰란출판사, 2007.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장경철. *흔적신학.* 서울: 더드림 출판, 2014.

지원용. *루터와 종교개혁.* 서울: 컨콜디아사, 1985.

안재도. *개혁주의 영성과 삶.* 서울: 쿰란출판사, 2006.

엄두섭. *신비주의자들과 그 사상.* 서울: 은성출판사, 1992.

오성춘. *광야의 식탁 1 권.* 서울: 홍성사, 1985.

_____.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_____. *목회 상담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오인탁. *기독교교육학개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오정현. *거룩한 결심 순종 선언.*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8.

유기종. *예수의 영성.* 서울: KMC, 2009.

유영주.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983.

유해룡. *기도체험과 영적지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부출판부, 2014.

윤혜경. *이민 한인교회들을 위한 노인목회의 방안.* 서울: 도서출판토라, 2005.

양금희. *이야기·예술·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0.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 서울: CUP, 1999.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2.* 서울: 신원문화사, 1983.

이근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서울: 캘리온출판, 2016.

이광임.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 경기도: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3.

이문균.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 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2000.

이수영. *한국교회의 영성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이인정, 최혜경.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1997.

이완재. *영성신학탐구*. 서울: 성광문화사, 2000.

이현섭 외 3인.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1999.

이호선.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2012.

위기찬. *기독교 윤리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장종현. *우리 것*. 천안: 백석정신아카데미개혁주의생명신학본부, 2011.

정요석 외 5 인. *기독교 영성의 역사*. 서울: 은성, 1997.

정민승, 김영빈, 김영석 공저. *노인 교육론*. 서울: 한국 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3.

정태기. *위기와 상담*. 서울: 상담과 치유, 2010.

정태기. *아픔, 상담, 치유*. 서울: 상담과 치유, 2006.

주선애.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출판사, 2000.

차태원. *해석에서 행동으로*. 서울: 정암문화사, 1998.

최재락. *위기와 교육적 치유*.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7.

최영실. *영성과 여성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최의헌. *정신병리 강의*.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1.

추부길, 이옥경. *실버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가정상담소, 2005.

허원무. *한국이민과 종교참여, 미국 속에 한인사회*. 서울: 뉴욕한인회, 1966.

하용조. *사랑의 교향곡*. 서울: 두란노서원, 2015.

한국여성신학회. *영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한국죽음학회.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 서울: 대화출판사, 2010.

한광일. *웃음치료*. 서울: 삼오미디어, 2016.

한동구. *구약성성의 입장에서본 영성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홍성건, 김미진. *왕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삶*. 서울: 규장출판, 2015.

홍성건.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 경기도: 도서출판예수전도단, 2009.

황상민. *한국인의 심리코드*. 서울: 추수밭, 2011.

4. 학위 논문

최은혜. “중년기여성 리더쉽 개발을 위한 평신도 목회사역 연구.” DMin diss.,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2015.

5. 학술지

Kats, Robert L. “Kats. Jewish Values and Soci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Pastoral Psychology* (Winter, 1975).

Pruser, Paul W. *Aging; Doward, Upwaed dr Forward?* Paychology.

Sharon Begley. “Nature’s baby killers.” *Newsweek* 6 Sep, 1982.

The Korean Christion Jounal Vol 38.

W.C.C. 기독교의료위원회. “건강. 치유. 온전함.” *기독교사상*(11 1990).

김명환. 목회자윤리문제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김의식. 기독교영성의 바른이해. *신앙계*통권 229 호(4 1986).

안영권. 기독교영성이란 무엇인가. *목회와신학*(10 1993).

이후정. 기독교영성사 주제와 해석. *신학과 세계*통권 제 48 호(2003).